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ntent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Namhansanseong History Center

정대영 외  
dyjeong@gri.re.kr



정책연구 2022-05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ntent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Namhansanseong History Center

**인쇄** 2022년 4월  
**발행** 2022년 4월  
**발행인** 송미영  
**발행처** 경기연구원  
**주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2  
**ISBN** 979-11-6853-058-4-93320

**연구책임**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책건의

- 경기도는 남한산성의 가치를 전달하고, 유물자료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가칭)' 건립 중(2023년 개관 예정)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관련 유물의 전시·교육·관리기능을 수행
    - 현재 남한산성은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이 약 5,000여 점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시실 및 수장고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전문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운 상태
  - 박물관 건립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확약 사항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착공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001번지 일원에 건립 중(건축연면적: 2,963m<sup>2</sup>)
    - 경기도는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남한산성 관련 유물 수집 진행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관련 유물의 보존·전시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내 유적·유산, 민속문화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유산적 가치 확산 필요
  -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 보존과 성과유산 특성화를 위해 남한산성 내 역사·문화유산을 연계한 교육, 체험, 전시콘텐츠 개발 및 활용 필요
    - 이는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전시·교육·관리)가 핵심 요소
  - 남한산성은 연간 3백여만 명이 찾는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역사문화관 개관 이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 설문조사 응답자 중 73.9%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방문의향이 높은 것으로 집계
    - 따라서, 방문객 규모 수준에 따라 역사문화관 시설·안내 서비스 인력 증원 필요
    - 또한, 남한산성 남문주차장의 주차 수요 집중, 부실한 주차안내 체계 등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역사문화관 개관에 따른 교통개선 필요성 제기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과 남한산성의 역사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 콘텐츠, 관광, 교통 부문에서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
  - (조직구성)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내 '역사문화관팀(가칭)'을 신설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과 더불어 주말·성수기 남한산성 방문객 규모 수준을 고

려한 탄력적 인력 운영계획 수립

- (콘텐츠) 남한산성 디지털 헤리티지 제작, 미디어아트 쇼 개최 등 전시콘텐츠와 남한산성 민속문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초·중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 등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방문객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 확대
- (관광) 남한산성의 역사·문화 명소화를 위해 XR(확장현실) 투어버스, 투어패스 도입 등 남한산성 유산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
- (교통)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시설물 설치, 시인성이 불량한 교통안내 표지판 개선, 성수기 및 주말 성내 주차 수요 분산을 위한 성곽 외부 주차장 - 역사문화관 구간 '수요응답버스(DRT)' 도입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장 겸임 및 남한산성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관장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내 '세계유산활용팀장'이 직무를 겸임하는 형태가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유리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체계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개관 목적 및 주요사업, 운영사항(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등), 운영위원회 구성, 대관 등 명시

□ 남한산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사업 추진

-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공모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남한산성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체험·교육프로그램, 디지털 매체, 먹거리 상품, 메타버스 플랫폼 등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공모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학술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마케팅 강화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주변 지방문화원(광주, 성남, 하남), 관련 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약 및 학술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역사문화관 통합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디지털화 및 남한산성의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인 ‘남한산성 DMO(가칭)’ 육성 지원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온라인 전시 및 교육, AR 도슨트 운영 등 디지털화 추진
  - 남한산성 탐방 안내 및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관람 정보, 남한산성 디지털 헤리티지, 남한산성 주변 관광시설 등의 관광 정보 및 콘텐츠 서비스를 방문객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남한산성 통합관광플랫폼(가칭)’ 구축 추진
  - 남한산성 내 사업체, 주민조직, 협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한산성의 관광 현안을 논의하고, 관광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산성 DMO(지역관광추진조직)(가칭)’ 육성 지원
- 남한산성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수요응답버스(DRT) 시범사업 추진
  -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중앙분리대 및 주차 차단기 설치, 역사문화관 앞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시행, 시인성이 낮은 교통 안내표지판 교체
  - 남한산성 주차 수요 분산을 위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 성곽 외부 주차장’ 구간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수요응답버스(DRT) 시범사업’ 추진



## 정책건의 \_ i

## 제1장 | 서론 \_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3. 선행연구 검토 .....	6

## 제2장 | 현황 및 여건분석 \_ 13

1. 남한산성 일반현황 .....	13
1) 역사적 배경 .....	13
2) 입지 및 지형 .....	14
3) 남한산성 도립공원 및 세계유산 현황 .....	15
4) 방문객 현황 .....	17
5) 문화재 현황 .....	20
6) 민속문화 현황 .....	24
2.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여건분석 .....	25
1) 추진배경 및 목적 .....	25
2) 추진개요 .....	26
3) 국내 박물관 현황 .....	28
4) 운영계획 .....	31
5)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	34
6) 교통현황 및 문제점 .....	36
3. 방문객 설문조사 .....	46
1) 설문조사 설계 .....	46
2) 설문지 구성 .....	46
3) 인구통계학적 특성 .....	47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48

### 제3장 | 사례분석 \_ 57

1. 목적 및 방향 .....	57
2. 성곽유산의 지역연계 활용 사례 .....	60
1) 수원화성 .....	60
2) 행주산성 .....	63
3) 공주 공산성 .....	65
4) 일본 히메지 성 .....	66
5) 중국 핑야오 고성 .....	68
3. 유적박물관과 주변지역의 연계적 활용 사례 .....	71
1) 시흥 오이도 박물관 및 선사유적공원 .....	71
2)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및 전곡리 선사유적 .....	72
4.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콘텐츠 사례 .....	74
1) 전시·교육 콘텐츠 현황 .....	74
2) 박물관 전시방식 현황 .....	76
3) 전시 및 공간연출 사례 .....	78
4) 디지털 실감 콘텐츠 사례 .....	82
5) 메타버스 적용 및 온라인 전시, SNS 활용 사례 .....	86
5. 소결 .....	90

### 제4장 | 박물관 조직 및 인력운영 특성 분석 \_ 95

1. 분석 개요 .....	95
2. 유사기관 분석 .....	96
1) 수원화성박물관 .....	96
2) 한성백제박물관 .....	98
3) 국립진주박물관 .....	99
4) 백제왕궁박물관 .....	101
5) 계양산성박물관 .....	103
6) 한양도성박물관 .....	104
3. 유사 규모 박물관의 인력 현황 비교·분석 .....	105
1) 건축 면적 기준 유사 규모 박물관 인력구성 .....	105
2) 관람객 수 기준 유사 규모 박물관 인력구성 .....	107

## 제5장 | 운영 및 활성화 방안 \_ 113

1. 기본방향 .....	113
2.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	114
3.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	117
1) 전시콘텐츠 .....	117
2) 교육·체험프로그램 .....	119
4. 관광 활성화 방안 .....	121
1) XR 투어버스 운영 .....	121
2) 남한산성 패스(가칭) 개발 및 운영 .....	122
5. 교통 개선방안 .....	124
1) 남문주차장 인근 개선방안 .....	124
2) 성외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	130

## 제6장 | 결론 및 정책제언 \_ 133

1. 결론 .....	133
2. 정책제언 .....	135

## 참고문헌 \_ 137

## Abstract \_ 141

## 부록 \_ 143

##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 검토 .....	6
[표 2-1]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	21
[표 2-2] 도지정문화재 현황 .....	21
[표 2-3] 비지정문화재 현황 .....	23
[표 2-4]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연차별 투자계획 .....	26
[표 2-5]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주요 추진경과 .....	27
[표 2-6] 시도별 등록박물관 현황(2021년 기준) .....	29
[표 2-7] 경기도 소관 박물관 현황(2021년 기준) .....	30
[표 2-8]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인력 현황 .....	34
[표 2-9]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정원 외 인력 현황 .....	35
[표 2-10] 남한산성 주변 가로망 현황 .....	36
[표 2-11] 남한산성 내 주차장 현황 .....	37
[표 2-12]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중교통 운행현황 .....	38
[표 2-13] 교통량 조사개요 .....	39
[표 2-14] 남한산성 교통량 추이 .....	40
[표 2-15] 유료주차장별 주차현황 .....	40
[표 2-16] 대중교통 이용현황 분석 개요 .....	41
[표 2-17] 시간대별 노선별 버스 운행횟수 .....	41
[표 2-18] 남한산성 종점정류소 승하차인수 .....	42
[표 2-19] 설문조사 개요 .....	46
[표 2-20]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7
[표 3-1] 남한산성의 유산 속성 .....	59
[표 3-2] 남한산성과 일본 히메지 성의 비교분석 .....	67
[표 3-3] 남한산성과 평야오의 비교분석 .....	69
[표 3-4]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콘텐츠 현황 .....	74
[표 3-5]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의 전시방식 유형 .....	76
[표 3-6] 박물관 체험 공간 운영사례 .....	79
[표 3-7] 박물관 공간 콘텐츠 개발 사례 .....	81
[표 3-8]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운영사례 .....	84

[표 3-9] 국립해양박물관 실감형미디어아트 전시 사례 .....	85
[표 3-10] 국립중앙박물관 메타버스 박물관 개요 .....	86
[표 4-1] 수원화성박물관 개요 .....	96
[표 4-2] 한성백제박물관 개요 .....	98
[표 4-3] 국립진주박물관 개요 .....	100
[표 4-4] 백제왕궁박물관 개요 .....	101
[표 4-5] 계양산성박물관 개요 .....	103
[표 4-6] 한양도성박물관 개요 .....	104
[표 4-7]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사 규모(건축면적) 박물관의 인력 현황 .....	106
[표 4-8]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연간 예상 관람객 수 .....	107
[표 4-9]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사 규모(관람객 수) 박물관의 인력 현황 .....	108
[표 5-1]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인력구성(안) .....	115
[표 5-2] 초등 및 중학교 교과 연계 프로그램 예시 .....	120

#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	5
[그림 2-1] 남한산성 입지여건 .....	14
[그림 2-2] 남한산성 지도 .....	15
[그림 2-3] 남한산성 세계유산 지정범위 .....	16
[그림 2-4] 연도별 방문객 수 .....	17
[그림 2-5] 시간대별 방문객 수 .....	18
[그림 2-6] 계절별 방문객 수 .....	18
[그림 2-7] 요일별 방문자 수 .....	19
[그림 2-8] 남한산성 문화재 분포 .....	20
[그림 2-9] 효종갱 및 남한산성 소주 .....	24
[그림 2-10]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조감도 및 현장사진 .....	26
[그림 2-11] 국내 등록박물관 연도별 추이 .....	28
[그림 2-12] 시도별 등록박물관 현황(2021년 기준) .....	29
[그림 2-13] 경기도 소재 등록박물관 현황(2021년 기준) .....	30
[그림 2-14] 남한산성 오픈 에어 뮤지엄 개념도 .....	31
[그림 2-15]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평면개념도 .....	32
[그림 2-16]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야외전시 계획 .....	33
[그림 2-17]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조직현황 .....	34
[그림 2-18] 남한산성 주변 가로망 분포 .....	36
[그림 2-19] 남한산성 도립공원 주차장 현황(2021년 기준) .....	37
[그림 2-20]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중교통 운행현황 .....	38
[그림 2-21] 교통량 조사지점 .....	39
[그림 2-22] 종점정류소 시간대별 승하차 이용객수 .....	42
[그림 2-23] 시인성이 불량한 남한산성 내 주차안내 시스템 .....	44
[그림 2-24] 안내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한 주차안내 표지판 .....	44
[그림 2-25] 보행환경 불량 성외주차장(지방도342호선) 및 남한산성 연결 도로 · 45	
[그림 2-26] 이용률이 저조한 검복리 주차장(左) 및 하행선 주차장(右) .....	45
[그림 2-27] 최근 3년간 남한산성 방문횟수 .....	48
[그림 2-28] 동반자 유형 .....	49



[그림 2-29] 방문목적 .....	49
[그림 2-30] 정보수집경로 .....	50
[그림 2-31] 남한산성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수준 .....	51
[그림 2-32]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역사문화관 건립 인지 여부	51
[그림 2-33] 역사문화관 건립 시 방문의향 .....	52
[그림 2-34] 역사문화관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기준) .....	52
[그림 2-35] 남한산성에 대한 향후 개선의견 .....	53
[그림 2-36]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영향 .....	53
[그림 2-37] 주요 교통수단 .....	54
[그림 2-38] 역사문화관 무료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의향 .....	54
[그림 3-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조건 .....	57
[그림 3-2] 수원 행궁동의 정비된 간판 및 벽화골목 .....	62
[그림 3-3] 정조대왕능행차 .....	62
[그림 3-4] 수원화성문화제 .....	62
[그림 3-5] 행주대첩제 및 제천의례 .....	63
[그림 3-6] 고양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포스터 .....	64
[그림 3-7] 고양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야간조명 .....	64
[그림 3-8] 백제문화제 웅진판타지아 공연 및 백제고을 고마촌 행사 .....	65
[그림 3-9] 히메지성 전경 .....	66
[그림 3-10] 히메지 성 일루미네이션 이벤트 .....	68
[그림 3-11] 히메지 성 마라톤 행사 및 축제 퍼레이드 .....	68
[그림 3-12] 핑야오 고성 전경 .....	70
[그림 3-13] 핑야오 고성 내 거리 .....	70
[그림 3-14] 시흥 오이도 박물관 .....	72
[그림 3-15] 시흥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	72
[그림 3-16] 전곡리 유적 산사체험마을 프로그램 .....	73
[그림 3-17]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	73
[그림 3-18]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체험관 .....	79
[그림 3-19] 계양산성박물관 전시공간 및 체험물 .....	79
[그림 3-20]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사례 .....	81
[그림 3-21] 풍기인삼박물관 상설전시 사례 .....	81
[그림 3-22]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영상관 .....	84

[그림 3-23]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수장고 VR 및 청자에 담긴 세상 VR	84
[그림 3-24]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심연의 상상' 리플렛	85
[그림 3-25]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심연의 상상' 영상	85
[그림 3-26] 국립중앙박물관의 메타버스 박물관 사례	87
[그림 3-27]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미술관 사례	87
[그림 3-28] 전곡선사박물관 온라인 전시 사례	88
[그림 3-2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 사례	88
[그림 3-30]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 사례	89
[그림 4-1] 수원화성박물관 전경	97
[그림 4-2] 수원화성박물관 조직도	97
[그림 4-3] 한성백제박물관 전경	98
[그림 4-4] 한성백제박물관 조직도	99
[그림 4-5] 국립진주박물관 전경	100
[그림 4-6] 국립진주박물관 조직도	101
[그림 4-7] 백제왕궁박물관 조직도	102
[그림 4-8]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사 규모 박물관(건축면적)의 평균 인력	106
[그림 4-9]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사 규모 박물관(관람객 수)의 평균 인력	109
[그림 5-1] 수원화성 디지털 헤리티지 제작과정	117
[그림 5-2] 남한산성 미디어아트 쇼 예상도	118
[그림 5-3] 양동마을 전통주 제조 체험 사례	119
[그림 5-4] 해미읍성 축성과정 체험	120
[그림 5-5] 뉴욕 더 라이드(THE RIDE) 버스투어	121
[그림 5-6] 금강백제권역투어패스 사례	123
[그림 5-7] 남문주차장 진출입부 계획(안) 및 설치시설물	125
[그림 5-8] 남문주차장 만차 차단봉 설치 예시	126
[그림 5-9] 리모컨 방식 주차차단기 시스템 예시	126
[그림 5-10]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앞 교차로 계획(안)	127
[그림 5-11] 신규 안내표지판 도면(남문주차장~센터주차장 구간)	128
[그림 5-12] 신규 안내표지판 도면(동문주차장~검복리주차장 구간)	129
[그림 5-13] 파주시 수요대응형 시내버스 운영사례	130

# 1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 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경기도는 남한산성 관련 유물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가칭, 이하 생략)’ 건립 중(2023년 개관 예정)
  - 2014년 6월 2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은 연간 3백여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부상
  - 남한산성은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이 약 5,000여 점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시실 및 수장고 등이 갖춰지지 않아 관련 유물의 전문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웠음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017년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건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1년 착공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001번지 일원에 건립 중(건축연면적: 2,963㎡)이며, 2023년 준공 예정
    - 박물관 건립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확약 이행사항임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성곽연구 특성화를 통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확산에 기여
  - 최근 박물관 공간구성이 ‘수장 및 전시’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최근 개방형 수장고, 복합문화시설 등 관람객 중심의 탈 위계적 형태로 변화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박물관 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내 역사·문화유산을 연계한 교육, 체험, 전시콘텐츠 개발 및 활용 필요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역사·문화 명소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및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인접 시와의 협력 방안 마련도 필요
    - 경기도(2018)에 따르면, 남한산성 주변 지자체(서울시 송파구·강동구, 경기도 광주시·성남시·하남시)의 약 1백만 세대 260여만 명 주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 확대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2) 연구의 목적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
- 남한산성 현황 및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관련 자료 검토, 방문객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교통 개선방안을 수립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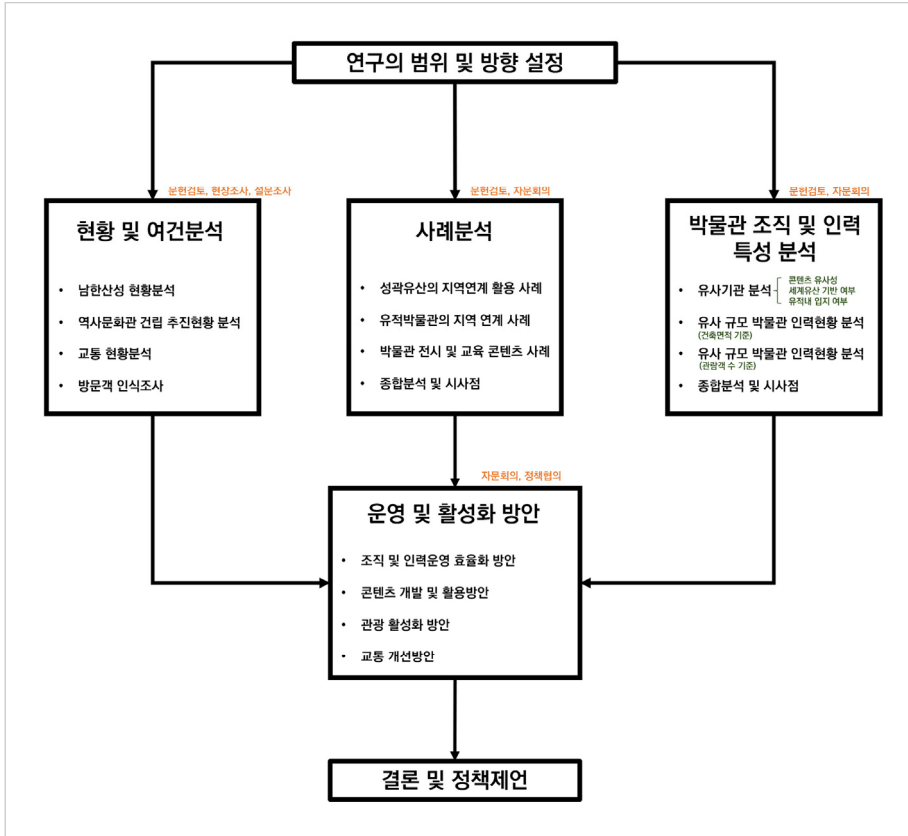
-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범·제도 검토와 현황자료를 구축
- 내용적 범위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설정

###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박물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남한산성의 역사 및 문화재 현황, 남한산성 방문객 현황,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여건분석, 남한산성 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설문조사 : 남한산성 이용실태 및 역사문화관 건립에 관한 의견 조사(남한산성 방문객 대상)
- 사례분석 : 성곽유산의 지역연계 활용 사례, 유적박물관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 사례,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콘텐츠 사례, 주요 박물관 조직구성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
-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관광 활성화 방안, 교통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 본 연구의 추진절차는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흐름도



자료 : 연구자 작성.

### 3)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검토

- 관련 선행연구를 박물관 정책, 박물관 전시구성, 박물관 운영계획,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남한산성 활용방안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
  - **박물관 정책 관련 선행연구**로는 국공립 박물관 건립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등 검토
  - **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선행연구**로는 디지털박물관의 전시콘텐츠 스토리텔링 사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심양(중국) 고궁에 설립된 박물관의 운영사례, 기획자와 관람자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유형별 연출기법 등 검토
  - **박물관 운영계획 관련 선행연구**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한 홍보조직 진단 및 발전 방안,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 준비계획 및 수장·전시·운영 방향 등 검토
  - **국공립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관련 선행연구**로는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검토
  - **남한산성 활용방안 연구**로는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 기본계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보존·활용 방안,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의 가치 확산, 지역사회의 문화 수요 충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박물관 건립방안,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교통혼잡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검토

[표 1-1] 선행연구 검토

구분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박물관 정책	김홍규(2021), 국공립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li> <li>• 국공립 박물관 건립 시 시설의 특수성과 건립행정의 규칙성 간의 문제 검토 필요</li> <li>• 총사업비 등록시점을 실시설계 전후, 소요정원은 건립기획 단계부터 반영하고, 국공립 박물관 사전평가제를 총사업비 등록시점과 연계</li> </ul>



(표 계속)

구분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박물관 정책 (계속)	김현경(2017),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연구 - 포용적 박물관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포용적 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제안</li> <li>• 유물의 보존 및 전시뿐만 아니라 사회 내 문화적 격차 해소 및 지식 공유의 역할을 수행</li> <li>• 박물관 인력, 관람객 수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박물관 운영 및 관람객의 인식 변화 필요</li> </ul>
박물관 전시구성	박재영(2014), 디지털박물관 전시콘텐츠 스토리텔링 연구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전시콘텐츠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박물관의 정의 및 관련 이론을 분석·정리하여 디지털박물관 전시콘텐츠 스토리텔링의 분석 틀 제시</li> <li>•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의 현 상황 분석 결과 시·공간의 확장, 공간·행동적인 전시콘텐츠 중심으로 개편 및 전체 동선의 스토리텔링 구현 필요</li> <li>• 맞춤형 박물관, 공간-사용자 융합형 박물관 등과 같은 전시구성 제안</li> </ul>
	Li (2018), Case of Shenyang Imperial Palace Muse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심양 고궁에 박물관을 건설한 후 운영 사례 분석</li> <li>• 복원·상설·임시전시 운영 및 관련 문화 창의상품 개발</li> <li>• 공연, 소장품 관련 역사이야기 소개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li> </ul>
	김원길(2021), 박물관 전시 디자인 연출유형 및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의 공간연출유형 분류 및 기획자와 관람자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유형별 연출기법 제안</li> <li>• 개최된 전시를 사례로 연출유형과 연출기법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전시 기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시</li> <li>• 디지털 영상매체 연출기법 사용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li> </ul>
박물관 운영계획	노영우(2006), 박물관 및 미술관 홍보조직 진단 및 발전 방안 제언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 - 우수홍보조직 모델을 중심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unning의 우수이론을 토대로 효과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조직을 위한 우수홍보팀의 조건 탐색</li> <li>• 우수 홍보조직에 필요한 6개 조건을 분류·분석하고, 질적 특성 및 조직의 구조적 시스템을 평가 지표의 필요성 제시</li> </ul>

(표 계속)

구분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박물관 운영계획 (계속)	박영완 외(2014),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관리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예정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의 운영에 적합한 방식, 주체, 조직체계, 운영 원가, 운영 활성화 방안 등 검토</li> <li>• 박물관의 기본 방향·예상 방문인원 및 그에 따른 가격 책정·기획전시 계획·유지관리비용 분석</li> <li>• 어린이박물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운영 요금체계의 다양화 고려</li> </ul>
	홍승일 외(2016), 서울공예 박물관 소장품 수집·전시 및 운영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관 준비 계획 및 주장·전시·운영방향 수립</li> <li>• 사회 전반에 공예를 통한 삶의 방식이 제시되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li> <li>• 공예 전문 종합박물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운영 및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학술적·사회적 노력 요구</li> </ul>
국공립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임채진·홍승일(2015),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익산박물관의 건립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건축·전시·운영계획을 수립</li> <li>• '익산문화권'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확립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전시·교육·체험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익산문화권'의 정보와 가치 전달 필요</li> <li>• 현대박물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 추세를 반영하고, 미륵사지 관광지와 연계한 '역사문화공원의 핵심시설'을 지향</li> </ul>
	김흥규 외(2020), 국립충주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의 기초계획 제안 및 환경분석을 통한 방향성 설정</li> <li>• 국내 5대 문화권 중 하나인 중원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박물관 건립</li> <li>• 박물관 운영의 디지털화, 지역 연계 기반 구축 등 현대박물관의 추세를 반영하며 박물관 고유의 기능 외 지역민의 편익 증진 고려</li> </ul>

(표 계속)

구분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남한산성 활용방안	경기도(2017),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산성박물관(가칭)의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상지 선정 후 건축·전시·토목·설비·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li> <li>•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전시·홍보·교육·조사연구·수장·관리 가능한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li> <li>• 남한산성의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하고 산성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박물관 건립 필요</li> </ul>
	이수진·전유나(2014), 남한산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보존·활용 전략제시</li> <li>• 투자·이용객 소비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li> <li>• 편의공간 조성, 산성 내 불법행위제재, 교통체증 및 접근성 개선,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과 정비, 조직 확대 및 협의체 구성, 남한산성 관리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제정 제안</li> </ul>
	박제광(2018), 남한산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건립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문화유산·군사유산으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박물관 건립전략 제안</li> <li>• 역사적·군사적·행정적·민속적 성격 및 현대 박물관의 특징을 분석하여 박물관 건립전략 제안</li> <li>• 성곽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을 위한 이해와 경험을 목적으로 전시 제안</li> </ul>
	류시균 외(2016), 남한산성 도립공원 교통정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문제 해소를 위한 교통공학적·정책적 개선방안 제시</li> <li>• 교통체계개선, 주차시설의 운영개선방안 및 관리체계개선방안 등 단기 및 중장기 방안 제안</li> <li>• 일부 세부사업에(특히,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대해 주민과의 의견조율 필요</li> </ul>

자료 : 연구자 작성.



# 02

## 현황 및 여건분석

1. 남한산성 일반현황
2.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여건분석
3. 방문객 설문조사



## 제2장 현황 및 여건분석

### ① 남한산성 일반현황

#### 1) 역사적 배경

-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 유사시 임시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축성된 산성
  - 통일신라 문무왕 때 축성된 주장성(672)의 옛터를 활용하여 조선 인조 4년(1626)에 대대적으로 구축
    - 조선시대 초기부터 남한산성 수축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인조 2년(1624)~4년(1626) 사이 대대적인 수축을 단행
    - 5군영의 하나인 수어청이 주둔하였고, 사도 유수부<sup>1)</sup>의 하나가 되었음
  - 평균 고도 해발 480m에 이르는 험준한 자연 지형을 따라 12km가 넘는 성벽을 구축하여 많은 병력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
  - 군사적 목적의 산성이었으며, 서울에서 근거리에 위치하여 유사시 백성과 함께 왕조가 피난한 임시수도였음
    - 특히 남한산성 행궁은 다른 행궁과 달리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갖추어 임시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임
-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축성 이후 300여 년간 지속적으로 보존되었으며, 성곽 및 유적들을 포함하는 전체 권역은 1963년 국가 사적(제47호)로 지정
  -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제38차 회의에서 남한산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
  - 동아시아 산성 건축술 교류의 증거이자 방어 전술의 시대별 층위가 결집한 초대형 포곡식 산성(계곡을 감싸고 축성된 산성)이라는 점 등의 가치를 인정
    - 17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달한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

1) 행행지 및 군사적 요지에 설치되었던 행정기관임.

## 2) 입지 및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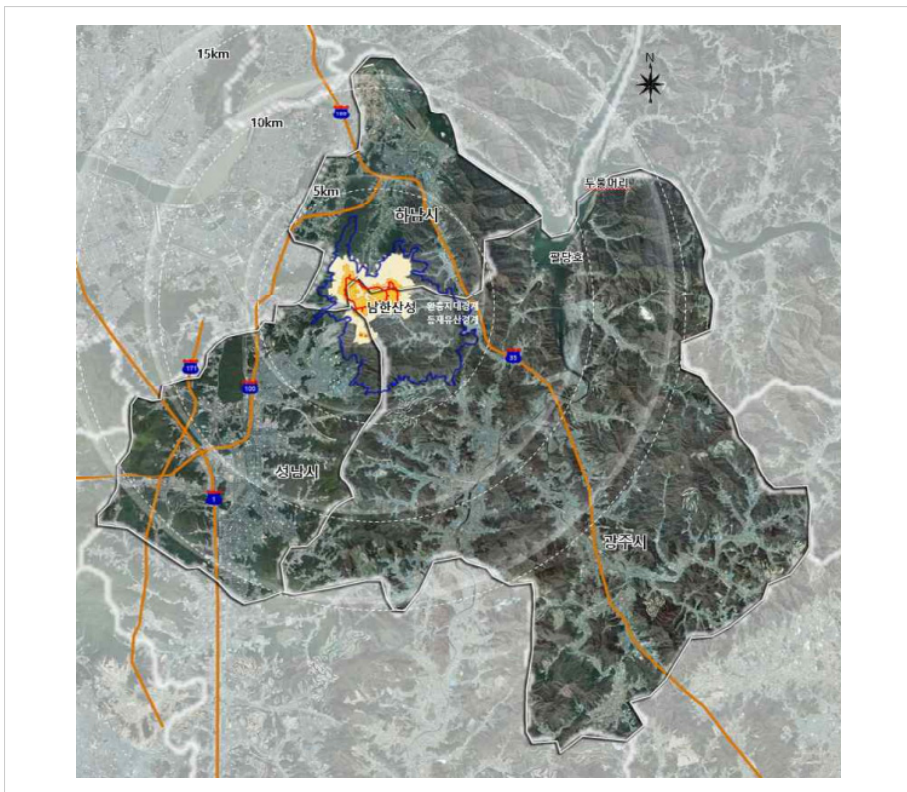
### □ (입지) 서울의 중심부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입지

- 남한산성(도립공원)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있으며, 남한산성 내부는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위치

### □ (지형) 해발 400m 이상의 산세와 결합하여 구축한 포곡식 산성

- 광주산맥 끝 부분에 형성된 고산지대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청량산(497m)을 중심으로 연주봉(467.5m), 벌봉(515m), 한봉(418m) 등 몇 개의 봉우리를 연결
- 산성 외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산성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균 고도 350m 내외의 넓은 구릉성 분지를 형성

[그림 2-1] 남한산성 입지여건



자료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19).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 I』.



### 3) 남한산성 도립공원 및 세계유산 현황

#### □ 남한산성은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경기도 공고 제158호)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
- 면적 : 35.16km<sup>2</sup>
  - 광주시 21.56(61%), 하남시 8.81(25%), 성남시 4.79(14%)
- 주차료<sup>2)</sup> : 승용차 3,000원, 승합차 6,000원(12인승 이상)
- 방문객 : 2021년 기준 누계 약 251만 명
- 주요시설 : 탐방로, 전망대, 야외공연장 등
- 공원시설
- 주차장(12개소/855면), 화장실(20개소), 탐방로(43개 노선/74km), 의자·쉼터(359점), 안내판 등 설치
- 기타시설 : 벤치, 보안등, 파고라 등

[그림 2-2] 남한산성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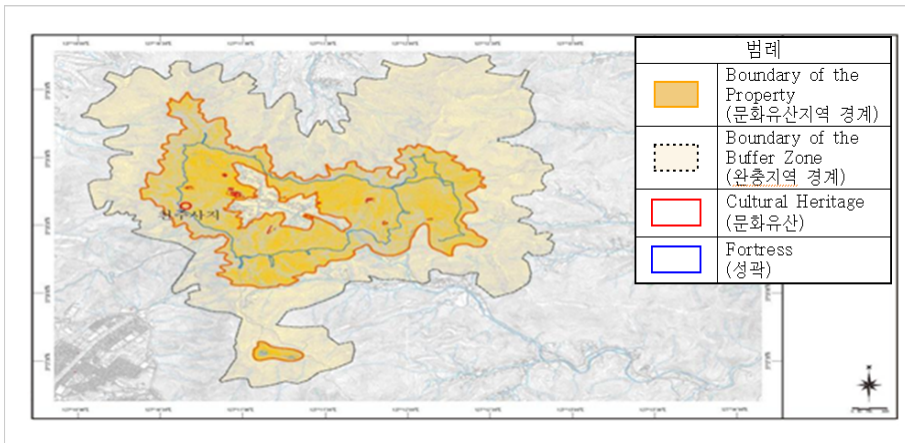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2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반현황』.

2) 중앙·남문·로터리·센터 등 4개 유료주차장 평일 기준요금이며, 남한산성 입장료는 2007.1.1부터 폐지함.

□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등재일 : 2014년 6월 22일
- 축성기간 : 조선 인조 2~4년(1624~1626년)
- 성곽길이 : 11.76km(본성 9.05km, 외성 2.71km)
- 세계유산 총 면적 : 12.62km<sup>2</sup> (세계유산지역 4.09km<sup>2</sup> / 완충지역 8.53km<sup>2</sup>)
  - 완충지역 : 성벽으로부터 반경 500m 밖에 설치
  - 광주시 5.7(45%), 하남시 5.96(47%), 성남시 0.96(8%)
- 역사·문화경관
  - 군사경관 : 성곽, 연무관, 장대, 승영사찰 등
  - 통치경관 : 행궁, 승렬전, 현절사 등
  - 민속경관 : 제향, 전례, 도당굿, 불교전통, 민속놀이 등
- 문화재는 남한산성 행궁 포함 총 13개소 분포
- 2016년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출범
  - 남한산성 관리업무는 2014년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이관

[그림 2-3] 남한산성 세계유산 지정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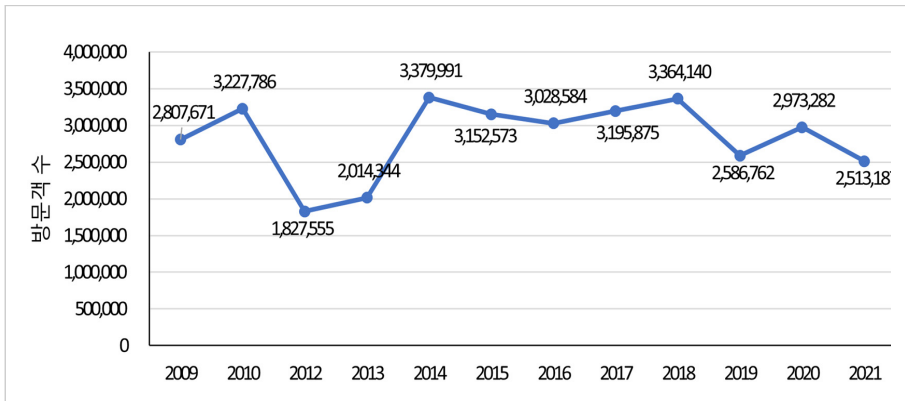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2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반현황』.

#### 4) 방문객 현황

-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남한산성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38만 명으로 집계
  - (연도별 방문객 통계)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2014년에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8년은 약 336만 명으로 집계
    - 2012년은 전년대비 43.4% 감소한 1,827,555명으로 최근 12년간 가장 적은 수치
    -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남한산성 문화제'가 취소되는 등 여파로 전년 대비 23.1% 감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973,282명이 방문하였으나 2021년 2,513,187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

[그림 2-4] 연도별 방문객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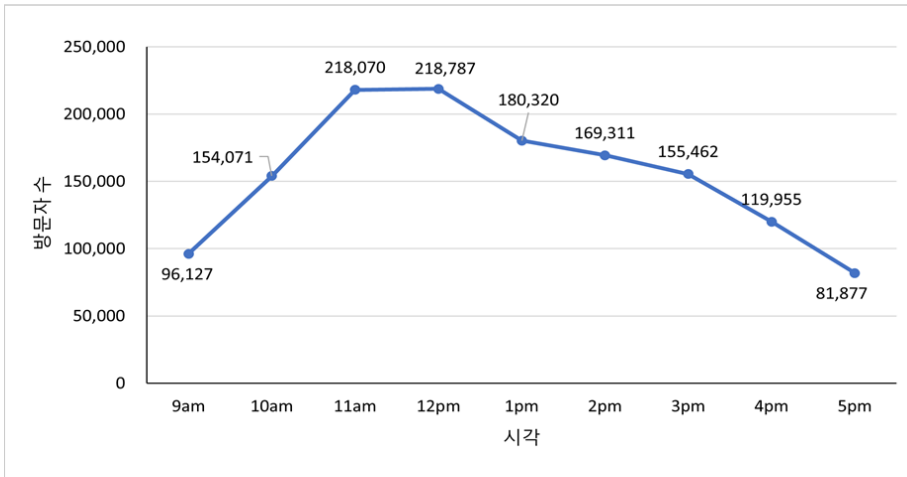


자료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부자료(각년도), 『2015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2018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2020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2021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 시간대는 11시~13시, 계절은 가을,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많이 방문
  - (시간대별 방문객 통계) 2021년 기준 시간대별 평균 방문객 수는 11시~13시 구간에 가장 많고,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
    - 오전 9시(96,127명)부터 점차 증가하여 정오에는 218,7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시 오후 1시부터 감소하면서 오후 5시(81,877명)에는 방문객이 가장 적음
    -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는 방문객이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며, 남한산성은 야간 방문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2-5] 시간대별 방문객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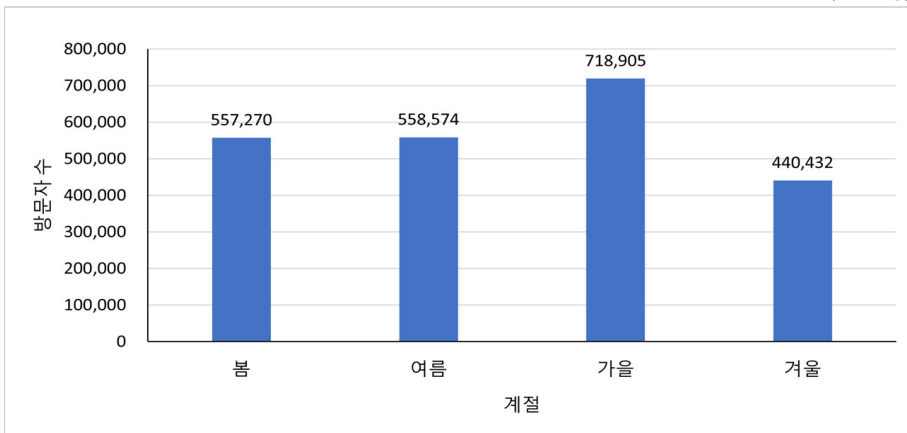


자료 : 남한산성 도립공원(2021). 『2021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 (계절별 방문객 통계) 2021년 기준 계절별 평균 방문객 수는 가을이 가장 많고, 겨울이 가장 적은 편
  - 가을이 718,905명으로 방문자 수가 가장 많고, 봄과 여름에는 약 55만 명으로 유사하며, 겨울은 440,432명으로 가장 적음

[그림 2-6] 계절별 방문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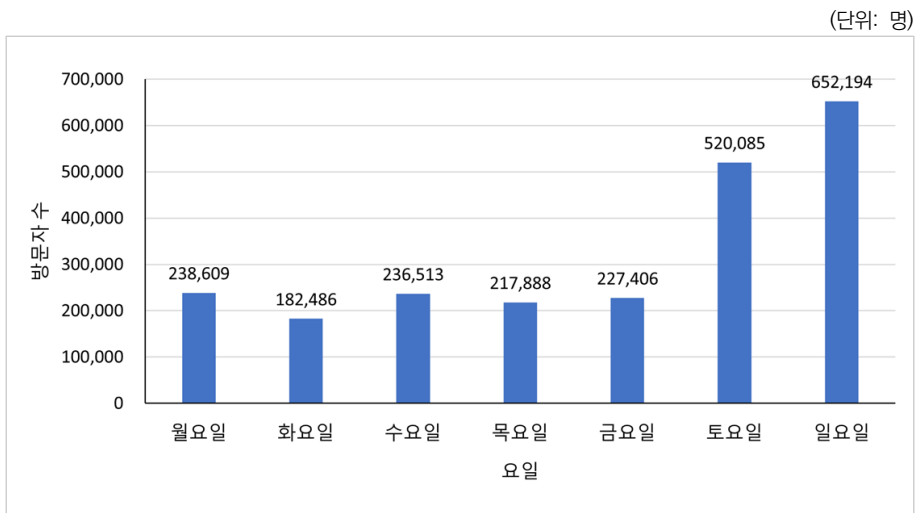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 남한산성 도립공원(2021). 『2021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 (요일별 방문객 수) 2021년 기준 요일별 평균 방문객 수는 주중에 비해 주말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
  - 일요일이 652,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토요일(520,085명) 순으로 많았음
  - 평일은 화요일이 182,48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다른 요일은 약 20만 명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주중 방문자 수는 1,102,902명, 주말 방문자 수는 1,172,279명으로 주말 방문객의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도 주말 기간에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주말 방문객 급증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방안과 교통혼잡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2-7] 요일별 방문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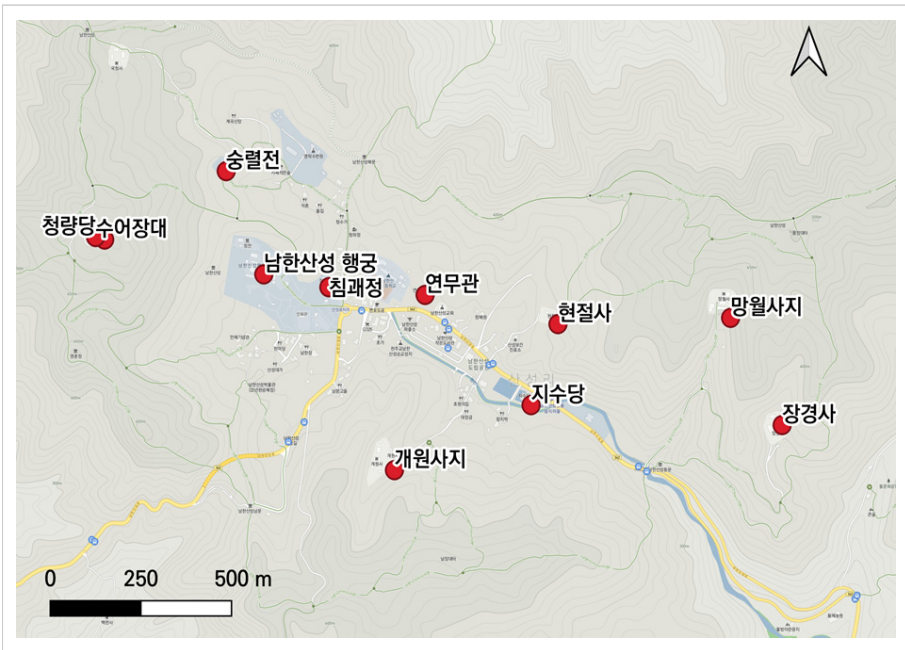
자료 : 남한산성 도립공원(2021). 『2021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 5) 문화재 현황

### □ 지정문화재<sup>3)</sup>

- 현재 남한산성 내 국가지정문화재는 4개소, 도지정문화재는 9개소로 집계
  - 국가지정문화재는 남한산성(사적 제57호),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수어장대(보물), 연무관(보물)
  - 경기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5개소, 기념물 2개소, 문화재자료 2개소

[그림 2-8] 남한산성 문화재 분포



주1 : 각 문화재의 위치데이터(위도, 경도)를 수집하여 표기.

주2 : 남한산성, 강희 21년명 장경사동종은 미 표기.

자료 :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 (2022.3.25. 검색).

3)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되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임.

[표 2-1]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문화재	지정	소재지	개요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조선시대 산성</li> <li>-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2년) 현재의 모습으로 갖추</li> <li>- 현존시설은 동·서·남문루와 장대·돈대·보 등의 방어시설, 비밀통로인 암문, 우물, 관아, 군사훈련 시설 등</li> </ul>
남한산성 행궁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935-6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무시설과 종묘사직을 포함</li> <li>-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li> <li>- 199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상궐, 좌전을 복원하였으며, 일부 건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량의 유물 출토</li> </ul>
수어장대	보물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24년(인조2년) 남한산성을 쌓을 때 만들어진 4개 장대 중 하나</li> <li>- 산성 내 최고봉인 일장산 정상에 위치하여 성 내부와 인근 주변 볼 수 있음</li> <li>- 현재의 건물은 1896년 유수 박기수가 다시 고쳤으며 4개 장대 중 유일하게 남은 건물</li> </ul>
연무관	유형문화재 제6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4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1624년(인조2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li> <li>- 처음에는 연무당으로 부르던 것을 숙종 때 연병관이라 쓴 현판을 하사하여 통칭 연병관 또는 연무관이라 부름</li> </ul>

자료 : 경기도(2017).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 기본계획』;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2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반현황』.

[표 2-2] 도지정문화재 현황

문화재	지정	소재지	개요
송렬전	유형문화재 제2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38년(인조16년)에 지은 사당으로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모시고 있음</li> <li>- 훗날 병자호란 때 죽은 남한산성 건설의 총책임자 이서의 위패를 함께 모심</li> <li>- 정명 3칸, 축면 2칸, 맞배지붕이 특징</li> </ul>

(표 계속)

문화재	지정	소재지	개요
청량당	유형문화재 제3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산성의 동남쪽 축성책임자 이회(李晦)와 그의 부인 그리고 벽암대사를 모신 사당</li> <li>- 본당의 전면에는 이회의 초상화가 있고, 좌, 우편에는 벽암대사와 이회 처첩의 초상화가 봉인</li> <li>- 6·25사변 때 소실되고 현재는 새로 만든 것</li> </ul>
현절사	유형문화재 제4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3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자호란 때 삼학사 윤집·홍익한·오달제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li> <li>- 1693년(숙종19년)에는 나라에서 현절사라 이름을 지어 현판을 내려졌으며, 1711년(숙종37년)에 현 장소로 옮겨짐</li> </ul>
침괘정	유형문화재 제5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5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립 시기는 미상이나 1751년(영조 27) 광주유수 이기진이 재건 후 침괘정이라 명명</li> <li>- 오른쪽에는 무기를 보관하던 무기고나 무기를 만들던 무기제작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li> </ul>
강희 21년명 장경사동종	유형문화재 제 282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경사에서 1682년에 종량 300근(180kg)을 들여 주성한 종종</li> <li>- 1899년 봉은사(서울)로 옮겨졌다가 100여 년이 지난 2013년 5월에 장경사로 다시 봉안</li> </ul>
망월사지	기념물 제111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산성 내에 있는 9개의 사찰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사찰로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지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소실되었으나 1990년부터 복원</li> <li>- 산지의 경사진 곳에 쌓은 축대와 현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의 석재, 건물의 초석이 남음</li> </ul>
개원사지	기념물 제119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198-1,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24년(인조2년) 파손된 성곽을 보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승병의 총 지휘소로 사용된 사찰</li> <li>- 1970년 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불타버리고 건물 1동만 남게 되었으며, 선화화상이 10여 년에 걸쳐 건물을 새로이 지어 현재 모습을 갖추</li> <li>- 현재 초석과 돌계단이 남아있음</li> </ul>
지수당	문화재자료 제14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1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72년(현종13년)에 이세화(李世華)가 지은 건물로 당시 고관들이 낚시를 즐기던 곳</li> <li>- 건물 앞뒤로는 세 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하나는 매몰되어 현재 두 개의 연못만 남아있음</li> </ul>
장경사	문화재자료 제15호	남한산성면 산성리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38년(인조 16년)에 세워졌으며, 산성 축조시 승군들이 훈련을 받으며 머무르던 9개의 사찰 중 지금까지 온전히 보전된 유일한 사찰</li> </ul>

자료 : 경기도(2017).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 기본계획』;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2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반현황』.



## □ 비지정문화재

- 남한산성 내 지정문화재 외에도 단·묘와 공해, 사찰, 금석문, 옛터, 우물 등 200여 점의 유구와 유적 분포
  - 공해 및 창고로 추정되는 관아시설로는 인화관지, 일장각지, 이야기, 종각지 등
  - 남한산성에 있던 누정은 기록에 의하면 약 18곳이 되지만 현재는 단 6곳만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터만 존재
  - 남한산성 내 사찰은 남한산성의 축성과 수성을 위한 승군 본영인 개원사를 포함하여 모두 9개가 있었지만, 그중 세 곳만이 남아있거나 복원되었고 나머지 사찰은 터만 남은 상태

[표 2-3] 비지정문화재 현황

구분	유적
단묘	사직단지, 성황당·여단, 기우제단
공해 및 창고	일장각지, 인화관지, 이야기, 포도청지, 군뢰청지, 종각지, 수청지, 영고지, 별창지, 구군기고지
정·각	무망루지, 구송정지, 관어정, 영일정지, 영춘정지, 옥천정지, 완대정지, 우희정지, 유차산루지, 이위정지, 송암정지
사찰	동림사지, 옥정사지, 국청사지, 천주사지, 영원사지
금석문	남웅성무인비, 병암 남성신수기비, 봉암신성병인비, 행궁 앞 석비군, 남문 앞 석비군1, 남문 앞 석비군2, 이세화선정비, 석세한 불망비, 국청사 불망비, 옥천정 암각문, 반석암 각문, 은암, 수어서대, 귀부, 금림조합비, 월성김씨효열비, 정씨정열비, 이대통령행차기념식수비, 서훈남묘비, 주필암
우물지	요자우물, 형제우물, 장군수 우물, 박달재 앞 우물, 개원사용왕당, 감로수, 대궐할머니 우물, 우묵골 우물, 남문약수, 봉어다리 우물터
옛터 및 고가	당지기 집터, 송수탑지, 대장간터, 도가터, 사형장, 도살장, 장터, 탁지부 측량소삼각점, 고마소, 과녁터, 매엽처, 매탄처, 감투바위, 대부송, 매바위, 물방아, 별바위, 왕바위, 취성암, 구명바위, 광주 산성리 흥전분가옥, 광주 산성리 안동순가옥, 광주 산성리 김원려가옥, 개심폭바위
민간신앙	남문 서낭당, 북문 서낭당, 서문 서낭당, 별봉 서낭당, 현절사 서낭당, 검복리 장승, 영월제터, 터주가리, 청량당 굿당, 별봉굿당, 큰골굿당
노거수	광주 산성리 향나무·소나무·은행나무·느티나무1~19

자료 : 경기도(2017).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 기본계획』.

## 6) 민속문화 현황

### □ 남한산성 전통음식으로 효종갱, 남한산성 소주 등이 전승

- 효종갱(曉鐘羹)은 새벽 효(曉), 쇠북 종(鐘), 국 갱(羹)자를 써서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란 의미로, 해장국의 일종
  - 숙취 해소에 탁월한 콩나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속대, 타우린이 풍부한 전복, 해삼, 항암작용이 뛰어난 송이와 표고버섯 등을 넣고 된장을 풀어 끓여내 만듦
- 새벽녘까지 밤새 끓이다가 통행금지 종료를 알리는 파루(罷漏)의 종이 울리면 남한산성에서 한양 사대문 안의 대갓집으로 배달되던 ‘최초의 배달음식’
- 2012년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sup>4)</sup>’은 ‘남한산성 효종갱’을 상표 특허 출원을 획득
  - 당시 사업단은 산성 내 상인들에게 남한산성 효종갱 복원·전파를 위한 인식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남한산성 내 전통 방식대로 효종갱을 만드는 식당이 운영 중
- 또한, 남한산성 소주는 남한산성을 축조한 조선 14대 선조(1567년~1608년) 때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
  - 남한산성 소주는 산성리에서 수확한 쌀, 누룩, 조청으로 빚은 전통주로, 일반 누룩이 아닌, 통밀가루와 조청을 섞고 익반죽하여 만들어냄
- ‘남한산성 소주 보유자 강석필’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

[그림 2-9] 효종갱 및 남한산성 소주



자료 : 광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gjcity.go.kr>”;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ggc.ggcf.kr>” (2022.02.11. 검색).

4)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업무는 2014년 12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이관되어 확대 개편됨.

## 2)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여건분석

### 1) 추진배경 및 목적

#### □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역사·문화 명소화 추진

- 남한산성은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이 5,000여 점에 이르고, 산성 내 조선 후기 부터 마을이 유지되고 있어 성곽도시 유적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보유
-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연간 300여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역사관광명소로 부상
- 남한산성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역사·문화명소로 육성 필요

#### □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박물관 건립 확약 이행사항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2014년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질의 서신에 대해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이행을 확약
- 2017년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 □ 남한산성 및 관련 유물에 대한 전시·교육·수장 등을 위한 시설 필요

- 남한산성 관련 역사자료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되었으나 이러한 유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부재
- 현재 남한산성 출토유물은 남한산성 내 보관할 곳이 부재한 관계로 국립중앙박물관, 토지주택박물관 등 발굴기관에서 보관 중
- 또한,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남한산성 및 관련 유물에 대한 교육·체험·연구 등이 가능한 문화시설 조성 필요
- 특히 남한산성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남한산성 전역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오픈 에어 뮤지엄’사업의 거점으로 활용

## 2) 추진개요

###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현황<sup>5)</sup>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00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670㎡, 건축연면적 2,963㎡(지하1층, 지상 2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예정)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문화재관리용건축물)
- 총사업비 : 240억원(국비 120억원, 도비 120억원)
- 주요시설 : 남한산성 홍보관(상설전시관), 유물전시관(기획전시관), 자료실, 유물야외전시관, 야외전시관, 보이는 수장고, 비공개 수장고 등

[표 2-4]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재원 구분	총 사업비	단년도 예산			계속비 예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40	30	0	10	40	40	120	0
국비	120	15	0	5	20	20	60	0
도비	120	15	0	5	20	20	60	0

자료 : 경기도(2022), 『2022 경기도 업무보고』.

[그림 2-10]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조감도 및 현장사진



자료 : 경기도(2022), 『2022 경기도 업무보고』.

5) 경기도는 당초 사업비 280억원으로 산성리 28,582㎡ 부지에 연면적 5,900㎡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 입지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지규모와 연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함.

##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추진경과

-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이후 2016년 11월 경기도는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국비 예산 편성이 확정
- 2017년 경기도는 박물관 건립 자문단 및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공립박물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협의
  - 2017년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
- 2018년 9월 경기도는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유산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을 발표
- 2019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설계 공모를 통해 2021년 12월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착공(2023년 준공 예정)

[표 2-5]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주요 추진경과

일시	주요 내용
'16.11.24.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16.12.05.	박물관 건립 예산 편성 알림(문화재청)
'17.05.29.	박물관 건립 공용건축물 협의 사전심사(경기도 광주시)
'17.06.12.	박물관 건립 자문단 위촉
'17.07.07.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 협의(소장유물 미확보로 심의불가)
'17.10.29.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완료(한국건축문화연구소)
'17.11.13.	남한산성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
'17.11.27.	남한산성 박물관 유물 수집 공고
'17.11.24.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안건 보고(세계유산관리위원회)
'17.12.04.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17.12.18.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17.12.22.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18.01.15.	박물관 유물 매매 협상
'18.01.18.	문화재 지표조사
'18.01.19.	공립박물관 설립 협의
'18.09.30.	세계유산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 발표
'19.12.18.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가칭) 건립 설계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1.12.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가칭) 착공

자료 : 경기도(2018). 『2018년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 불일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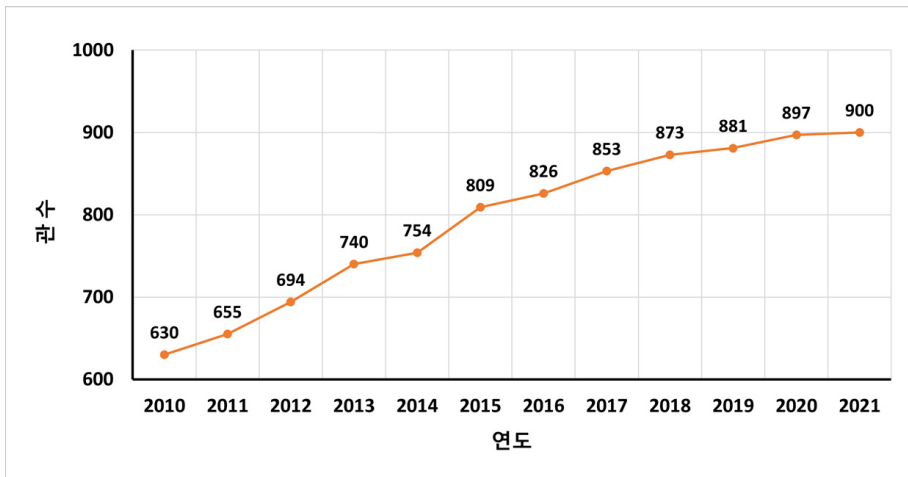
### 3) 국내 박물관 현황

#### □ 전국 등록박물관 현황

- 2021년 기준 국내 등록박물관(국·공립, 사립, 대학 포함) 수는 900개로 집계
  - 2010년에는 630개의 박물관이 등록되었으며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900개 박물관이 등록
  - 국내 등록박물관은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그림 2-11] 국내 등록박물관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등록박물관의 수가 가장 많고 세종, 울산, 광주 순으로 가장 적음
  - 국·공립박물관은 경기도가 54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경남(49개), 경북·전남(43개), 서울·충남(34개) 순으로 많음
  - 사립박물관은 서울이 69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63개로 두 번째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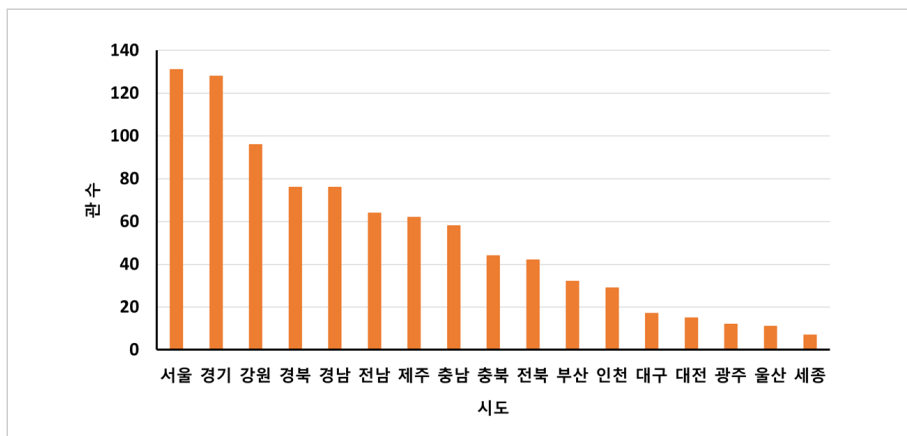
[표 2-6] 시도별 등록박물관 현황(2021년 기준)

지역	시설현황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서울	131	34	69	28
경기	128	54	63	11
강원	96	49	42	5
경북	76	43	22	11
경남	76	49	22	5
전남	64	43	18	3
제주	62	17	44	1
충남	58	34	19	5
충북	44	27	12	5
전북	42	29	9	4
부산	32	13	8	11
인천	29	16	12	1
대구	17	8	6	3
대전	15	4	4	7
광주	12	5	3	4
울산	11	9	1	1
세종	7	3	4	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그림 2-12] 시도별 등록박물관 현황(2021년 기준)

(단위 : 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4)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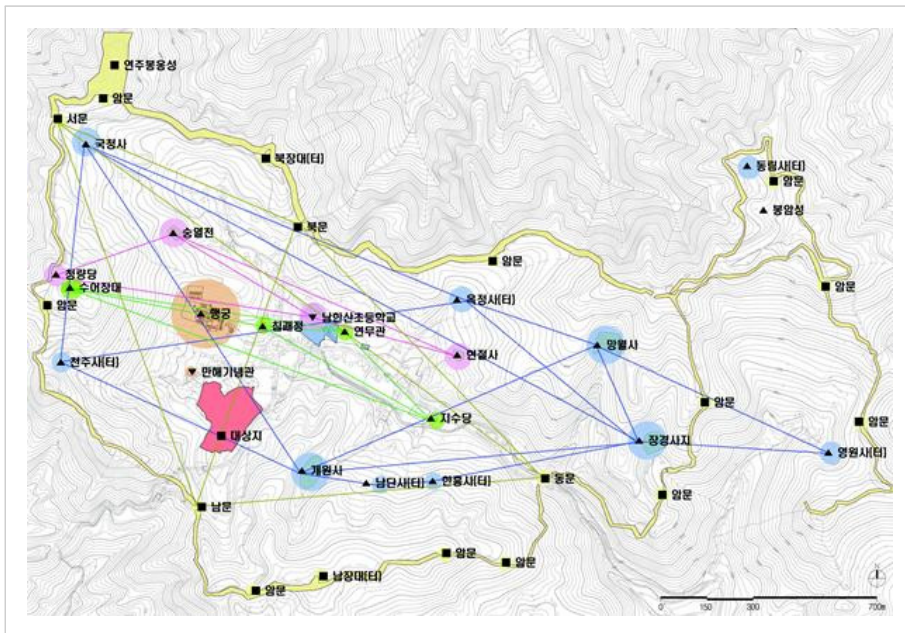
##### □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방향

- (실내공간)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의 공간
  - 남한산성의 자료나 유물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정보를 전시, 복제, 그래픽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의 이해를 증진
- (실외공간) 남한산성의 모든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체험의 공간
  - 방문객이 역사문화관 관람 후 남한산성 내 산재한 유산·유적의 현장으로 이동하여, 주변 환경과 더불어 체험하는 형태

##### □ 남한산성 오픈 에어 뮤지엄(Open air museum)

- 남한산성 내 유산·유적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시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
  - 산성 네트워크, 사찰 네트워크, 항공권역 및 유형문화재 네트워크, 사당 네트워크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내 산재한 유산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필요

[그림 2-14] 남한산성 오픈 에어 뮤지엄 개념도



자료 : 경기도(2018). 『2018년 상반기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 불일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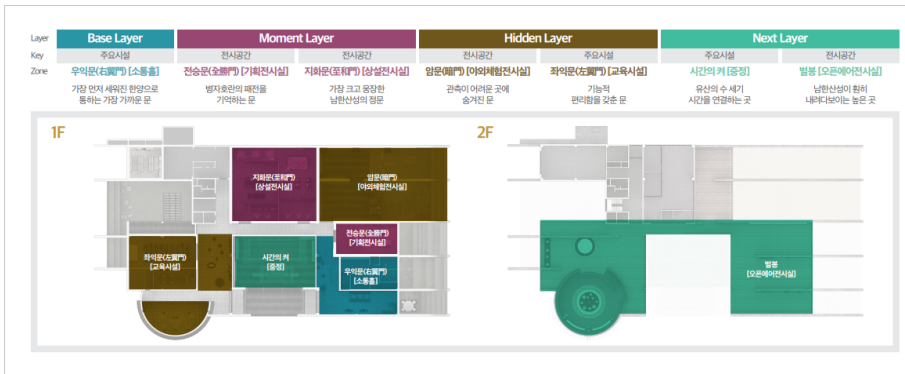
## □ 전시 방향

- (기본방향)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알릴 수 있도록 전시·교육·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
  - (콘텐츠) 남한산성이 지닌 군사경관요소, 통치경관요소, 민속경관요소의 유형·무형·기록유산을 중심으로 총체적 가치 발굴
  - (공간) 남한산성을 이루는 요소, 분위기 등의 가치를 재해석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심미성을 제공
  - (연출) 유형, 무형, 기록유산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현대적 방식으로 복원
  - (운영) 유산의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오늘날 정체성에 맞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배치 및 공간구성

- [그림 2-15]와 같이 남한산성 구조에 내재된 전통사상과 축적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근거하여 배치
- 배려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설 구축으로 문화유산 향유 확대
  - 노약자, 장애인 등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의 접근이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무장애 건축공간 구축, 수어 동영상 등 콘텐츠 보완, 실감형 체험공간 조성 등을 계획

[그림 2-15]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평면개념도



자료 : 경기도(2020).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제안설명서』.

## □ 야외전시 계획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야외전시물은 [그림 2-16]과 같이 남한산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활용하거나 역사적 스토리텔링 전개를 통해 공간으로 연출
  - 야외 가변형 멀티복합공간인 야외 기획전시 공간은 내부 기획전시실의 확장성을 내포한 공간으로서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관람객 대상 행사공간으로도 활용
  - 역사 야외전시관에는 수구와 암문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성곽을 구현

[그림 2-16]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야외전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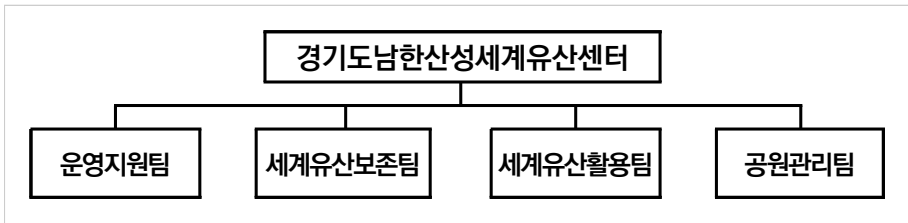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2020).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 5)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 □ 조직현황

- 남한산성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직접 운영
  -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센터 설치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운영지원팀, 세계유산보존팀, 세계유산 활용팀, 공원관리팀의 4팀으로 구성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4조에 하부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명시

[그림 2-17]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조직현황



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내부자료.

### □ 인력구성 현황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인력(정원)은 센터 소장 1인 포함 총 17명이며, 일반직 14명, 연구직 3명으로 구성

[표 2-8]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인력 현황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4급	5급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계	17(17)	1(1)	3(3)	10(10)	1(1)	2(2)
운영지원팀	7(7)	1(1)	1(1)	4(4)	-	1(1)
세계유산보존팀	3(3)	-	-	2(2)	1(1)	-
세계유산활용팀	4(4)	-	1(1)	2(2)	-	1(1)
공원관리팀	3(3)	-	1(1)	2(2)	-	-

주1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2 : 연구직은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를 지칭.

자료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2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반현황』.

- 정원 외 인력은 총 67명으로 공무원 33명, 기간제 23명, 임기제 2명, 청원경찰 3명, 시군파견 6명
  - 공무직은 주차장 운영인력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문화재 순찰(7명) 순
  - 행정권역 운영인력은 총 5명으로 대표소 2명, 기념품숍 2명, 방문자센터 1명
  - 기간제 인력은 문화재 긴급보수가 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2-9]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정원 외 인력 현황

담당업무	근무 인원		
	계	공무원	기간제
계	56명	33명	23명
주차장 운영	12명	12명	-
행정권역 운영	5명	5명	-
구내식당 조리	2명	-	2명
센터 청소	1명	-	1명
문화재 소방방재 관리	1명	1명	-
항공 유지관리	6명	3명	3명
문화재 긴급보수	5명	-	5명
문화재 순찰	10명	7명	3명
장애인 남한산성 탐방지원	1명	-	1명
공원 조경·시설	2명	2명	-

주1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2 : 임기제, 청원경찰, 시군파견은 제외

자료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2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반현황』.

- 해설인력은 광주시 소속 문화관광해설사(한국어) 20명,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속 외국어 해설사 9명이 활동
  -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이후 도슨트 등 해설인력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할 예정



## 6) 교통현황 및 문제점

### □ 교통시설 현황

#### ○ 도로시설

-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지방도 342호선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도립공원의 남쪽에는 수정로, 서쪽에 국도 3호선 및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국도 43호선, 중부고속도로가 위치

[그림 2-18] 남한산성 주변 가로망 분포



자료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에서 검색하여 연구자 작성.

[표 2-10] 남한산성 주변 가로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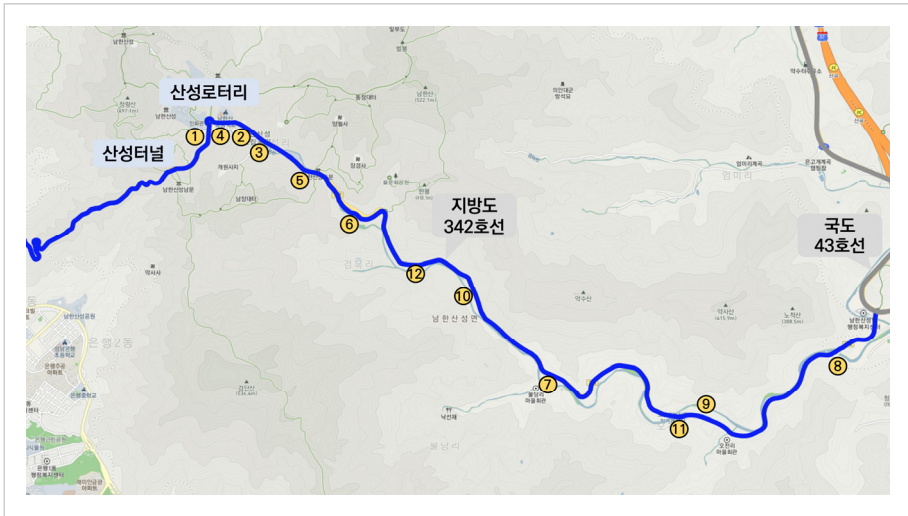
구분	가로명	차로수(왕복)	연장(km)
남측	수정로	6차로	3.1
서측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차로	127.5
	국도3호선	2~6차로	555.2
동측	중부고속도로	4~8차로	285.8
	국도43호선	2~6차로	241.6

자료 : 국토교통부(2021). 『2021년도 국토교통 통계연보』.

○ 주차시설

-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 주차장은 총 12개소이며, 성내 5개소, 성외 7개소가 운영
- 성내 주차장의 최대 주차대수는 총 471대, 성외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384대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유료주차장은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주차대수는 총 461대

[그림 2-19] 남한산성 도립공원 주차장 현황(2021년 기준)



자료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에서 검색하여 연구자 작성.

[표 2-11] 남한산성 내 주차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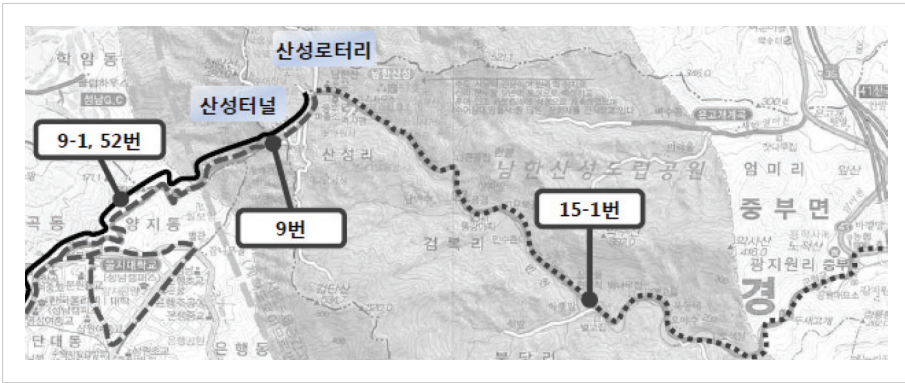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주차대수	요금체계	비고
계	12개소		58,066	855	-	-
1	남문	산성리 1041-1 일원	7,576	172	성내(유료)	장애인 5, 전기차 2
2	중앙	산성리 406 일원	12,457	179	성내(유료)	장애인 4, 전기차 4
3	센터	산성리 156 일원	1,414	55	성내(유료)	장애인 3, 전기차 2, 관용차전용 14
4	로터리	산성리 527 일원	2,851	55	성내(유료)	장애인 3
5	동문	산성리 44-5 일원	1,464	10	성내(무료)	장애인 1
6	하행선	검복리 24-1 일원	4,910	66	성외(무료)	장애인 2
7	불당리	불당리 26-7 일원	4,429	91	성외(무료)	버스 6, 장애인 2
8	광지원	광지원리 8 일원	7,249	41	성외(무료)	
9	오전리	오전리 308-7 일원	2,192	22	성외(무료)	장애인 3
10	검복리	검복리 118-3 일원	3,841	49	성외(무료)	장애인 2, 버스 10
11	농산물	오전리 336-1 일원	4,414	24	성외(무료)	오전리 농산물시장
12	검복리	검복리 41-1 일원	3,269	91	성외(무료)	장애인 3

자료 : 남한산성 내부자료.

○ 대중교통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운영하는 버스는 총 네 개의 노선이며, 9-1번 노선은 주말에만 운영하며 나머지 노선은 일요일과 그 외 요일의 배차 간격이 상이함
- 9, 9-1, 52번 노선은 성남방면, 15-1번 노선은 광주방면 버스 노선임

[그림 2-20]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중교통 운행현황



자료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에서 검색하여 연구자 작성.

[표 2-12]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중교통 운행현황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첫차 시간	막차 시간	배차간격	비고
9	사송동종점	중앙주차장	05:00	22:00	평일,토요일 10~20분/ 일요일 20~30분	성남방면
9-1	산성역.포레스티 아동문	남한산성(종점)	05:00	22:00	주말 7~10분	성남방면 /주말만 운행
15-1	경기광주역	남한산성(종점)	05:40	20:30	평일,토요일 30~60분/ 일요일 20~40분	광주방면
52	성남동대형주차장	남한산성(종점)	05:30	21:00	평일,토요일 90~100분/ 일요일 130~150분	성남방면

자료 : 류시균 외(2016);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www.gbis.go.kr" (2022.03.0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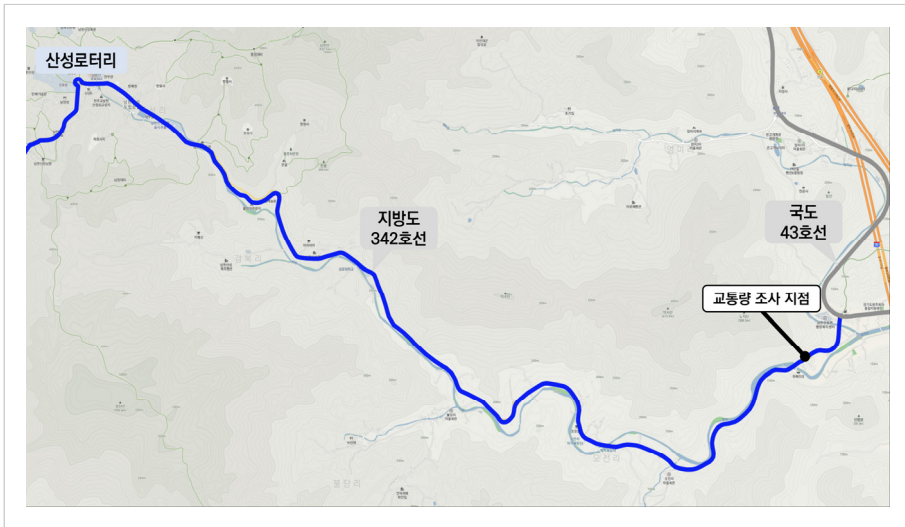


## □ 이용현황

### ○ 교통량 현황

- TMS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서 평균일교통량 정보를 제공
- 교통량 조사지점인 경기도 광주시 중부 광지원 인근부터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지점까지 왕복 4차로이지만 지방도 342호선의 그 외 구간은 왕복 2차로임

[그림 2-21] 교통량 조사지점



자료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에서 검색하여 연구자 작성.

[표 2-13] 교통량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내용
평균일교통량	<p style="text-align: center;"><b>교통량 조사지점 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점번호 : 0342-04</li> <li>•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부 광지원</li> <li>• 조사방법 : 수시</li> <li>• 차로수 : 왕복 4차로</li> <li>• 노선 : 지방도 342호선</li> </ul>

자료 : TMS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http://www.road.re.kr/main/main.asp" (2022.03.03. 검색).

- 산성로터리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진출입 시, 왕복 2차로 구간과 교통량 조사지점 모두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관측된 평균일교통량을 기반으로 현황을 분석

[표 2-14] 남한산성 교통량 추이

(단위 : 대/일/양방향)

년도	평균일교통량
2015	4,485
2016	5,596
2017	5,439
2018	5,769
2019	5,270
2020	7,216

자료 : TMS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http://www.road.re.kr/main/main.asp" (2022.03.03. 검색).

- 관측된 평균일교통량이 연평균 일 교통량과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장 평균일교통량이 높은 2020년에서 설계시간 교통량은 1,155대/시/양방향<sup>6)</sup>
- 이는 2차로 도로 기본조건에서의 도로용량인 3,200대/시/양방향과 1,700대/시/차로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방도 342호선의 서비스 수준은 매우 양호한 편

○ 주차시설 이용현황

- 4개의 유료주차장에 대해 2021년 분기별 주차대수를 조사
- 분기와 무관하게 남문주차장, 중앙주차장, 로터리주차장, 센터주차장 순으로 주차대수가 높음

[표 2-15] 유료주차장별 주차현황

(단위 : 대/일)

주차장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남문주차장	24,232	33,875	32,304	34,267	124,678
로터리주차장	7,693	10,826	9,986	10,688	39,193
중앙주차장	12,476	19,088	17,221	20,551	69,336
센터주차장	1,419	2,265	1,823	2,092	7,599

자료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내부자료.

6) 국토해양부(2013). 『도로용량편람』 참조.

○ 대중교통 이용현황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 운행 중인 4개 노선의 버스에 대해 시간대별 버스 이용객 수 및 운행횟수를 조사

[표 2-16] 대중교통 이용현황 분석 개요

조사항목	일자	조사내용
버스승하차 인원수 및 시간대별 버스운행 횟수	2021.05.08.	버스승하차 인원 조사 및 시간대별 버스운행횟수 조사시간 및 위치 • 조사시간 : 08:00~19:00 • 조사위치 : 남한산성(종점) 버스정류소 • 버스노선 : 9, 9-1, 52, 15-1

자료 :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https://gbms.gg.go.kr/ggbms.jsp" (2022.02.23. 검색).

- 시간대별 버스 운행횟수 조사 결과, 9-1번 버스노선이 시간당 평균 5.1대를 운행하여 배차간격이 가장 짧고, 52번 버스노선이 평균 0.4대를 운행하여 배차간격이 135분으로 가장 긴 편

[표 2-17] 시간대별 노선별 버스 운행횟수

구분	운행횟수			
	9번	9-1번	52번	15-1번
08~09시	2	6	1	3
09~10시	2	4	0	2
10~11시	3	6	1	1
11~12시	2	6	0	1
12~13시	3	6	0	1
13~14시	3	6	0	2
14~15시	2	6	1	1
15~16시	3	4	0	1
16~17시	3	5	1	1
17~18시	2	4	0	1
18~19시	3	3	0	1
평균 운행횟수	2.5	5.1	0.4	1.4
평균 배차간격	24분	12분	135분	44분

자료 :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https://gbms.gg.go.kr/ggbms.jsp" (2022.02.23. 검색).

- 남한산성(종점) 정류소 승하차 인원 조사 결과, 승차인원의 경우 16~17시 시간대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차인원의 경우 10~11시 시간대에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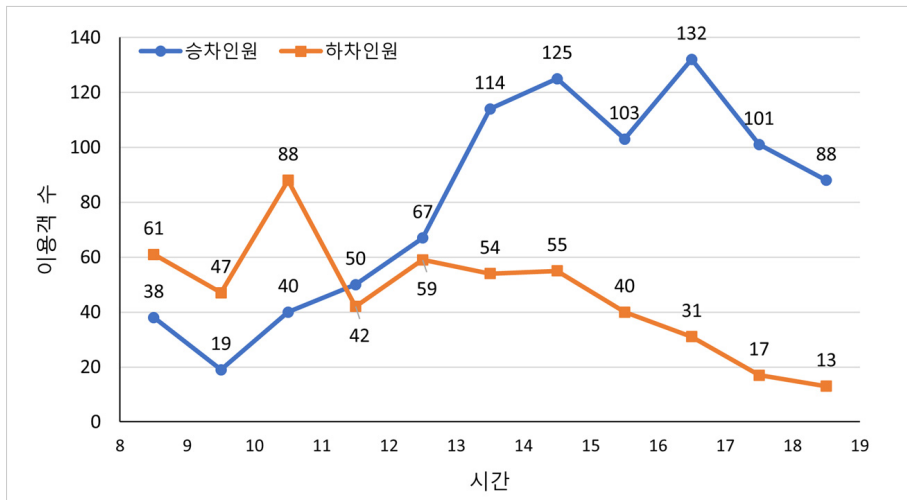
[표 2-18] 남한산성 종점정류소 승하차인수

(단위 : 명/시)

구분	9번		9-1번		52번		성남방향		15-1번		합계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08~09시	7	23	14	21	1	7	22	51	16	10	38	61
09~10시	11	22	4	17	0	0	15	39	4	8	19	47
10~11시	20	35	16	31	0	11	36	77	4	11	40	88
11~12시	20	14	21	19	0	0	41	33	9	9	50	42
12~13시	36	33	22	20	0	0	58	53	9	6	67	59
13~14시	57	30	43	14	0	0	100	44	14	10	114	54
14~15시	51	35	66	16	2	3	119	54	6	1	125	55
15~16시	56	36	41	4	0	0	97	40	6	0	103	40
16~17시	66	12	60	7	0	2	126	21	6	10	132	31
17~18시	51	13	47	2	0	0	98	15	3	2	101	17
18~19시	51	8	32	1	0	0	83	9	5	4	88	13

자료 :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https://gbms.gg.go.kr/ggbms.jsp>”.

[그림 2-22] 종점정류소 시간대별 승하차 이용객수



자료 :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https://gbms.gg.go.kr/ggbms.jsp>”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 남문 주차장으로의 주차 수요 집중, 부실한 주차안내 체계, 남문 주차장 진입 대기 차량에 의한 소통 장애가 교통혼잡의 주된 원인
  -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지방도 342호선에서 주말·성수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은 교통량 대비 도로용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남한산성을 동서로 관통하는 지방도 342호선은 국도 43호선과 군월교 간 약 5백미터 정도의 구간을 제외하고는 양방향 2차로로 개설
    - 지방도 342호선 산성리 방면 유입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할 수 없고 유입부(지방도 342호선과 수정로 간 교차로, 지방도 342호선 상의 군월교)와 산성리 사이에도 별도의 교통유발시설이 없어 지방도 342호선 교통량은 항상 용량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
    - 즉, 지방도 342호선 산성리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의 원인은 도로용량의 부족이 아닌 부적절한 교통 운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남문 주차장으로의 좌회전 진입 대기 차량에 의해 형성된 대기행렬이 남한산성 내 교통혼잡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
    - 남문주차장은 지방도 342호선에 접해 있고 산성 내 타 공영주차장에 비해 시인성도 양호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음
    - 그로 인해 산성 내 타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만차 발생 빈도가 높고 만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지방도 342호선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sup>7)</sup>
    - 지방도 342호선 통과 교통량이 용량에 비해 적음에도 남문주차장으로 좌회전 진입하려는 대기 차량이 대기행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도로 교통 정체가 발생
  - 노후화된 주차안내 시스템,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주차안내 체계로 인해 주차시설의 이용 효율성이 낮고 교통혼잡을 유발
    - 남한산성 내 지방도 342호선 상에는 주차안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비어 있는 주차 공간 정보’는 시스템 고장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
    - 또한, 가변정보판 안내표지의 시인성도 낮아 유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남한산성 내 도로 교통혼잡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
    - 성내 일부 주차장에서 타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체계적이지 않고 시인성이 불량하며, 특히 남문주차장에는 타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미설치

7) 류시균 외(2016)에서는 연구진의 직접 관측, 본 연구에서는 현장 공무원 대상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됨.

[그림 2-23] 시인성이 불량한 남한산성 내 주차안내 시스템



[그림 2-24] 안내정보의 연계성이 부족한 주차안내 표지판



자료 : 연구자 촬영.

- 남한산성까지의 과도한 보행거리와 산성리 방면 시내버스의 낮은 운행 빈도로 인해 남한산성 외부 주차장은 이용률이 저조한 편
- 지방도 342호선으로 따라 광주시 방면으로 다수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과도한 보행거리, 안전한 보행 공간 미확보, 과도한 오르막 경사 등이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남한산성에서 광주시 방면 지방도 342호선을 따라 하행선 주차장(66면), 검복리 주차장(100면) 등 다수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

- 그러나 남한산성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산성로터리에서 하행선주차장까지는 1.5km, 검복리주차장까지는 2km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를 통한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음
- 특히 남한산성이 산 정상부에 위치한 반면 성외 주차장은 산 중턱에 위치해 가파른 경사를 극복해야 하고, 보행자를 위한 보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을 권장할 수 없는 여건
- 남한산성 외부 주차장 이용 시 연계 교통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시내버스는 노선 수가 1개에 불과하고 배차 간격도 과다해 연계 수단으로는 부적절함
- 광주시와 산성리를 연결하는 시내버스(15-1번 노선)는 시간당 1대 정도의 빈도로 운행하고 있어 성외 주차장 이용자의 남한산성 접근 교통수단으로는 적절치 않음

[그림 2-25] 보행환경 불량 성외주차장(지방도342호선) 및 남한산성 연결 도로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2-26] 이용률이 저조한 검복리 주차장(左) 및 하행선 주차장(右)



자료 : 연구자 촬영.

### 3) 방문객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설계

- 남한산성 이용실태 및 역사문화관 건립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3월 15일~30일까지 남한산성 방문객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200부를 배부하여 이 중 193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5부를 제외하고 총 188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확정
  - 설문조사 개요는 [표 2-19]와 같음

[표 2-19]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 남한산성 이용실태 및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 남한산성 방문객 중 19세 이상 성인
유효표본	• 188개
조사장소	• 남한산성 일대
조사기간	• 2022년 3월 15일~30일

#### 2) 설문지 구성

- 설문지는 ① 남한산성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 ②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인식, ③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 남한산성 인식 및 이용실태 : 방문횟수, 동반자, 교통수단, 방문목적, 정보원천, 남한산성 역사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지 여부, 개선방안 등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인식 : 건립추진 인지 여부, 방문의향, 역사문화관 기능 중요도, 건립에 대한 영향, 셔틀버스 이용의향 등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현 거주지



### 3)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대, 학력, 가구소득, 현 거주지 등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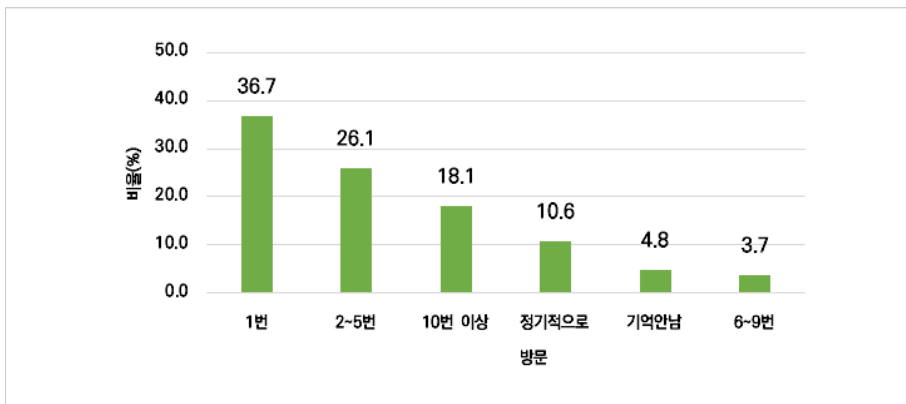
[표 2-20]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자	84	44.7
	여자	104	55.3
연령대	20대	14	7.4
	30대	28	14.9
	40대	23	12.2
	50대	69	36.7
	60대	45	23.9
	70대 이상	9	4.8
학력	고졸미만	9	4.8
	고졸	32	17.0
	전문대졸	19	10.1
	대졸	109	58.0
	대학원졸	18	9.6
가구형태	1인가구	23	12.2
	부부	42	22.3
	부모+자녀	111	59.0
	조부모+부모+자녀	7	3.7
	기타	5	2.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	10.1
	200만원~400만원 미만	61	32.4
	400만원~600만원 미만	54	28.7
	600만원~800만원 미만	29	15.4
	800만원~1,000만원 미만	15	8.0
	1,000만원 이상	10	5.3
현 거주지	서울	32	17.0
	경기도(광주·성남·하남)	84	44.7
	경기도(광주·성남·하남 외 지역)	57	30.3
	인천	7	3.7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8	4.3

####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방문횟수) 최근 3년간 남한산성을 5회 이하로 방문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
  - 남한산성을 ‘처음’ 방문한 응답자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2~5번 (26.1%)’ 순으로 높음
  - 최근 3년간 ‘10회 이상’ 방문한 응답자는 전체 중 18.1%이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응답자도 전체 중 10.6%를 차지
  - 즉 비정기적 방문객 절반 이상이지만, 평소 남한산성을 자주 찾는 방문객들도 상당수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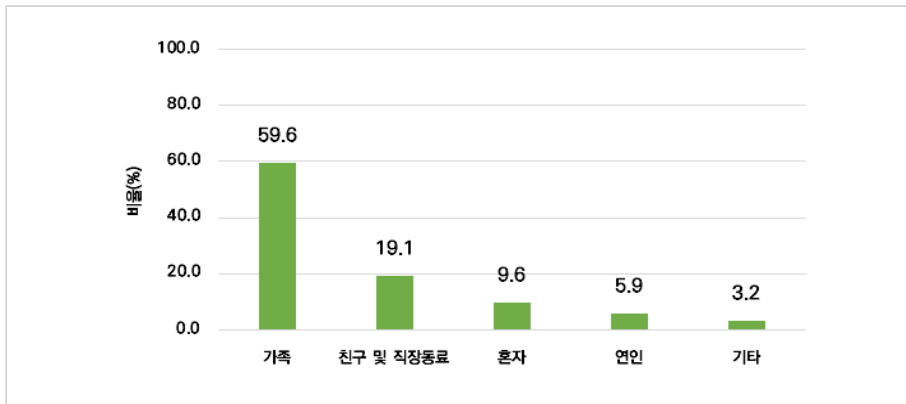
[그림 2-27] 최근 3년간 남한산성 방문횟수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동반자) 남한산성을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
  - 남한산성을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중 5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및 직장동료(19.1%)’, ‘혼자(9.6%)’ 순으로 높음
  - 교차분석(연령\*동반자) 결과, 40대 응답자가 가족과 함께 방문한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음
  - 따라서 남한산성은 중년층 부모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 단위가 많은 것으로 추정

[그림 2-28] 동반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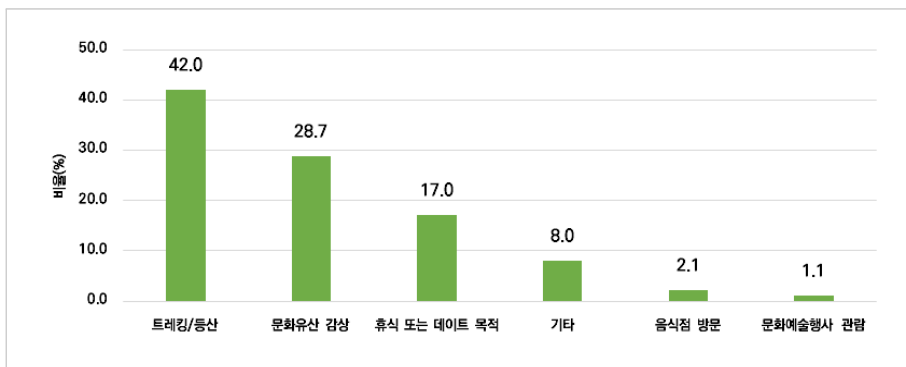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방문목적) 주로 트레킹/등산, 문화유산 감상을 위해 남한산성을 방문

- 남한산성 방문목적을 ‘트레킹/등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중 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문화유산 감상(19.1%)’ 순으로 높음
  - 즉 문화유산 감상에 비해 걷기여행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탐방객 유치 확대가 필요함
- 휴식이나 데이트, 음식점 방문 등 기타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전체 응답자 중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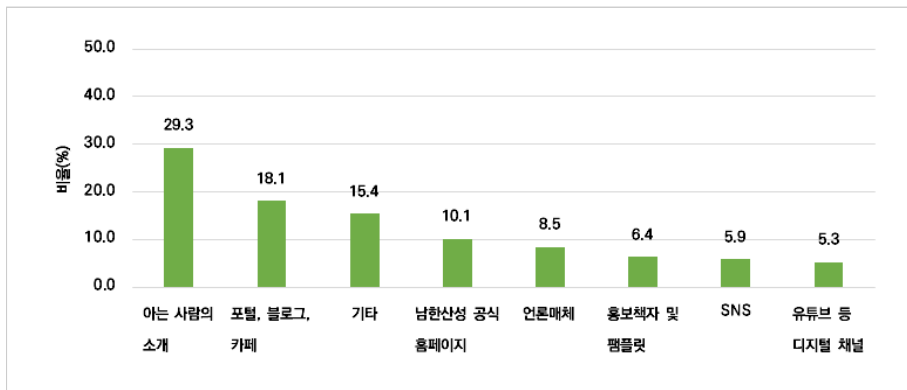
[그림 2-29] 방문목적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정보수집경로) 남한산성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인 소개를 통해 수집
  - 남한산성 정보수집경로에 대해 ‘아는 사람의 소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중 29.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포털, 블로그, 카페(18.1%)’ 순으로 높음
    - 반면, ‘남한산성 공식 홈페이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에 그침
    - ‘SNS(5.9%)’,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5.3%)’ 등도 다소 낮은 수준임
  - 따라서 SNS,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에 남한산성 관련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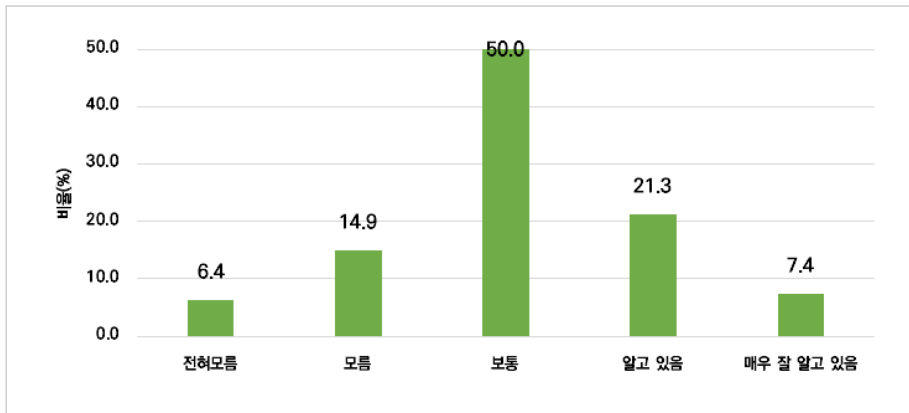
[그림 2-30] 정보수집경로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남한산성 관련 지식수준)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
  - 남한산성 역사 및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중 28.7%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응답(알고 있음+잘 알고 있음)
    - 다만, 남한산성 역사 및 문화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21.3%로 나타남 (전혀 모름+모름)
  - 따라서 남한산성 역사 및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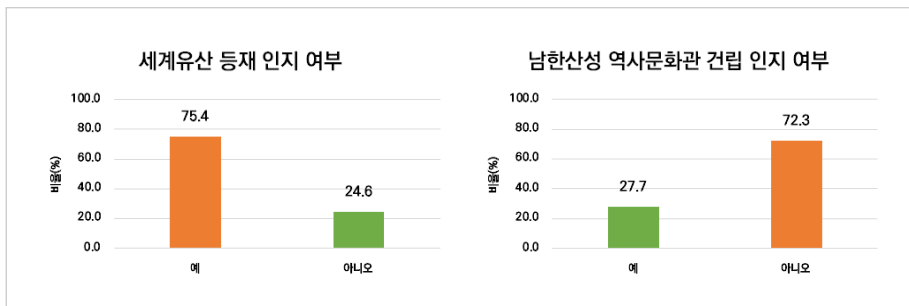
[그림 2-31] 남한산성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수준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세계유산 등재 및 역사문화관 건립)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으나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편
  -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중 75.4%가 알고 있다고 응답
  - 하지만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체 중 72.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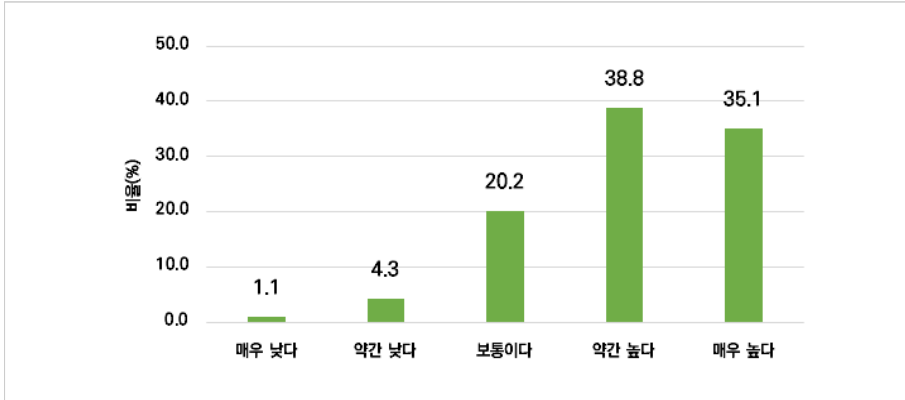
[그림 2-32]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역사문화관 건립 인지 여부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역사문화관 방문의향)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시 전체 중 73.9%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약간 높다+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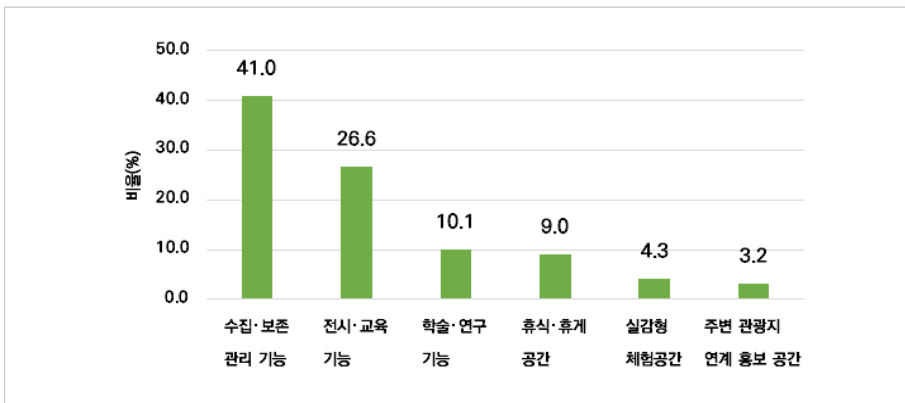
[그림 2-33] 역사문화관 건립 시 방문의향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역사문화관 기능)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수집·보존관리 기능이 가장 중요
  - 응답자들은 수집·보존관리 기능(41%)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전시·교육 기능(26.6%), 학술연구 기능(10.1%)이 중요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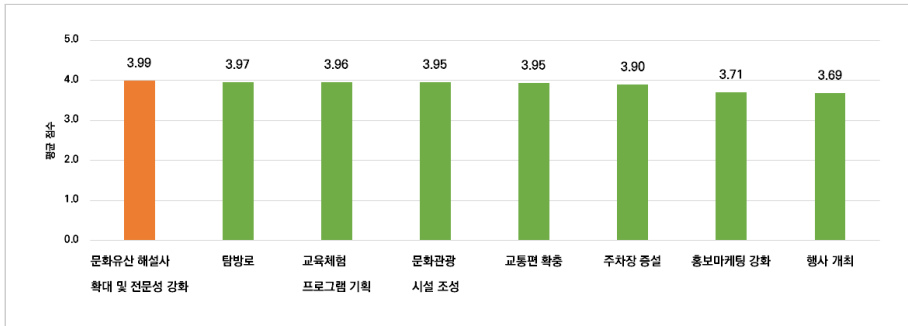
[그림 2-34] 역사문화관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기준)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개선의견) 방문객들은 문화유산 해설사 확대 등 남한산성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
  - 향후 남한산성 개선의견에 대해 ‘문화유산 해설사 확대 및 전문성 강화’의 평균 점수가 3.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탐방로(3.97)’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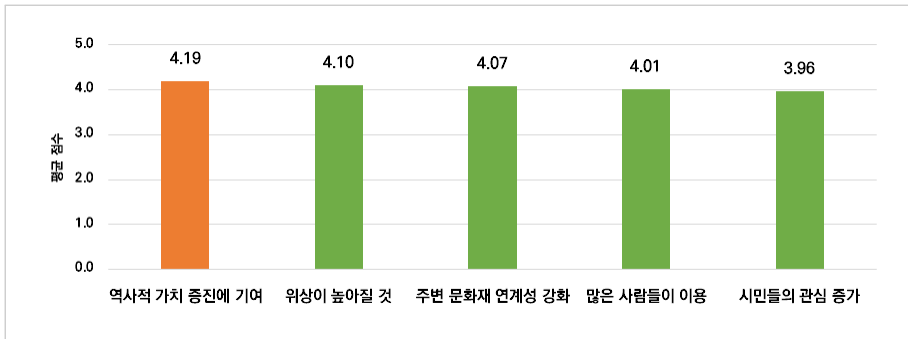
[그림 2-35] 남한산성에 대한 향후 개선의견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역사문화관 건립 영향) 방문객들은 역사문화관 건립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
  - 시민들의 관심 증대로 방문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

[그림 2-36]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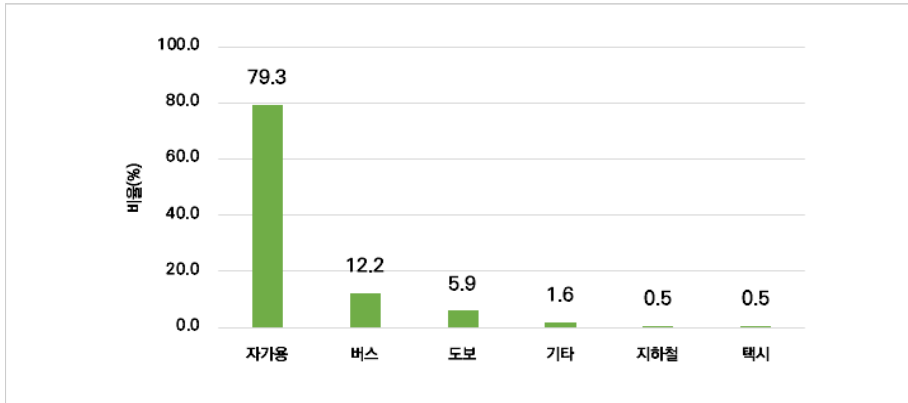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교통수단) 대중교통에 비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더 많은 편

- 남한산성 방문 시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중 79.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버스(12.2%)'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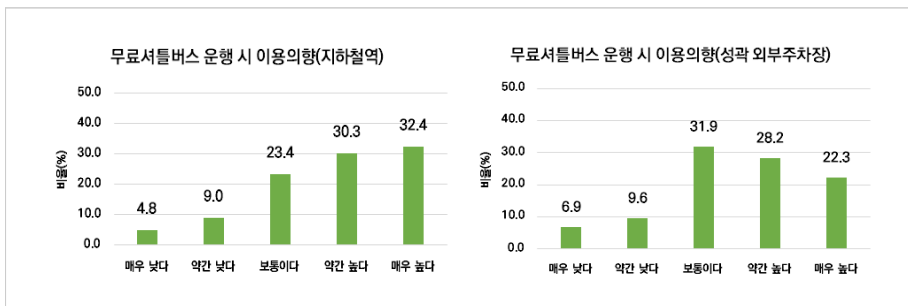
[그림 2-37] 주요 교통수단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지하철역에서 무료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의향에 대해 62.7%가 높은 편(매우 높다+약간 높다)이라고 응답
  - 성곽 외부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무료셔틀버스는 50.5%가 이용의향이 높다고 응답

[그림 2-38] 역사문화관 무료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의향



자료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 03

## 사례분석

1. 목적 및 방향
2. 성곽유산의 지역연계 활용 사례
3. 유적박물관과 주변지역의 연계적 활용 사례
4.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콘텐츠 사례
5. 소결



## 제3장 사례분석

### 1 목적 및 방향

- 세계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
- 남한산성은 2014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sup>8)</sup>’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
  -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조건, 즉, 등재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그리고 보존 및 관리체계를 모두 갖추었음을 의미

[그림 3-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충족 조건



자료 : 문화재청(2018). 『세계유산등재신청안내서』.

8)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개괄적인 개념과 이를 평가하는 등재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등재기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탁월하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ii), (iv)를 충족

- 기준(ii)<sup>9)</sup> : 남한산성의 산성 체계는 17세기에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
  - 남한산성은 중국과 한국의 성제를 재검토했던 결과이자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
  -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성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으며, 축성된 이후에도 한국의 산성 축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기준(iv)<sup>10)</sup>: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 17세기 조선시대에 비상시 임시 수도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건설된 남한산성은 이전부터 존경받아온 전통인 승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산성의 방어 역시 승군이 담당
  - 남한산성이 갖는 특수성은 조선시대 방어 전략인 산성 거주론이 실천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과 호국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승영사찰을 중심으로 승려들이 축성과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
  - 즉, 세계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의 가치는 불교의 호국정신과 함께 조선의 자주성이 발현된 상징적 증거

## □ 남한산성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유<sup>11)</sup>

- 남한산성의 진정성은 산성을 보수 및 개축할 때에는 산성의 형태·구조·자재 등에 있어 특별히 정밀한 과학적 지침을 따랐으며, 이러한 개축 과정은 역사적으로 전해져오는 남한산성의 건축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함
- 남한산성의 완전성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적절하게 보존되면서 모두 신청 유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있음
  - 즉, 성벽과 행궁, 방어시설, 읍치시설, 승영사찰과 초기의 도시 형태 등이 신청 핵심 유산지역에 포함되어 남한산성 유산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9)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함.

10)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측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임.

11) 문화유산은 가치평가기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하고, 법적,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음.

□ 남한산성의 보존 및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음

- 남한산성 성곽 및 기념물을 포괄하는 전체 권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지방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보호됨
-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는 유산 및 완충지역의 보호·보존·관광 관리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시민 자원봉사 단체가 유산의 관리 및 증진에 참여
  - 이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다음의 유산 속성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함

[표 3-1] 남한산성의 유산 속성

구분	주요 내용
위치	산지
환경	산등성이, 강
세계유산 등재	2014년
등재기준	<p><b>기준(i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산성의 산성 체계는 17세기에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li> <li>- 남한산성은 중국과 한국의 성제를 재검토한 결과이자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li> <li>-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성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으며 축성된 이후에는 한국의 산성 건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li> </ul> <p><b>기준(iv)</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li> <li>- 17세기 조선시대에 비상시 임시 수도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건설된 남한산성은 이전부터 존경받아온 전통인 승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산성의 방어 역시 승군이 담당</li> </ul>
임시 수도	조선 왕조(15세기~19세기)
임시 수도 기능	전시 임시 수도, 평시 행정 본부
건축 양식의 전파	조선, 일본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명·청 시대
방어 기재	일상생활 속
건축기간	16~17세기
지형적 우세	고로봉(栲栳峰)
지역 패권이 걸린 역사적 전투	동아시아의 만주족 침입 (명·청 전환기)
정신적 상징 및 군사적 안보	20세기까지 조선 왕조

(표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다양한 종교의 융화	불교, 유교, 기독교 및 민간신앙
식민지 시대	행정 기능 이전 및 군사적 시설 철거
파손 및 폐쇄	조선 식민지 시절 의승군의 봉기 이후 1907년 장경사 폐쇄
인적·물질적 손실	한국 전쟁(1950~1953), 광주군청 이전(1917)
관광지	1970년 남한산성 도립공원 지정
변화	- 방문객과 음식점 등 편의시설의 증가 - 이와 더불어 1980년 경 부터 관련 학술 연구 증가
주요 요소	군사, 행정 및 민속
법	문화유산 보호법으로 보호
재정적 지원	국가·지방 단체 및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본 연구에서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 첫째, 성곽유산의 지역연계 활용 사례
  - 둘째, 유적박물관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 사례
  - 셋째,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사례

## 2) 성곽유산의 지역연계 활용 사례

### 1) 수원화성

#### □ 유산 개요

-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성곽유산으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
- 정조가 자신의 부친인 장헌세자의 묘를 옮기면서 읍치소를 이전하고,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방어목적으로 조성
- 수원화성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신축된 성곽이라는 점, 거주지로서의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하여 하나의 성곽도시로 만들었다는 점, 전통적인 축성기법에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

## □ 주변 경관요소 및 지역주민 연계

-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1999년부터 원형복원과 보존을 목표로 하는 정비복원 사업을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계획이 ‘문화재’와 ‘도시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행궁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이에 행궁동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생활환경 불량, 도시 슬럼화 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이주 의향을 보이기도 함(엄서호, 2011)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마을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 운동을 진행
  - 이는 주민 스스로 문화, 건축, 환경이 모두 어우러진 마을을 만들며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가꾸어 나가는 시민공동체 운동임(신중진·정지혜, 2013)
  - 또한 생태교통 커뮤니티, 마을만들기 행궁동협의회, 아름다운 행궁길 등 ‘행궁동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간 네트워크가 형성
  - 이러한 행궁동 주민들 간의 사회연결망이 세계유산과 관련된 사업정보의 허브 역할 가능
- 이와 더불어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위한 공간정비가 추진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옛길 복원, 교통체계 정비 및 확충, 녹지공간 정비 등 사업 추진
  - 대표적으로 화성행궁 인근의 미관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축제의 장으로 활용될 행궁 앞 광장 조성, 야간경관 정비 등이 이루어졌고,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도시 주민으로서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참여한 ‘한데우물길’ 축제 등 행사도 개최됨
  -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재래시장과 연계하기도 하는데, 전통시장과의 연계 또한 이곳의 관광 다양성 중 하나임
- 이렇듯 수원화성 내부의 행궁동에서는 최근 지역재생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유산 보존전략에 추가된 지역사회(Community)의 참여라는 특성을 나타냄
- 방문객들의 체류형 관광을 위한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지역 참여 및 협의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2] 수원 행궁동의 정비된 간판 및 벽화골목



자료 : 수원관광 홈페이지. “www.suwon.go.kr/web/visitsuwon/index.do” (2022.03.31. 검색).

[그림 3-3] 정조대왕능행차



자료 : 수원관광 홈페이지. “www.suwon.go.kr/web/visitsuwon/index.do” (2022.03.31. 검색).

[그림 3-4] 수원화성문화제



자료 : 수원관광 홈페이지. “www.suwon.go.kr/web/visitsuwon/index.do” (2022.03.31. 검색).



## 2) 행주산성

### □ 유산 개요

- 경기도 고양시 덕양산의 능선에 쌓은 테피식 산성<sup>12)</sup>, 흙을 이용한 토축산성
- 덕양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과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이중구조로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형식

### □ 주변 경관요소 및 지역주민 연계

- 한강을 끼고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맞이 개방 및 행사 진행
- 행주대첩의 승리를 이끈 충장공 권율 도원수를 비롯한 무명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제천행사인 ‘행주대첩제’를 개최

[그림 3-5] 행주대첩제 및 제천의례



자료 : 행주산성 홈페이지. “[www.goyang.go.kr/haengju/index.do](http://www.goyang.go.kr/haengju/index.do)” (2022.03.31. 검색).

- 행주산성 전통문화역사체험장 및 궁술교육원 조성, 행주주말장터 운영
- 고양시는 야간 문화행사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개최
  - 행주산성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토대로 야간 콘텐츠를 기획하여 방문객들에게 치유를 제공하는 야간행사
  - 2021년 「경기도 역사문화생태평화 관광융합콘텐츠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

12) 산의 정상부 가까이 성벽이 축조된 성곽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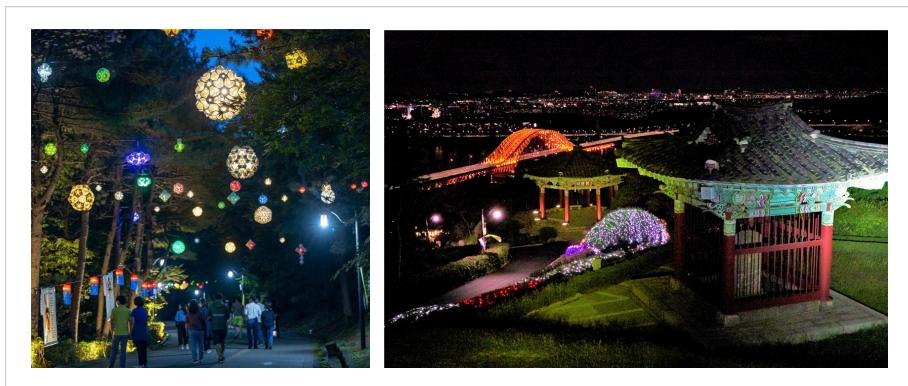
- 여성 의병대장 밥 할머니, 한구슬전 등 11개의 설화길을 조성하고, QR코드로 해설
- LED조명 설치, 산성음악회 개최, 행주산성 증강현실(AR) 게임 도입
- 2022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개최된 행사는 약 1만 7천여 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194% 증가한 수치를 기록

[그림 3-6] 고양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포스터



자료 : 행주산성 홈페이지. "www.goyang.go.kr/haengju/index.do" (2022.03.31. 검색).

[그림 3-7] 고양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야간조명



자료 : 행주산성 홈페이지. "www.goyang.go.kr/haengju/index.do" (2022.03.31. 검색).

### 3) 공주 공산성

#### □ 유산 개요

-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백제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웅진 백제 시대의 왕성으로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
- 금강이 흐르는 해발 110m 능선과 계곡을 따라 흙으로 쌓은 포곡식 산성
-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공산성 앞에서 ‘금강신관공원’까지 부교로 이동 가능

#### □ 주변 경관요소 및 지역주민 연계

- 백제문화제에서 공산성을 배경으로 공연, 포토존 조성
  -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웅진 판타지아 “공산성 달 밝은 밤”을 주제로 공연
  - 금강교, 공산성, 미르섬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백제별빛정원 조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 성안마을에서 ‘백제고을 고마촌’ 행사
  - 지역의 명장, 명인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 백제와 교류했던 주변국들의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
  - 토기, 유리 등 백제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존 운영 및 이벤트 개최

[그림 3-8] 백제문화제 웅진판타지아 공연 및 백제고을 고마촌 행사



자료 :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www.baekje.org/” (2022.03.31. 검색).

#### 4) 일본 히메지 성

##### □ 유산 개요

-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히메지(姫路城) 성은 17세기 초 일본 성곽 건축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 막부시대(幕府時代) 초기에 만들어진 고도의 방어 체계와 정교한 보호 장치를 갖춘 총 83개의 건물을 포함
- 1609년 도쿠가와와 이에야스가 대개축을 시작하여 1609년에 완성
  - 일본의 목조 성곽의 집대성으로, 그 중요한 특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음
- 내호(内濠)와 높은 돌담에 둘러싸인 내부 구역은 성채 주요부와 성주의 거관이 조영되어 있고, 내호와 외호(外濠) 사이의 외부 구역은 무사들의 집이 있었음
- 성 외부지역은 일반 민중의 거주지와 상업지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위로 참호가 둘러싸고 있음
  - 현재 내부 구역의 성곽은 상태가 온전한 상태이며, 외부 구역과 함께 기본 정비구상 하에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
- 히메지 성은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점을 잘 조화시킨 목조 건축물
  - 회백칠 토벽으로 통일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과 여러 겹의 지붕 사이의 섬세한 관계가 돋보이는 성곽

[그림 3-9] 히메지성 전경



자료 : 히메지 성 홈페이지. “[www.city.himeji.lg.jp/castle/](http://www.city.himeji.lg.jp/castle/)” (2022.03.31. 검색).

[표 3-2] 남한산성과 일본 히메지 성의 비교분석

구분	남한산성	일본 히메지 성
입지	고위 평탄면에 위치한 산성	히메야마 산정상에 천수각을 짓고 석벽을 두른 평산성
축성원칙	포곡식 산성으로 지형적 방어여건을 고려해 성벽을 축조	에도시대 영주의 거주성으로 방어 목적
축성시기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쌓은 주장성을 기초로 조선 인조 4년(1626) 대대적인 개축	1346년 소규모성에서 1580년 개축, 1609 완성, 이후 지속적 개수
사상배경	주례고공기의 기본 원칙을 산성 제약 조건에 따라 변형	지배층 결집을 위한 권위공간, 신분별 거주구획 구분
도로체계	J자형의 가로망과 유사시를 대비한 도시 시설 공존	방어 위한 미로형 통로구조, 검성, 신분별로 내곽·중곽·외곽 거주, 성하 마을
규모	성안에 병력 수용 여유 공간 풍부	성안에 병력 수용 공간 부족
방어시설	초대형 산성, 험한 지형을 이용한 낮은 여장, 체성과 연결한 옹성과 포루, 암문 등의 독특한 시설. 하포의 등장 에 따라 지속적 개축	평산성, 소규모 성채, 천수, 해자, 망루, 우물, 소금창고, 곡물창고, 담

자료 : 연구진 작성.

## □ 주변 경관요소 및 지역주민 연계

- 히메지 성은 히메지 시 경관조명의 대표적인 성과로 알려짐
  -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명 디자인을 새롭게 설계하고,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세계유산 일루미네이션 이벤트’를 개최
- 히메지 성 홈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 히메지 성을 비롯하여 히메지 시의 소식도 확인 가능
  - 또한,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 상호작용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증강현실(AR),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한 전시해설 앱을 제공하여 미디어 콘텐츠 측면에서 관람 편의를 지원
  - 영상 이벤트와 축제 및 야외공연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계절별 행사로 2월은 히메지 성 마라톤, 5월은 히메지 성 축제(퍼레이드, 다이묘 행렬 등), 6월에는 여름 유카타 축제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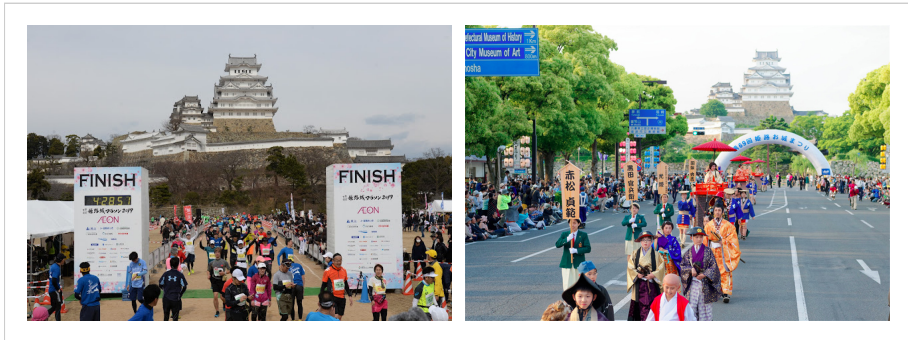


[그림 3-10] 히메지 성 일루미네이션 이벤트



자료 :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worldheritagejpn.com/" (2022.03.31. 검색).

[그림 3-11] 히메지 성 마라톤 행사 및 축제 퍼레이드



자료 : 히메지 성 홈페이지. "www.city.himeji.lg.jp/castle/" (2022.03.31. 검색).

## 5) 중국 핑야오 고성

### □ 유산 개요

- 14세기에 세워진 핑야오(平遙)는 명·청 시기(14세기~20세기) 중국 한족 도시 양식의 전형적 사례로 모든 시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
  - 이와 더불어 중국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 문화, 경제 및 종교의 발전상을 완전하게 보여준다고 평가되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 핑야오는 기원전 221년 군현제도가 실시되면서 군 행정부가 들어섰으며, 그 역할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 특히, 1370년 명나라 홍무제(洪武帝)의 재위 기간에 이곳은 상당히 발전하고 범위도 확장
  - 엄격한 한족식 설계에 따른 거대한 수비형 성벽을 세우고 성 내부도 개조하여 성을 요새화
- 현재까지 성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곽도시이며 명·청 시대의 주거지가 4천 채 이상 남아있어 전형적인 도시 구조와 가옥이 잘 보존됨

[표 3-3] 남한산성과 핑야오의 비교분석

구분	남한산성	중국 핑야오 고성
입지	고위 평탄면에 위치한 산성	충적 평야지대에 위치한 통치적 성격의 읍성
축성원칙	포곡식 산성으로 지형적 방어여건을 고려해 성벽을 축조	경제적 효율 고려하여 최소 길이 성벽으로 도시 조성
축성시기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쌓은 주장성을 기초로 조선 인조 4년(1626) 대대적인 개축	서주(西周) 선왕(BC 827-782) 때부터 존재한 토성을 명나라 홍무 3년(1370)에 벽돌을 붙여 축성
사상배경	주례고공기의 기본 원칙을 산성 제약 조건에 따라 변형	공자의 유교사상에 따라 도시설계
도로체계	J자형의 가로망과 유사시를 대비한 도시 시설 공존	J자형의 도로체계와 일상생활 위주의 도시시설
규모	성안에 병력 수용 여유 공간 풍부	성안에 병력 수용 여유 공간 부족
방어시설	초대형 산성, 험한 지형을 이용한 낮은 여장, 체성과 연결한 옹성과 포루, 암문 등의 독특한 시설. 하포의 등장 에 따라 지속적 개축	평지성, 해자, 치, 옹성, 여장 등의 방어시설

자료 : 연구진 작성.

## □ 주변 경관요소 및 지역주민 연계

- 핑야오 고성은 14세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자 관광산업 위한 장소라는 점에서 경관보전이 특히 중요
- 핑야오 고성은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 관광산업에 집중하고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진상(晉商) 문화관광 중심도시’라는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
  - 이에 성안의 문화재 대부분을 전시를 위한 관람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 내

민가를 활용하여 호텔, 여관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전통 숙박시설인 ‘객잔’을 음식점 및 공연시설과 연계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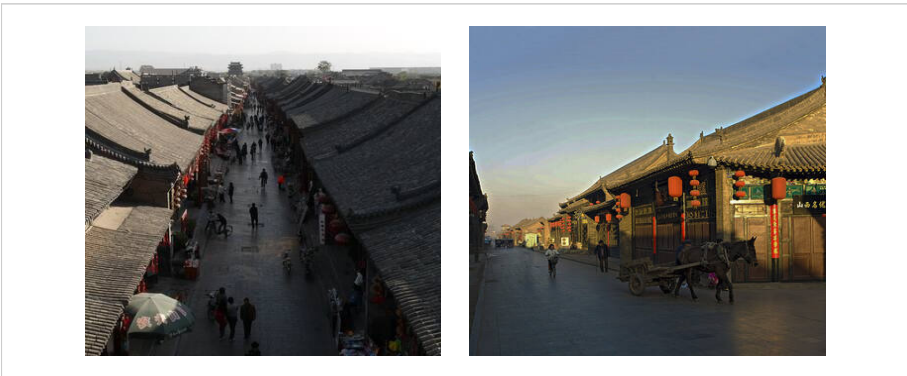
- 또한, 고성 내 교통수단으로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고, 전통 가로망을 따라 음식점과 전통 공예품점 등이 늘어서 관광 소비를 촉진
- 다만, 관광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성 내 주민이며, 인구 증가 문제가 대두
  -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시설물이 설치되고, 상업시설과 무관한 성내 민가가 방치되는 등의 문제 발생
  -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전통 경관 보전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
  - 정부는 고성 내 인구를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인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

[그림 3-12] 핑야오 고성 전경



자료 :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whc.unesco.org/” (2022.03.31. 검색).

[그림 3-13] 핑야오 고성 내 거리



자료 :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whc.unesco.org/” (2022.03.31. 검색).



### 3 유적박물관과 주변지역의 연계적 활용 사례

#### 1) 시흥 오이도 박물관 및 선사유적공원

##### □ 유적 개요

- 시흥 오이도 박물관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립박물관으로 오이도 유적 출토유물을 소장 및 전시하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과 함께 운영
- 오이도 유적은 서해안 최대 패총유적지이자 다양한 신석기유물이 출토되어 선사시대 해안 생활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곳

##### □ 주변 지역 및 경관과의 연계성

- 시흥시는 오이도 유적지의 선사 역사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이도 역사유적공원과 연계된 서해안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장소에 시흥오이도박물관을 건립
  -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시흥시의 역사문화자원과 서해바다, 갯벌, 염전 등과 같은 생활사를 전시·관람·체험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sup>13)</sup>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다양한 형태의 선사체험마을과 움집체험이 가능한 야영마을, 발굴터, 사냥터 등 조성
  - 선사체험마당과 야영 마을은 선사인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육이 이루어진다. 연중 체험프로그램과 비대면 체험을 운영
- 또한, 서해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산책하기 좋은 억새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시흥 오이도유적 종합정비계획』에는 ‘주민과 함께 삶이 숨 쉬는 선사시대 해안마을’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 자연환경 복원과 탐방로 조성, 안내·편의시설 도입,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 등이 제시
- 오이도 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은 역사체험교육장이자 도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서 기능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의 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보유

13) 박열(2014). “지역복합문화시설의 친환경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오이도 역사전시관 계획안을 중심으로-” 참조.

[그림 3-14] 시흥 오이도 박물관



자료 : 시흥 오이도 박물관 홈페이지. "oidomuseum.siheung.go.kr" (2022.03.31. 검색).

[그림 3-15] 시흥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자료 : 시흥 오이도 박물관 홈페이지. "oidomuseum.siheung.go.kr" (2022.03.31. 검색).

## 2)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및 전곡리 선사유적

### □ 유적 개요

- 전곡리 선사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기구석기시대 유적으로 1979년 국가사적 268호로 지정
- 전곡선사박물관은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발견으로 세계 구석기 연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던 역사적 현장인 전곡리 구석기유적에 건립 -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주먹도끼, 전곡의 지층, 고고학 체험센터 등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그리고 온라인 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주변 지역 및 경관과의 연계성

- 전곡리 유적 산사체험마을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석기관찰/사용체험, 발굴체험, 막집짓기 체험, 사냥체험, 구석기 의상 체험 등
- 세계의 모든 선사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개최
  - 프랑스와 함께 세계 2대 구석기 축제로 1993년 전곡 구석기 유적관 개관 시 처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2010년 우수축제, 2018년 육성축제)
  - 구석기캠프, 전곡리안 나들이(연천 9경 구석기 퍼포먼스), 전곡리안 연천 한 바퀴, 구석기 바비큐(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구석기 문화를 놀이와 체험, 그리고 교육에 접목한 에듀테인먼트형 축제

[그림 3-16] 전곡리 유적 산사체험마을 프로그램



자료 : 연천 전곡리 유적. “[www.yeoncheon.go.kr/seonsa/index.do](http://www.yeoncheon.go.kr/seonsa/index.do)” (2022.03.31. 검색).

[그림 3-17]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자료 : 연천 전곡리 유적. “[www.yeoncheon.go.kr/seonsa/index.do](http://www.yeoncheon.go.kr/seonsa/index.do)” (2022.03.31. 검색).

## 4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콘텐츠 사례

### 1) 전시·교육 콘텐츠 현황

#### □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의 전시·교육 콘텐츠 보유 현황

-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문화유산은 총 13건이므로, 이들 13건의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하여 문을 연 전국 28개 박물관의 전시·교육 방식을 분석
- 28개 박물관 중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객관적인 (전시·교육 콘텐츠로 개발 가능한) 자료 확인이 가능한 14개 기관의 문화유산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음

[표 3-4]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콘텐츠 현황

유산명	등재 연도	관련 박물관	전시·교육 콘텐츠			
			소장자료 (점)	전시자료 (점)	지정문화재	
					주요 문화재	개수(점)
해인사 장경판전	1995	해인사 성보박물관	8,530	1,077	합천 해인사, 건칠 희랑대사 좌상 등	국보 1점, 보물 522점, 중요민 속 문화재 4점, 시도지정문화재 16점, 문화재 자료 2점
석굴암 불국사	1995	불국사 박물관	788	132	불국사 삼층 석탑 사리 장엄구, 불국 사 영산회상도 등	국보 1점, 보물 1점
창덕궁	1997	국립고궁 박물관	71,990	1,740	조선왕조실록 등	국보 82점, 보 물 160점, 국가 민 속 문 화 재 333점, 국가등 록문화재 869 점, 시도지정문 화재 2점
수원화성	1997	수원화성 박물관	8,522	164	채제공 초상 일괄 등	보물 10점, 지 정 문화재 205 점, 수원향토자 료 13점

(표 계속)

유산명	등재 연도	관련 박물관	전시·교육 콘텐츠			
			소장자료 (점)	전시자료 (점)	지정문화재	
					주요 문화재	개수(점)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	고창고인돌 박물관	188	10		
경주역사 유적지구	2000	국립경주 박물관	247,210	7,801	성덕대왕 신종 등	국보 15점, 보물 42점,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2점
조선왕릉	2009	세종대왕 역사문화관 (영녕릉)	116	45	효종 영릉 재실 등	사적 1점, 보물 1점, 천연기념물 1점
백제역사 유적지구	2015	국립공주 박물관	276,403	5,972	진묘수 등	국보 10점, 보물 20점, 중요민속자료 5점
		국립부여 박물관	85,266	11,364	백제금동대향로 등	국보 2점, 보물 4점
		정림사지 박물관	893	192	부여 김동효영정 등	도유형문화재 3점, 도문화재 자료 2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통도사성보 박물관	50,000	150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국보 1건(1점), 보물 26건(93점), 시도지정문화재 49건(979점)
		부석사성보 박물관	1,085	50	조사당벽화 등	국보 1점, 보물 2점
		대흥사성보 박물관	1,558	138	금동여래보살좌상 등	보물 8점, 지방문화재 7점
한국의 서원	2019	소수박물관	25,298	626	안향초상 등	국보 1건, 보물 2건, 국가민속문화재 1건, 도유형문화재 8건, 문화재 자료 2건

주 : 세계유산 관련 박물관이 없는 경우는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참조.

## □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의 전시·교육 콘텐츠 분석

- 박물관마다 소장자료, 전시자료의 수량과 지정문화재 보유 현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14개 박물관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소장자료 수량은 55,561점, 전시 자료는 2,104점인 것으로 확인
- 박물관의 전시·교육 콘텐츠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류 문화적 자산으로부터 나오므로, 세계유산 기반 설립 박물관은 해당 세계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전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의무가 있음
-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시·교육 콘텐츠의 종류가 많고 중요성이 클수록 박물관 사업 범위를 넓혀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따라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건립 준비 단계에서는 물론 개관 후에도 장기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물 수집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콘텐츠화하는 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 2) 박물관 전시방식 현황

### □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의 전시방식 현황

- 현재 박물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시방식은 7가지(유물 전시, 관련 자료 전시, 동영상 전시, 디오라마 전시, 터치스크린 전시, 관내 VR/AR 전시, 디지털 실감 전시)로 정리할 수 있음
-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방식을 분석하면 [표 3-5]와 같음

[표 3-5]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의 전시방식 유형

박물관	전시방식							
	유물	관련 자료	동영상	디오라마	터치스크린	VR/AR (관내)	디지털 실감	그 외
해인사 성보박물관	○	○	X	○	X	X	X	
불국사 박물관	○	X	○	X	X	X	X	
국립고궁박물관	○	○	○	○	○	○	○	
수원화성박물관	○	○	○	○	X	X	X	

(표 계속)

박물관	전시방식							그 외
	유물	관련 자료	동영상	디오라마	터치 스크린	VR/AR (관내)	디지털 실감	
고창고인돌박물관	○	○	○	○	○	○	×	
국립경주박물관	○	○	○	○	○	○	×	온라인 VR 전시
쪽샘유적발굴관	○	×	○	×	×	×	×	발굴지 관람
황룡사 역사문화관	○	○	○	○	○	○	×	
조선왕릉전시관 (태릉, 강릉)	×	×	○	○	×	○	×	
세종대왕 역사문화관 (영녕릉)	○	○	○	×	×	×	×	
동구릉 역사문화관	×	×	○	×	○	×	×	
광릉 역사문화관	×	×	○	×	×	×	×	
사릉 역사문화관	×	×	○	×	×	×	×	
흥릉·유릉 역사문화관	×	×	○	×	×	×	×	
선릉·정릉 역사문화관	×	×	○	○	○	×	×	
서오릉 역사문화관	×	×	○	×	○	○	×	
파주삼릉 역사문화관	×	×	○	×	○	×	×	
용릉·건릉 역사문화관	×	×	○	×	○	×	×	
장릉 역사문화관	×	×	○	×	×	×	×	
국립공주박물관	○	○	○	×	○	○	○	
웅진백제역사관	×	×	○	○	○	○	×	
국립부여박물관	○	○	○	○	○	○	○	
통도사 성보박물관	○	○	×	×	×	×	×	
대흥사 성보박물관	○	○	×	×	×	×	×	
소수박물관	○	○	○	○	○	×	×	

자료 : 해당 기관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 □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의 전시방식 분석

- 분석결과, 소장하고 있는 ‘유물 전시’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 박물관들과 달리, 세계유산 기반 박물관은 ‘동영상’ 전시방식을 가장 많이 적용
  - 반면 요즘 국·공립 박물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실감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3.57%에 불과해 앞으로 개선이 요구됨
- 이는 이들 박물관의 콘텐츠가 세계유산인 ‘유적 자체’이므로,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소장품의 규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
  - 이러한 이유로 소장품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자료의 활용이 적극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에서 출토된 유물과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동영상 외에도 관련 유물을 충분히 활용한 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관람객의 눈높이를 고려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미디어 전시 연출 방식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전시 및 공간연출 사례

### □ 핸드온(HANDS-ON) 공간으로 바뀐 전시실 : 체험코너에서 체험관으로

- 최근 박물관의 패러다임이 눈으로 관람하는 장소에서 온몸으로 즐기는 체험 공간으로 변화
- 체험대상이 전시유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관람객이 경험해야 할 관람 콘텐츠의 중심으로 이동
  - 이에 전시실 내 일부 공간에 체험 코너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1개 층을 전체를 체험 전시물로 꾸민 ‘체험관’이 등장하기 시작함
- 특히 어린이를 위한 전시일 경우 소장유물 없이 전부 체험물로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임(체험관을 박물관교육과 연계해 운영하는 곳도 다수)
- 따라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도 건립 초기부터 체험 공간의 설치를 염두에 둔 전시실 기획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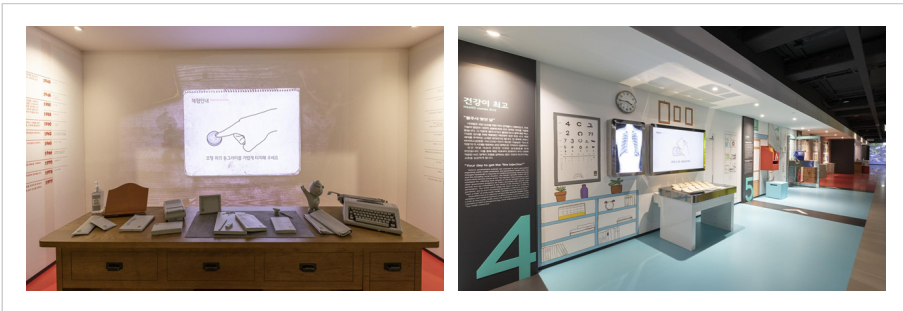


[표 3-6] 박물관 체험 공간 운영사례

박물관	전시 내용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상설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상설전시실 4층에 ‘체험관’ 개관</li> <li>• 현대사를 서재, 부엌, 드레싱룸, 병원, 교실, 동사무소 게시판, 투표소, 광장 등 16개의 주제로 나누고, 세대별로 차별성 있게 체험하는 방식</li> <li>• 체험의 종류로는 시대별 대표 의상을 자기 얼굴 사진 위에 합성하는 ‘패셔니스타’, 영화 주인공처럼 시대의 주요 현장에 내 모습을 그려 넣는 ‘네컷만화’, 시대별 대표 가요 체험인 ‘랄랄라’, 역대 대통령선거 당시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 후보를 맞춰보는 ‘소중한 한 표’, 캐릭터를 꾸며서 대형스크린으로 만들어진 ‘광장’으로 내보내는 ‘함께 걷는 광장’ 체험 등 다양</li> <li>• 보드게임 형태의 전시공간 디자인으로 호기심 자극</li> </ul>
계양산성박물관 (상설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성 축조 방식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물</li> <li>• 산성의 벽을 쌓는 재료를 관람객이 직접 짚어지고 옮겨보는 형식</li> <li>• 계양산성이라는 전시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체험 전시물</li> <li>•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유물과 가까운 곳에 설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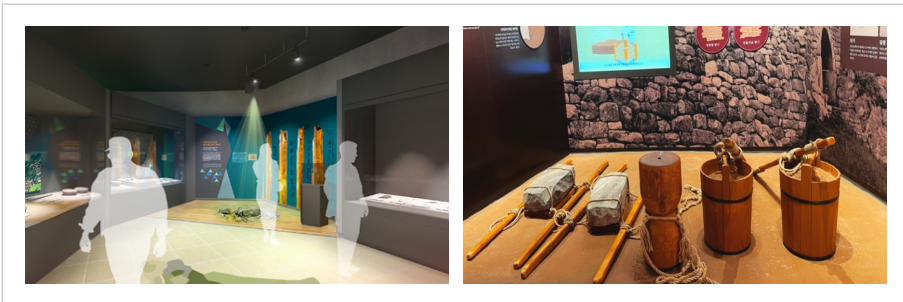
자료: 해당 기관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그림 3-18]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체험관



자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www.much.go.kr” (2022.03.31. 검색).

[그림 3-19] 계양산성박물관 전시공간 및 체험물



자료 : 계양산성박물관. “museum.gyeyang.go.kr/” (2022.03.31. 검색); 연구자 촬영.

- 원적지를 벗어난 고고·역사 전시유물의 이해 부족 한계 극복: 모형, 재현품, 디오라마 활용
  - 박물관은 진정성 높은 유물을 전시해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존립 정당성을 확보
    - 그러나 현대인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고고·역사유물의 경우, 나열식 전시방식만으로는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편
  - 박물관이 오래된 것들의 무덤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본 유물과 함께 유물이 갖는 기능적 특성(실체적 정의) 제시 필요
  - 이를 위해 박물관들은 모형과 재현품, 디오라마 등을 활용한 시각적 참고자료를 전시물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활용<sup>14)</sup>
- 현장감을 살리는 공간 콘텐츠 개발: 감상의 대상이 전시유물에서 공간 전체로
  - 발굴 상황과 유물 출토(발견) 시의 현장감을 관람객에게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전시 공간 자체를 발굴 현장으로 전시 디자인하는 방법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
    - 발굴품 외에도 전시 콘텐츠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시실을 산속이나 고래의 배속, 선사시대 주거지, 동굴, 1970년대 거리 등으로 기획하기도 하는데, 관람객에게 일상생활을 벗어나 특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 유도
  - 현장감을 살리는 공간 콘텐츠는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개발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경우, 예를 들어, 험준한 산에 지어진 남한산성에 오르는 길을 여러 방식의 체험물과 함께 공간 디자인하여, 자연경관과 함께 남한산성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남한산성에 오르는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장감을 살리는 공간 콘텐츠 사례는 [표 3-7]과 같음

14) 단, 모형·재현품·디오라마 전시방식은 이미 박물관에 널리 적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례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표 3-7] 박물관 공간 콘텐츠 개발 사례

박물관	전시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시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중국 도자기 운반선의 출수품 기획전시</li> <li>• 수만 점의 도자기를 운반하던 배의 선실 상황을 디자인에 적용(도자기가 상자에 감겨 있던 모습 그대로 디스플레이)</li> <li>• 침수 후 바닷모래에 오랫동안 묻혀 있던 전시유물의 발굴 당시 모습 재현</li> </ul>
풍기인삼박물관 (상설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령 옛길을 전시실 내부로 끌어들이어 관람객이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공간기획</li> <li>• 죽령 옛길 중간에 소백산을 배경의 '동삼전설' 동영상 시청</li> </ul>

자료 : 해당 기관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그림 3-20]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사례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3-21] 풍기인삼박물관 상설전시 사례



자료 :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m.cultureline.kr/" (2022.03.31. 검색).

#### 4) 디지털 실감 콘텐츠 사례

##### □ 증강현실의 필요성 ① : 넓은 유적 전체를 실감 나게 보여주는 디오라마 전시의 새로운 경향

- 디오라마는 전통적인 박물관의 전시기법 중 하나로, 박물관에 스마트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가장 선진적인 전시기법 중 하나로 인식
  - 특히 남한산성처럼 콘텐츠의 공간적 범위가 넓고, 이를 전시 공간 안에서 한눈에 보여줘야 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
- 디오라마 전시물은 전시 콘텐츠의 전경을 인간의 시각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여준다는 분명한 장점 보유
  - 하지만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 없어 흥미를 끌기 어렵고, 다양한 콘텐츠를 섬세하게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제작되는 탓에, 만듦새가 조악한 사례가 많음
- 최근에는 디오라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 디오라마 전시물에 스마트기기를 접촉하면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적용
  - 이러한 전시방식은 관람객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며, 박물관 측에서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에 대해 물리적 한계를 걱정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증강현실의 필요성 ② : AR 도슨트의 등장

- 박물관의 전시 설명 서비스 매체는 MP3(음성단말기), PMP(영상단말기), 태블릿 PC, 스마트 APP, 그리고 대면 도슨트 등으로 제공
- 지금까지는 이 중 대면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도슨트 전시 설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
-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현실 속에서 유물(또는 과거의 인물)이 인도하는 비대면 'AR 도슨트'가 주목을 받고 있고, 빠르게 개발·확산
- 국립중앙박물관은 2019년 'AR 도슨트 시범서비스' 운영하여 AR 글래스(홀로렌즈)를 통해 착용형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체험을 제공
  - 유물 만져보기, 유물 관련 정보보기, 유물 원형 복원하기, 역사 속 인물과 대화하기 등 AR 콘텐츠 체험 서비스

□ 증강현실의 필요성 ③ : 사라진 문화유산의 복원, 세계유산으로써의 완전성을 보완할 방법의 하나

-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사라지거나 훼손돼 기록으로만 남은 것들도 존재
- 복원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되살리 돼, 현실적으로 재건이 어려운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원을 고려
- 이는 관람객에게 남한산성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방법
- 증강 기술을 활용한 복원 전시는 아직 박물관에 적용된 예가 드물지만, 문화재청에서도 돈의문과 황룡사 등의 디지털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제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실감 전시의 보편화 : 국·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sup>15)</sup>

- 디지털 실감 전시는 전시실 벽면에 영상을 비춰 유물의 이미지로 전시 공간을 채우는 방식
  - 단순히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그림에 등장하는 무용수들이 우아한 춤사위를 선보이고, 장엄한 의궤 속 군사들이 행렬하는 모습 등을 연출해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받음
- 최근 국·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실감 전시를 적극 도입 중이며, 문화재청 지원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인 곳도 있어, 향후 상당히 많은 박물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
  - 문화재청은 2021년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을 발표하고,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전 분야에 디지털 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sup>16)</sup>
- 디지털 실감 전시는 동영상으로도 변환돼 제공되는데, 이는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전시 콘텐츠로, 박물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함
- 디지털 실감 전시 사례는 [표 3-8], [표 3-9]와 같음

15) 온라인 동영상 전시 콘텐츠로도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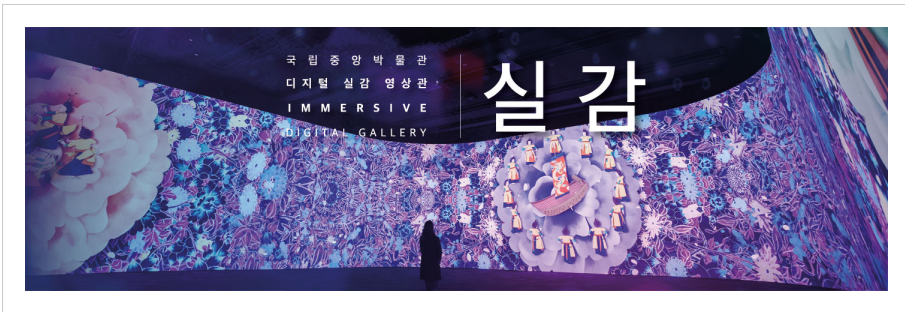
16) “문화재청,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발표”, 문화재청 보도자료(2021.06.16.).

[표 3-8]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운영사례

박물관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 상설 디지털상영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상호협력을 통해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 개발</li> <l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고해상도영상, 홀로그램,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 등의 기술이 사용됨</li> </ul>
구성	실감1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노라마 스크린에 초대형 영상 상영</li> <li>• ①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 ②금강산에 오르다, ③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 하다, ④영혼의 여정, 아득한 유희의 길을 걷다, ⑤신선들의 잔치</li> </ul>
	실감2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후기 풍속도, 태평성시도 영상와 가상현실 콘텐츠 제공</li> <li>• ①풍속도 속으로, ②태평한 하루 속으로, 태평성시도, ③보존과학실 VR, ④박물관 수장고 VR, ⑤감은사 사리장엄 VR, ⑥청자에 담긴 세상 VR</li> </ul>
	실감3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감3관: 단일 영상을 매일 상영(고구려 벽화무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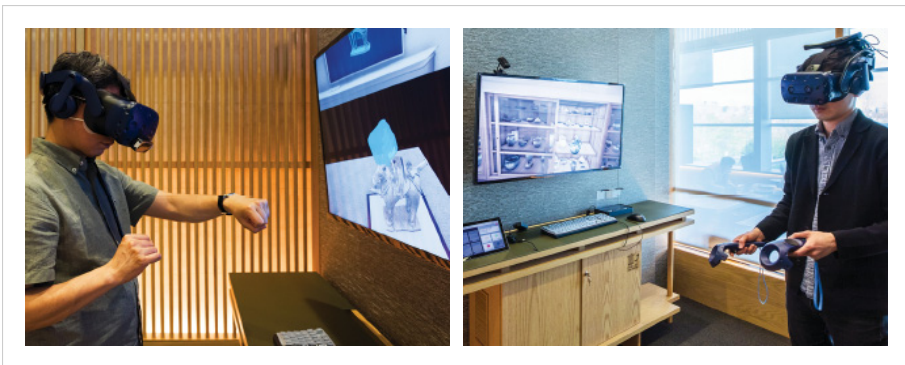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2022.03.31. 검색).

[그림 3-22]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영상관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2022.03.31. 검색).

[그림 3-23]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수장고 VR 및 청자에 담긴 세상 VR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2022.03.31. 검색).



[표 3-9] 국립해양박물관 실감형미디어아트 전시 사례

박물관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기획전시 ‘심연(深淵)의 상상(想像)’에서 선보인 미디어아트</li> <li>• 심해를 깊이에 따라 세 구역으로 나누고, 바닷속 환경과 생명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li> <li>• 작은 바다 생물을 손으로 만지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고래 머리를 쓰다듬으면 길고 깊은 울음소리를 내는 등 인터랙션 요소를 가미해 개발</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인류, 잠수를 시작하다, ②깊은 바다 속, 한계를 뛰어넘는다, ③노틸러스 21,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다, ④깊고 어두운 심연을 향하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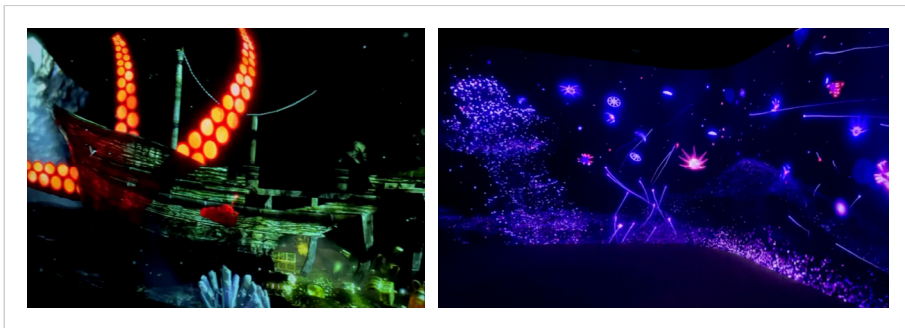
자료: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 “www.knmm.or.kr/” (2022.03.31. 검색).

[그림 3-24]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심연의 상상’ 리플렛



자료: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2022.03.31. 검색).

[그림 3-25]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심연의 상상’ 영상



자료: 연구자 촬영.

## 5) 메타버스 적용 및 온라인 전시, SNS 활용 사례

### □ 메타버스<sup>17)</sup> 전시 : 박물관을 소셜네트워크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로 확장

-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전시 콘텐츠 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동영상과 VR 전시 등이 신속히 제작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
  - 기존 온라인 콘텐츠는 관람객이 상호작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는 편이라 재미있는 전시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
- 반면, 메타버스 전시는 현실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닌 박물관의 유물을 가상의 세계로 옮겨, 전시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관람객이 유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
  -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 유물을 감상한 느낌을 나눌 수도 있어서, 기존 온라인 전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
- 메타버스 전시는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은 물론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쉽고 유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
- [표 3-10]과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메타버스 전시 사례가 대표적임

[표 3-10] 국립중앙박물관 메타버스 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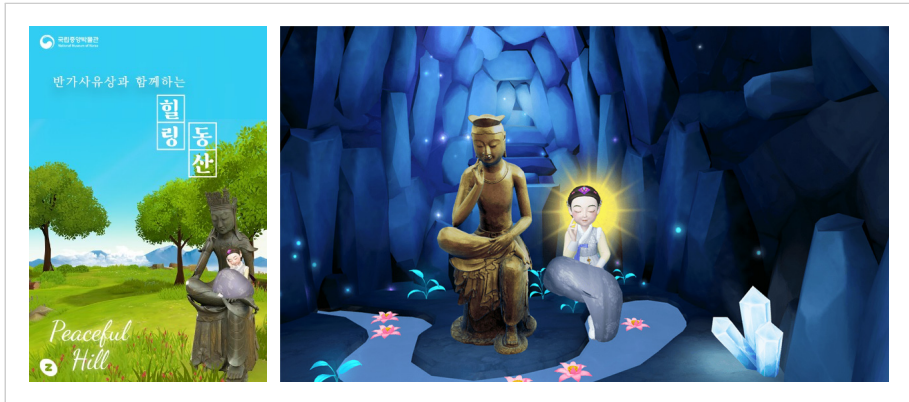
박물관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상 박물관을 구축하고, ‘힐링동산(feat.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이라는 전시명으로 2021년 10월 8일에 공개 시작</li> <li>• 반가사유상이 전하는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젊은 감성에 맞추어 전달</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링동산’ 방문자가 박물관에서 마련한 여러 과제를 완수하면서 반가사유상에 다가가는 형식으로 반가사유상과 사진(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기도 함</li> <li>• 일상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유물 감상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마음을 달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li> </ul>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2022.03.31. 검색).

17) 메타버스(metaverse)란 가공·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가상의 세계에서 생산활동, 사회생활, 문화생활 등 일상을 이어나가는 ‘가상 속 현실 세계’를 의미함.



[그림 3-26] 국립중앙박물관의 메타버스 박물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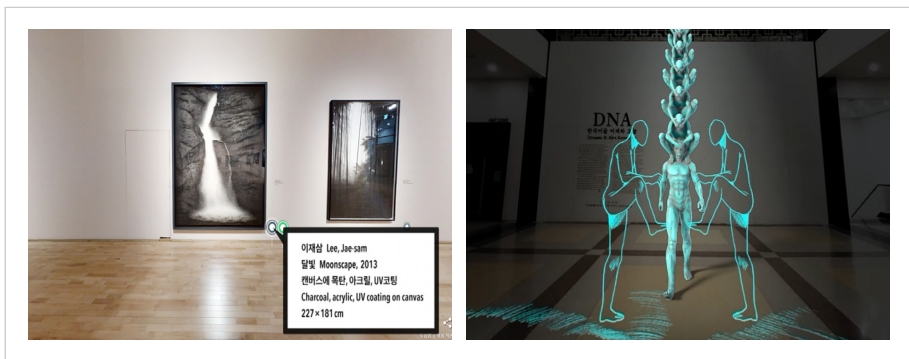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촬영.

□ 온라인 전시방식 : XR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적 제약 탈피

-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미술관은 기획전시, 개별 작품 또는 작가에 대한 360° VR 큐레이팅 영상 제공
  - 매터포트(Matterport) 社의 XR기술을 활용하여 미술관 전시실을 온라인으로 구현
- 개별 작품의 경우 별도의 작품 설명 영상을 제공하며,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방문자가 임의로 작품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지털 전시실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은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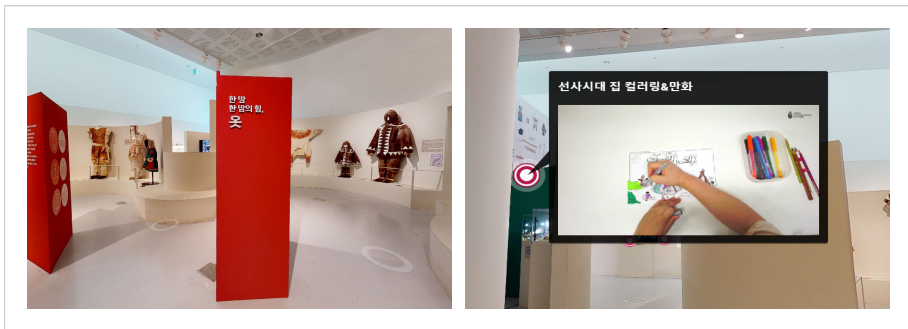
[그림 3-27]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미술관 사례



자료: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www.mmca.go.kr” (2022.03.31. 검색).

- 전곡선사박물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매터포트 社의 XR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 전시실을 온라인으로 구현
- 특별기획전, 어린이체험실 등을 그대로 구현하고, 실제로 마련된 안내패널과 별개로 팝업 패널을 송출하여 온라인 방문객의 원활한 이해를 지원
- 전시관의 구석구석까지 온라인 환경으로 구현하여 방문객이 실제 박물관에 방문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음

[그림 3-28] 전곡선사박물관 온라인 전시 사례



자료: 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s://jgpm.ggcf.kr>” (2022.03.31. 검색).

#### □ 유튜브 콘텐츠 활용 사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근 1년 이내 ‘MUCH’라는 태그와 함께 근현대 의식주 문화와 관련된 영상들이 다수 제작되어 시민 관심 증가
  - 박물관 홈페이지 주소 ‘www.much.go.kr’를 인용하여 ‘MUCH’라는 태그를 사용
  - ‘근현대사 빵 이야기’ 영상의 경우 채널 조회 수 상위 10개 영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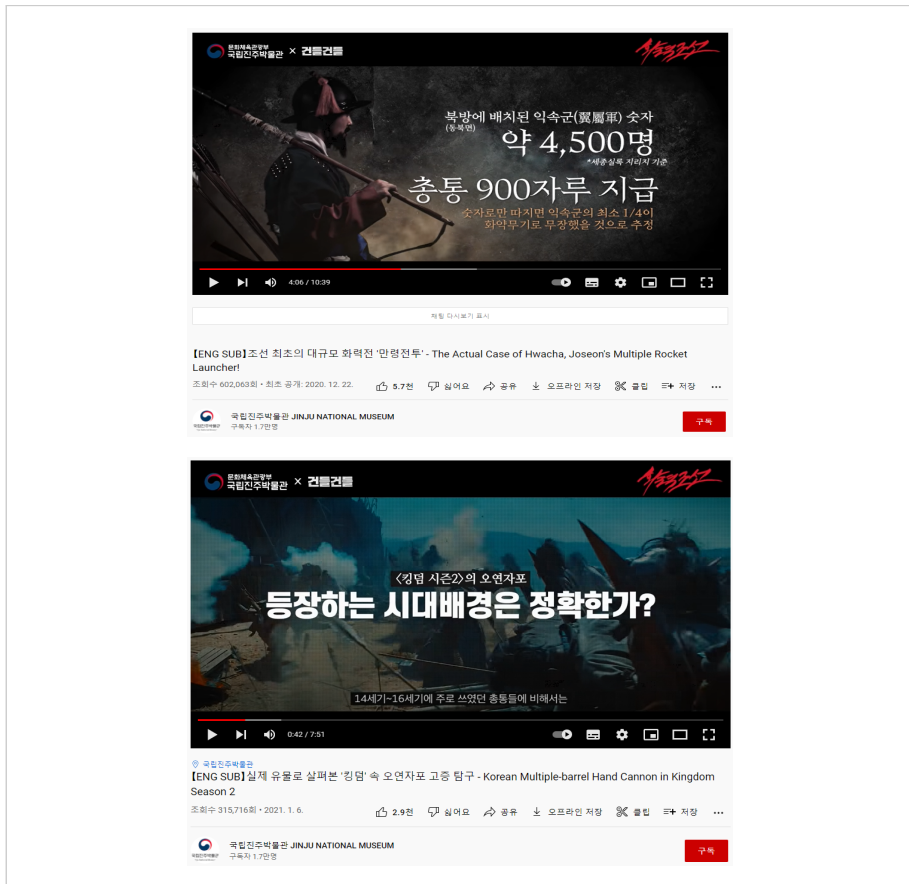
[그림 3-2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 사례



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www.youtube.com/user/muchkorea](http://www.youtube.com/user/muchkorea)” (2022.03.31. 검색).

-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의 경우 <조선 최초의 대규모 화력전 '만령전투'  
- The Actual Case of Hwacha, Joseon's Multiple Rocket Launcher!>라  
는 영상이 조회 수 약 60만 회를 기록
  - <실제 유물로 살펴본 '킹덤' 속 오연자포 고종 탐구 - Korean Multiple-barrel Hand Cannon in Kingdom Season 2>는 약 31만 회, <조총학개론 -타임슬립 대비, 조총을 배우자 Let's Learn about Matchlock Muskets in Case We're Sent Back in Time>은 약 25만회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특히 넷플릭스 인기 TV 시리즈인 '킹덤'에서 등장한 총통과 포를 국립진주박물관  
관의 소장유물과 연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새로운 시청자의 유입을 유도

[그림 3-30]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 사례



자료: 국립진주박물관. “www.youtube.com/c/JINJUNATIONALMUSEUM” (2022.03.31. 검색).

## 5 소결

- 남한산성은 살아있는 성곽유산으로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존재가치는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확산에 있음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을 현시대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즉,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및 특수성과 더불어 전 인류적 보편성을 동시에 담아야 하며, 등재 기준,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 및 관리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방문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곽유산의 지역연계 활용 사례, 유적박물관과 주변 지역의 연계적 활용 사례,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성곽유산의 지역연계 활용 사례를 통해, 주민들 간의 연결망 구축 및 각종 시민 참여 행사가 해당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과 상업화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상업·관광시설은 세계유산으로서 잠재적 위협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함
- 둘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유적박물관으로서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세계유산 가치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남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관련 구성요소는 군사경관요소, 통치경관요소, 민속경관 요소로 구분 가능
- 이에 이와 연계한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군사경관요소는 연무관, 원성과 외성, 성곽과 부속설비, 승영사찰, 침괘정 등 연계
  - 통치경관요소는 행궁지, 제의시설, 읍치요소 등 연계
  - 민속경관요소는 승렬전 제향, 현절사 전례, 승영사찰과 관련한 불교 전통, 청량당과 도당굿, 장승제, 햇불놀이, 천주교 순교 성지, 전통 음식과 전통주 등 연계
- 셋째,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에서 출토된 유물과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동영상 외에도 관련 유물을

충분히 활용한 수준 높은 전시 가능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관람객의 편의와 높은 체감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미디어 전시 연출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박물관들은 온라인 전시 및 교육과 더불어 SNS를 활용하여 관람객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온라인 전시, 메타버스의 활용, SNS 활용,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해야 함
- 또한,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위한 인적자원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보고서, 연구 성과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D4

## 박물관 조직 및 인력운영 특성 분석

1. 분석개요
2. 유사기관 분석
3. 유사 규모 박물관의 인력 현황 비교·분석





## 제4장 박물관 조직 및 인력운영 특성 분석

### 1 분석 개요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 유사한 국내 박물관 사례를 분석하여 최적의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제시
- 박물관의 조직은 박물관 건립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박물관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로 구축이 필요
- 이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성격, 유적 연계 입지여건, 운영 방침 등에서 유사한 박물관의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건축물로 분류되는 문화유산 유적을 기반으로, 유적 내(또는 인접한 장소에) 건립된 박물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sup>18)</sup>
- 또한, 기관별 조직도와 함께 소장품의 수량, 공간의 쓰임새와 크기, 조직의 특징 등을 함께 조사하여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설립 목적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탐색
- 제시된 데이터는 기관별 홈페이지와 가장 최근의 박물관 운영 동향을 알 수 있는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함<sup>19)</sup>
- 연구 자료가 가진 '사례 가치'의 판단 준거는 다음과 같음
  - 콘텐츠 유사성 : 성곽 관련 콘텐츠 여부
  - 세계유산 기반 :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콘텐츠 기반 여부
  - 유적 내 입지 : 유적 내(또는 근처)에 세워진 박물관으로써 유적을 전시 공간과 교육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에 관한 사항

18) 단, 임시수도박물관처럼 박물관 건물 자체가 지정문화재인 경우는 제외함.

19) 단, 연간 관람객의 숫자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람인원 제한이 시행되기 이전의 자료인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참고함.

## 2 유사기관 분석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콘텐츠 유사성, 세계유산 기반 여부, 유적 내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6개소를 도출
- 구체적으로 수원화성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백제왕궁박물관, 계양산성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임

### 1) 수원화성박물관

#### □ 박물관 개요

- 수원화성박물관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화성 축성과정과 도시발전의 역사 등을 보여주는 전시·교육·체험을 제공
  - 변암 채제공의 초상화(보물 1477호) 전시
  - 상설체험실과 정기교육실을 마련하여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표 4-1] 수원화성박물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콘텐츠 유사성	세계유산 기반	유적 내 입지
기준	○	○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li> <li>• 2009년 개관(공립박물관)</li> <li>• 현재 수원시 박물관사업소에서 운영</li> <li>• 연간 관람객(2019년 기준) : 368,596명</li> </ul>		
소장품	8,522점(고문서, 고서적, 서화 등)		
공간구성 (연면적 : 5,625㎡)	전시실	1,636㎡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425㎡	-
	교육실	2,959㎡	세미나실 및 강당
	그 외	3,346㎡	자료·도서실(2,959), 사무실(247), 문화상품점(59), 매점(81)
실외	주차장	-	81대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 "hsmuseum.suwon.go.kr" (2022.03.15. 검색).

[그림 4-1] 수원화성박물관 전경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 “hsmuseum.suwon.go.kr” (2022.03.15. 검색).

#### □ 조직체계 특성

- 수원화성박물관은 세부 영역의 구분 없이 크게 운영팀과 학예팀으로 구성
  - 성곽문화에 특화된 박물관으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조직 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음
  - 유연한 업무가 가능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은 단점
- 스마트뮤지엄<sup>20)</sup>으로 발전하기 다소 어려운 조직구조로 판단됨

[그림 4-2] 수원화성박물관 조직도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 “hsmuseum.suwon.go.kr” (2022.03.15. 검색).

20) IoT기반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뮤지엄 전시와 연결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개발, AR/VR 기술을 통한 실감형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2) 한성백제박물관

### □ 박물관 개요

- 한성백제박물관은 풍납동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등의 발굴 유물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조사·연구·관리하기 위해 건립된 한국 고대문화 전문박물관
  - 전시공간(기획 및 상설전시실), 교육공간(강당, 세미나실 등), 수장공간 등으로 구성

[표 4-2] 한성백제박물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콘텐츠 유사성	세계유산 기반	유적 내 입지
기준	○	X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li> <li>• 2012년 개관(공립박물관)</li> <li>• 연간 관람객(2019년 기준) : 125,814명</li> </ul>		
소장품	66,138점(토도, 금속, 서화 등)		
공간구성 (연면적 : 19,423m <sup>2</sup> )	전시실	2,651m <sup>2</sup>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2,250m <sup>2</sup>	-
	실내 교육실	635m <sup>2</sup>	세미나실 및 강당
	그 외	911m <sup>2</sup>	자료·도서실(435), 사무실(401), 문화상품점(75)
	실외 주차장	-	142대

자료: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baekjemuseum.seoul.go.kr" (2022.03.15. 검색).

[그림 4-3] 한성백제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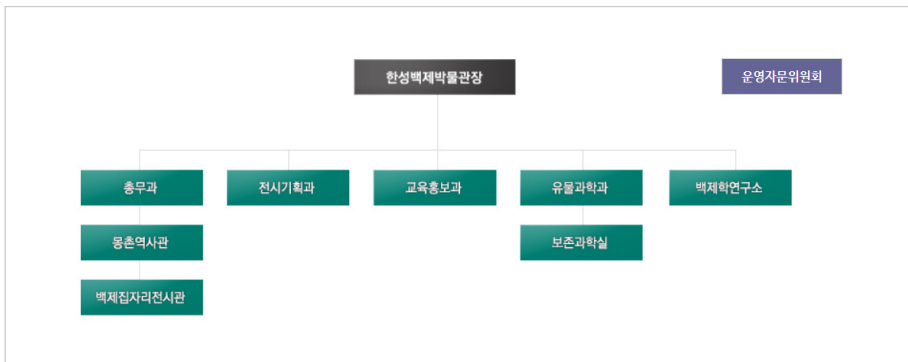


자료: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baekjemuseum.seoul.go.kr" (2022.03.15. 검색).

## □ 조직체계 특성

- 박물관의 규모에 비해 연간 관람객 숫자가 많고, 전시와 교육뿐 아니라 연구업무가 강한 조직 형태
  - 학예직 14명(연구관 3명, 연구사 11명), 학예공무직 10명, 학예계약직 44명, 일반직 19명, 일반계약직 50명, 인턴 13명, 자원봉사자 97명으로 구성
- 박물관의 기능에 따라 부서가 나뉘고, 조직 내 역할 분장이 명확
  - 자체적으로 ‘백제학’에 연구 가능
- 스마트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인력 배분이 이루어짐 (박물관 VR 전시, 몽촌역사관 스마트 한성백제박물관 구축 업무 담당 주무관 배치)

[그림 4-4] 한성백제박물관 조직도



자료: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baekjemuseum.seoul.go.kr” (2022.03.15. 검색).

## 3) 국립진주박물관

### □ 박물관 개요

- 국립진주박물관은 경상남도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서 진주성(晉州城) (사적 제 118호)에 위치하며, ‘임진왜란 특성화 박물관’으로 운영
  -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전시하면서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1984년 개관 당시 가야문화를 소개하고, 경남 서부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나 1998년 임진왜란사를 주제로 하는 역사박물관으로 전환

[표 4-3] 국립진주박물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콘텐츠 유사성	세계유산 기반	유적 내 입지
기준	O	X	O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35</li> <li>• 2016년 개관(국립박물관)</li> <li>• 연간 관람객(2019년 기준) : 100,903명</li> </ul>		
소장품	109,580점(금속, 토제, 지류, 석재 등)		
공간구성	전시실	2,068m <sup>2</sup>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1,197m <sup>2</sup>	-
	실내 교육실	361m <sup>2</sup>	세미나실 및 강당
	그 외	719m <sup>2</sup>	자료·도서실(76), 사무실(512), 문화상품점(23), 매점(54)
	실외 주차장	-	없음

자료 : 국립진주박물관 홈페이지. "jinju.museum.go.kr/" (2022.03.15. 검색).

[그림 4-5] 국립진주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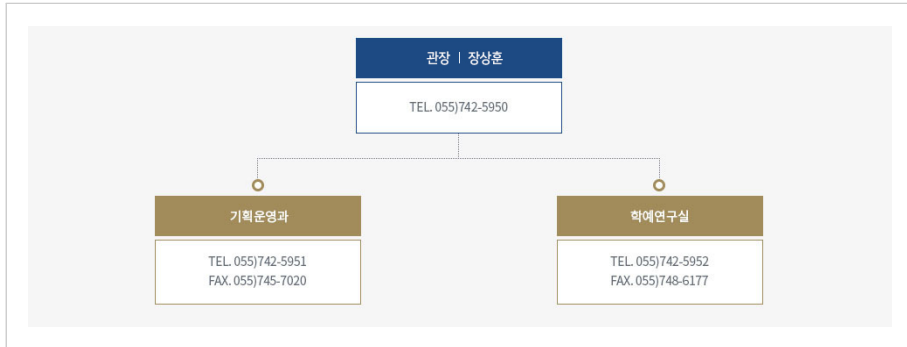


자료 : 국립진주박물관 홈페이지. "jinju.museum.go.kr/" (2022.03.15. 검색).

#### □ 조직체계 특성

- 조직구성은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각 과에 맞는 세부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짐
- 학예인력은 총 26명이나, 이 중 비정규직이 20명을 차지
- 일반직은 행정 담당 공무원 1명과 시설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25명으로 구성
- 자원봉사자는 총 28명이 활동

[그림 4-6] 국립진주박물관 조직도



자료: 국립진주박물관 홈페이지. "jinju.museum.go.kr/" (2022.03.15. 검색).

#### 4) 백제왕궁박물관

##### □ 박물관 개요

- 백제왕궁박물관은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백제왕궁을 주제로 한 박물관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백제왕궁터'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기존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세계유산에 맞게 증축해 '백제왕궁박물관'으로 변경

[표 4-4] 백제왕궁박물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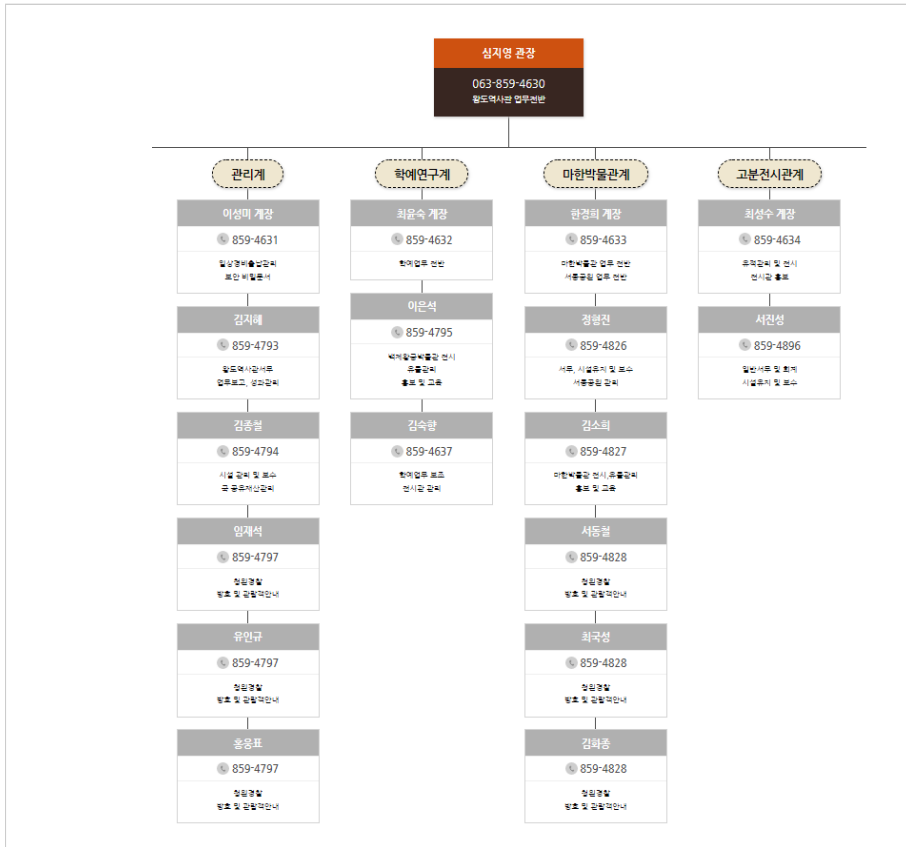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콘텐츠 유사성	세계유산 기반	유적 내 입지	
기준	X	O	O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li> <li>• 2008년 개관(공립박물관)</li> <li>• 연간 관람객(2019년 기준) : 58,497명</li> </ul>			
소장품	1,718점(토도, 금속 등)			
공간구성 (연면적 : 19,423m <sup>2</sup> )	실내	전시실	1,001m <sup>2</sup>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104m <sup>2</sup>	-
		교육실	113m <sup>2</sup>	세미나실 및 강당
	그 외	126m <sup>2</sup>	자료·도서실(54), 사무실(72)	
	실외	주차장	-	111대

자료 : 백제왕궁박물관 홈페이지. "www.iksan.go.kr/wg/index.iksan" (2022.03.15. 검색).

## □ 조직체계 특성

- 조직도상 관리계 6명, 학예연구계 3명, 마한박물관계 6명, 고분전시관계 2명으로 구성
- 백제왕궁박물관과 마한박물관(백제왕궁박물관으로부터 4.6km 떨어진 곳에 위치)이 함께 운영되는 시스템
- 백제왕궁박물관에는 학예연구사 1명, 일반직 5명, 자원봉사자 2명이 포함
- 박물관 운영과 유적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
  - 관리직 인원이 많아서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그림 4-7] 백제왕궁박물관 조직도



자료 : 백제왕궁박물관 홈페이지, “www.iksan.go.kr/wg/index.iksan” (2022.03.15. 검색).



## 5) 계양산성박물관

### □ 박물관 개요

- 계양산성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산성전문박물관으로 시대 흐름에 따른 전국 산성의 종류와 분포현황과 함께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주요 유물을 전시
  - 산성역사실, 계양산성실 2개의 전시실에서 상설전시
  - 선사시대 이래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시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강좌 및 체험교실, 유적 답사 등 프로그램 운영

[표 4-5] 계양산성박물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콘텐츠 유사성	세계유산 기반	유적 내 입지	
기준	○	X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1</li> <li>• 2020년 개관(공립박물관)</li> <li>• 연간 관람객 : 7,438명</li> </ul>			
소장품	2,132점(도토, 금속, 지류 등)			
공간구성 (연면적 : 6739m <sup>2</sup> )	실내	전시실	565m <sup>2</sup>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95m <sup>2</sup>	-
		교육실	167m <sup>2</sup>	세미나실 및 강당
		그 외	158m <sup>2</sup>	자료·도서실(25), 사무실(58), 매점(75)
		실외 주차장	-	20대

자료: 계양산성박물관 홈페이지. "museum.gyeyang.go.kr" (2022.03.15. 검색).

### □ 조직체계 특성

- 학예직으로 추정되는 인력은 총 2명이며, 각각 전시와 유물관리 담당<sup>21)</sup>
- 박물관교육 담당 학예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운영
- 자원봉사자가 361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21) 계양산성박물관은 홈페이지에 조직도가 게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파악하기 어려움.

## 6) 한양도성박물관

### □ 박물관 개요

- 한양도성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자료실 및 학습실을 갖추고 있음
  - 상설전시실1에는 한양도성 축소모형과 영상, 디지털 순성 체험코너 등 제공
  - 상설전시실2와 3에는 각각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이후 한양도성의 역사를 전시
  -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기획전시 개최와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표 4-6] 한양도성박물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콘텐츠 유사성	세계유산 기반	유적 내 입지
기준	O	X	O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li> <li>• 2014년 개관, 2016년 재개관</li> <li>• 도성 전문 연구센터로서 한양도성의 가치를 알리는 전문 박물관 기능 수행</li> </ul>		
소장품	돈의문 현판(1749년 제작), 흥인지문에 올려졌던 용두와 잡상 8점 등		
공간구성 (연면적 : 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로비 및 상설전시실1</li> <li>• 2층 기획전시실, 학습실, 자료실</li> <li>• 3층 상설전시실2, 상설전시실3</li> <li>• 주차시설 : 소형 10대 이내</li> </ul>		

자료: 한양도성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seoul.go.kr>” (2022.03.15. 검색).

### □ 조직체계 특성

-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운영,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음
- 학예업무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주관하고 있고, 한양도성박물관에 배치된 인력은 이를 관리하는 데 투입
- 건물 이전과 전시 개편, 운영 체계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음

### 3 유사 규모 박물관의 인력 현황 비교·분석

#### 1) 건축 면적 기준 유사 규모 박물관 인력구성

#####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건축 연면적이 유사한 박물관의 인력 운용 실태 파악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시설 규모가 유사하다는 것은 전시를 기획하고, 소장품을 관리하는 영역의 업무량이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건립 연면적 2,963㎡와 유사한 2,450~3,450㎡ 범위 안에 있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인력구성 현황을 조사
- 분석데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추출해 객관성을 확보
  - 인력 구성은 크게 학예직과 일반직으로 나누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인력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으므로, 정규직과 공무직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인턴과 자원봉사자는 필요에 따라 모집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본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음

#####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시설 규모가 유사한 박물관의 평균 인력은 학예직 8명, 일반직 6명으로 분석

- 분석대상 박물관 7개소의 평균 인력을 산출한 결과 학예직 8.14명, 일반직 6.29명으로 도출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박물관이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관람객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
- 유적 기반 박물관의 약 33%는 발굴된 유적의 보존이라는 목적하에 최소 기준으로 박물관을 설립한 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없이 운영되는 실정<sup>22)</sup>
- 특히,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세계유산의 가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과 더불어 국제교류를 위한 인적자원도 확보 필요

22) 임효진(2021). 『유적박물관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따라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이 세계문화유산을 알리고 관리하는 박물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보다 많은 인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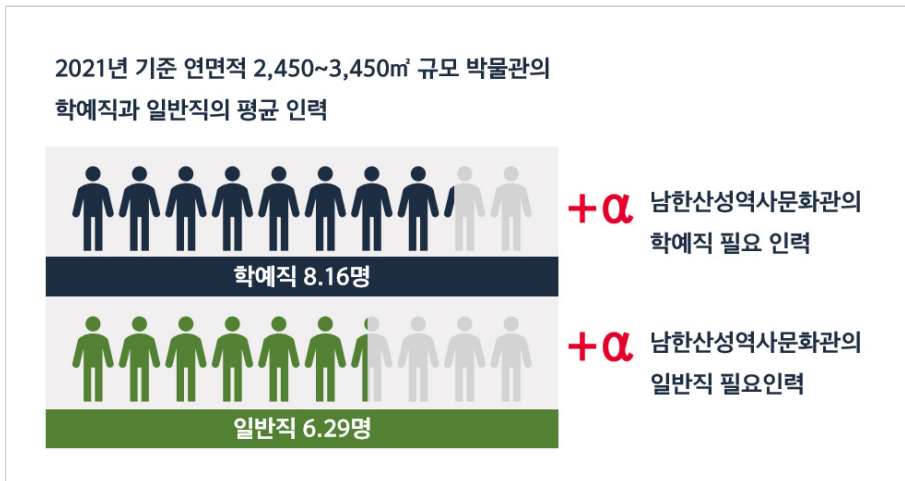
[표 4-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사 규모(건축면적) 박물관의 인력 현황

(단위 : m<sup>2</sup>, 명)

박물관	지역		설립구분	연면적	학예직	일반직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	북구	공립	2,479	9	8
실학박물관	경기	남양주시	공립	2,994	10	13
용인시박물관	경기	용인시	공립	2,970	5	7
화성시 역사박물관	경기	화성시	공립	2,961	7	3
원주시역사박물관	강원	원주시	공립	3,394	13	5
예천박물관	경북	예천군	공립	2,949	9	3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경남	진주시	공립	2,490	4	5
<b>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유사한 시설 규모의 박물관 평균 인력</b>					8.14	6.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그림 4-8]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사 규모 박물관(건축면적)의 평균 인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 2) 관람객 수 기준 유사 규모 박물관 인력구성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연간 (예상) 관람객 규모와 유사한 박물관의 인력 운용 실태 파악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보존하고 전시와 교육·체험 등을 통해 남한산성이 가진 인류문화 유산으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될 예정임
  - 따라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전략이 여러 방면에서 필요하며, 그 결과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시설 규모가 유사한 여타의 박물관보다 연간 관람객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
  - 관람객에게 전시·교육 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에 학예·연구·교육·관리·행정·서비스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며, 관람객이 증가할수록 필요 인력의 규모 역시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
  - 남한산성 항공 관람객을 토대로 추정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관람객은 [표 4-8] 과 같이 개관 후 5차년도에는 357,912명으로 예측

[표 4-8]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연간 예상 관람객 수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관람인원			비고
	무료	유료	계	
개관 후 1차년도	140,000	178,000	318,000	'16년 남한산성 항공 관람객×3배
개관 후 2차년도	144,200	183,340	327,540	연 증가율 약3% 산정
개관 후 3차년도	148,526	188,840	337,366	연 증가율 약3% 산정
개관 후 4차년도	152,982	194,505	347,487	연 증가율 약3% 산정
개관 후 5차년도	157,571	200,341	357,912	연 증가율 약3% 산정

주 : '16년 남한산성 항공 입장객 현황을 토대로 산정.

자료 : 경기도(2018). 『2018년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 불임자료 참조.

- 이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간 관람객 규모가 유사한 박물관의 인력 운용 사례를 조사하여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적정 인력수를 추정하고자 함
  - 다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 박물관에서 관람객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임
  -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박물관이 정상 운영된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준으로, 연간 관람객 규모가 25~35만 명 내외인 곳을 대상으로 함
- 분석결과,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간 관람객 규모 면에서 유사한 기관의 학예직 평균 인력은 14.57명, 일반직 인력은 21.14명인 것으로 도출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람객이 집중될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필수 인력확보 필요
  - 축제와 방학, 단풍 기간 등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단기 기간제 인력 고용과 인턴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등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
  - 특히 관람안내와 청소, 경비, 주차 등의 기본 서비스 영역의 필요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관람객 급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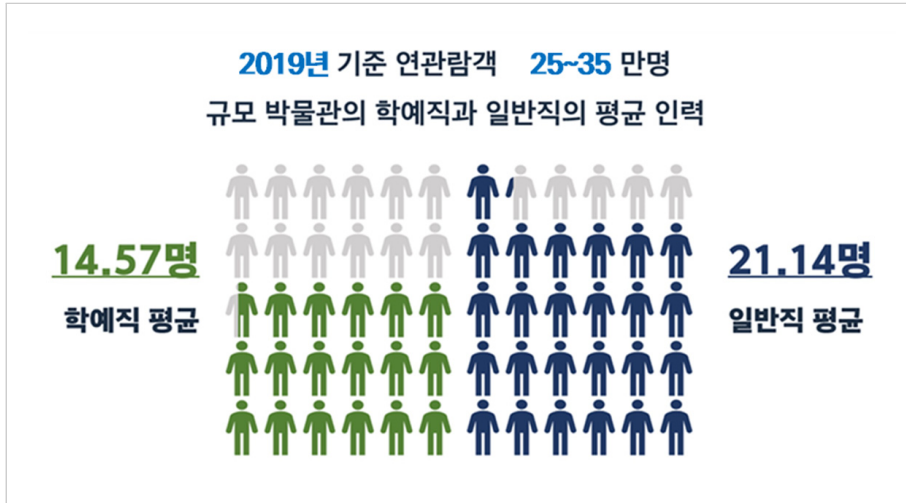
[표 4-9]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사 규모(관람객 수) 박물관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박물관	지역		설립구분	연간 관람객	학예직	일반직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	서대문구	공립	356,179	5	15
경기도박물관	경기	용인시	공립	256,125	20	26
수원화성박물관	경기	수원시	공립	368,569	15	13
한국만화박물관	경기	부천시	공립	260,571	4	21
국립춘천박물관	강원	춘천시	국립	248,461	28	44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진주시	국립	293,949	22	21
대성동고분박물관	경남	김해시	공립	348,384	8	8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제주시	국립	342,891	17	26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유사한 관람객 규모의 박물관 평균 인력					14.57	21.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그림 4-9]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사 규모 박물관(관람객 수)의 평균 인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 05

## 운영 및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3.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4. 관광 활성화 방안
5. 교통 개선방안



## 제5장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1 기본방향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개관 이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탄력적 인력 운영이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
  - 남한산성은 연간 약 3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라는 점에서 단순히 건물 규모만을 고려한 인력구성으로는 서비스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기별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검토 필요
  - 또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운영 지속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핵심 인력(전시, 유물, 교육 등)의 배치가 중요
-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최근 문화재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산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남한산성과 관련된 민속체험 프로그램, 초등 및 중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남한산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 관광상품, 투어패스 등 도입
  - 남한산성 XR 투어버스 상품 개발로 신규 방문객 유치
  - 남한산성 패스(가칭)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 등 주변 관광지, 체험시설,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 연계
- 남한산성의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 셔틀버스 도입
  - 남한산성 남문주차장의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 좌회전 진입 금지의 보완 대책으로 회전교차로 추가설치, 주차장 안내표지 교체
  - 성곽 외부 주차장과 산성리를 운행하는 수요대응형 셔틀버스 운행으로 남문주차장 주변 차량 혼잡 완화 기대

## 2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은 전문성을 갖춘 담당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역사문화관 관장 직무를 세계유산활용팀장이 겸임하거나, 역사문화관팀을 신설하여 팀장을 ‘개방형 직위 임기제’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채용한다면 박물관 운영, 세계유산, 문화재 보존 등 관련 분야 전공자나 실무 경력자를 채용
  - 현재 직제상 별도의 관장 채용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핵심과제로 지속 추진 필요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남한산성 행궁 관리와 통합한 운영조직이 필요
  - 운영조직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행궁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 남한산성 행궁 대표소와 기념품샵 인력은 역사문화관 대표소 및 기념품샵 인력과 통합적으로 관리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담조직은 센터 세계유산활용팀과 별도 팀으로 구성하고, 총괄 학예연구사를 포함해 전시·교육·유물관리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필요
  - 총괄 학예연구관(1명), 전시·교육·유물관리 담당 학예연구사(2명)와 더불어 홍보 및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행정직 1명을 핵심 인력으로 구성
  - 이와 더불어 시설 인력과 안내 인력은 교대 여건을 고려하여 각각 5~9명 정도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 또한, 박물관 도슨트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
    -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센터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대표소, 안내 등 단순 업무의 경우는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향후 역사문화관을 포함한 남한산성 관광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유산활용팀 내 전문인력 2~3인 신규 배치 검토 필요

□ (인력구성) 남한산성 역사문화관팀(가칭) 신설로 최소 14명 증원 필요

○ 총 21명(일반직 1명, 학예직 3명, 공무원직 14명, 청원경찰 3명)으로 구성

[표 5-1]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인력구성(안)

분야		현인원 (세계유산 활용팀)	소계	세계유산 활용팀	역사 문화관팀 (가칭)	추가 소요인력	비고
계		10	24	3	21	14	
1. 일반 및 학예	팀 총괄 (행정/시설)	1 (행정/시설)	2	1 (행정 5급)	1 (학예연구관)	1	팀장 (순증 1)
	학예 (전시,유물,교육)	2 (학예연구사)	3	1 (학예연구사)	2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사 (이체 1, 순증 1)
	행정 (문화행사,홍보 등)	1 (행정6급)	2	1 (행정6급)	1 (행정6급)	1	행정 (순증 1)
2. 시설	시설 관리 (총괄)	1 (시설6급)	1	-	1 (시설6급)	-	활용팀 (이체 1)
	소규모 수선 등 시설물 관리	-	1	-	1	1	공무원 (순증 1)
	청소 등 미화	-	2	-	2	2	공무원 (순증 2)
	소방 등 관리 (냉난방, 전기, 방재)	-	1	-	1	1	공무원 (순증 1)
3. 안내	방문자센터 (현재 1개소 운영중)	1	1	-	1	-	공무원 (이체 1)
	기념품숍 (현재 1개소 운영중)	2	2	-	2	-	공무원 (이체2)
	매표소 (현재 1개소 운영중)	2	4	-	4	2	공무원 (이체 2, 순증 2)
	안내데스크 운영 및 도슨트 관리	-	2	-	2	2	공무원 (순증 2)
4. 보안	방호 (청원경찰)	-	3	-	3	3	청원경찰 (순증 3)

주 : 소계는 세계유산활용팀 및 역사문화관팀(가칭)의 총인원.

자료 : 연구자 작성.

- (학예 및 일반) 최소한의 인력 대비 적정 수준에서 기본 운영 프로그램 계획 필요
  - 4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건축 면적이 비슷한 박물관의 인력구성은 학예직 평균 8.16명, 일반직 평균 6.29명으로 도출
    - 하지만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학예직 3명(팀장 포함), 일반직 1명으로 구성
  - 인력구성(안)에 따른 인원으로 기본적인 운영·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운영 초기에는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등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다만, 최근 박물관 이용실태를 고려해볼 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웃소싱 등 추가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특히, 학예연구사 2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계획된 전시·교육·유물관리 분야는 단계적으로 각 분야에 1명 이상 배치되도록 증원 추진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성과문화에 특화된 전문박물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대가 중요
- (시설 및 안내) 매표 및 안내 업무는 통합 운영하고, 키오스크 도입 검토
  - 역사문화관 안내직은 매표소, 안내, 기념품 등 판매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관리계획 수립 필요
    - 매표업무와 안내 업무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시설 및 안내 업무인력 운영의 효율성 개선 가능
    -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 외에 다수의 방문객이 매표 시 키오스크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되어 매표업무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도슨트) 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고, 고정인원 배치 근무 시행
  - 문화관광해설사의 개인별 역량 차이를 고려할 때, 순환근무 방식보다는 고정인원 배치 근무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문화관광해설사의 순환근무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해설 프로그램의 다양화(해설시간, 해설범위, 해설내용 등)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역사문화관 개관 시 배치되는 인원의 역량강화교육은 개관 이전에 진행 필요
  - 매표 및 안내요원의 집중교육을 통해 예비 도슨트 확보도 고려

### 3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 1) 전시콘텐츠

##### □ 남한산성 디지털 헤리티지<sup>23)</sup> 제작 및 활용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소장품, 남한산성 내 지정문화재 13개소와 성안마을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하여 AR/VR 콘텐츠로 활용
  - AR/VR기술을 활용한 역사문화관 전시실을 온라인으로 구현
  - 남한산성 내 문화재의 3D 모델링과 AR/VR 적용으로 그 속에 담긴 서사를 실감경험
  - 남한산성과 성안마을에 담긴 백성들의 이야기를 ‘AR 스퀘이프’로 제작
- 수원시는 문체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원화성 내 12개 시설물에 대한 AR/VR 모델링 작업을 진행
  - 디지털 자료는 통합관광플랫폼에 연계되어 관광객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원화성 내 문화재에 대해 3D건축과 가상/증강현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그림 5-1] 수원화성 디지털 헤리티지 제작과정

#### 디지털 헤리티지 제작

**"12개 시설물에 대한 AR/VR 모델링 작업 진행"**

팔달문	AR / VR / 오디오가이드
방화수류정	AR / VR / 오디오가이드
서북공심돈	AR / VR / 오디오가이드
화서문	AR / VR / 오디오가이드
복암문	AR / 오디오가이드
녹로	AR / 오디오가이드
가중기	AR / 오디오가이드
사월	AR / 오디오가이드
타	AR / 오디오가이드
포월	AR / 오디오가이드
오성지	AR / 오디오가이드
철형여장	AR / 오디오가이드

#### VR360 무예24기 촬영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참조.

23) 디지털헤리티지(Digital Heritage)란 문화유산 전문지식과 첨단 ICT 및 콘텐츠 융합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을 연구·보존·전시·관리·기록 및 보급하는 것까지 지칭함.

## □ 남한산성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프로젝션 맵핑<sup>24)</sup> 형태의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 남한산성의 관광 성수기인 가을철(9월~11월)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쇼 개최하고, 상설 콘텐츠화 추진
  - 아트 쇼의 특성상 야간 관람객 비중이 높으며, 야간 시간대 식음료업, 기념품 구매 등 부가적인 관광수입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남한산성 행궁 주련에 있는 구절인 ‘강구연월(康衢煙月) : 남한산성이 꿈꾼 세상’을 주제로 미디어아트 스토리 구성하여 남한산성의 상징성을 강화
  - ‘강구(康衢)는 사통오달의 큰길로서 사람의 왕래(往來)가 많은 거리, 연월(煙月)은 연기(煙氣)가 나고 달빛이 비친다’라는 의미
- 향후 역사문화관 미디어아트뿐만 아니라 시연 장소, 기법, 스토리 등을 다양화하여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
  - 경기관광포털 및 유튜브 채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등에 홍보
- 유사사례로는 수원화성문화제 화홍문 미디어파사드(정조 미래의 빛), 경복궁 야간기행 경희루 미디어파사드 등이 있음

[그림 5-2] 남한산성 미디어아트 쇼 예상도



자료 : 경기도(2020). 『2021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참조.

24)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은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임.



## 2) 교육·체험 프로그램

### □ 민속체험 프로그램 개발

#### ○ 남한산성 소재 민속자료 활용방안

- 역사문화관 내 영상관에서 남한산성 전래 전통음식 및 의례 관련 영상 자료를 상영
- 관내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남한산성 소주 활용 프로그램,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기 소리 체험, 남한산성 축성 체험, 장승 만들기 체험 개발 가능
- 병자호란 및 효자 관련 설화 유적에 안내판을 설치

#### ○ 남한산성 소주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역사문화관 야외공간에 전통음식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남한산성 소주의 특징 및 제조 과정을 소개하고, 소주 제조 도구 전시, 소주 제조 체험 등을 진행

[그림 5-3] 양동마을 전통주 제조 체험 사례



자료 : 경북투어마스터. “www.orderect.com/” (2022.03.10. 검색).

#### ○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기 소리 체험 진행

- 역사문화관 야외공간에 ‘집터 다지기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체험용 지정목으로 체험 지도사가 ‘집터 다지기 소리 체험’을 진행
- 체험용 지정목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용으로 제작

#### ○ 남한산성 축성(築城) 체험 진행

- 역사문화관 야외공간에 축성 체험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축성 도구를 배치
- 방문객 대상 거중기(擧重機), 녹로(轉轡), 평거(平車) 및 대거(大車) 체험을 진행

- 체험지도사의 교육을 받은 뒤 방문객들이 거중기 및 평거 조립 체험을 진행

[그림 5-4] 해미읍성 축성과정 체험



자료 : 해미읍성 축제 홈페이지, “www.haemifest.com/” (2022.03.10. 검색).

○ 장승 및 솟대 만들기 체험 진행

- 역사문화관 야외공간에 장승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체험지도사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승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 등을 강의
- 장승 얼굴 그리기 및 미니 장승 조각하기를 체험하고, 솟대 만들기 체험도 진행

□ 초등 및 중학생 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서 배우는 사회·과학 과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소재 초등학교·중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 홍보

[표 5-2] 초등 및 중학교 교과 연계 프로그램 예시

학년 및 과목	주요 내용
3학년 1학기 사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과 산성리의 사계절
3학년 2학기 사회	〈생활 도구의 발달〉과 산성리 사람들의 전통 생활 도구
5학년 1학기 사회	〈자연 환경을 이용한 생활〉과 산성리 사람들의 농사 도구
5학년 2학기 사회	〈조상들의 멋과 슬기〉와 산성리의 세시풍속
6학년 1학기 사회	〈문화의 발달과 백성들의 생활 모습〉과 산성리 사람들의 생활 변화
3학년 2학기 과학	〈빛의 나아감〉과 남한산성 봉수대
4학년 1학기 과학	〈혼합물 분리하기〉와 산성리 전통 두부 만들기 체험
6학년 2학기 과학	〈편리한 도구〉와 남한산성 축성 체험
중학 1학년 사회	〈중부지방과 생활〉과 산성리 사람들의 생활 변화

자료 :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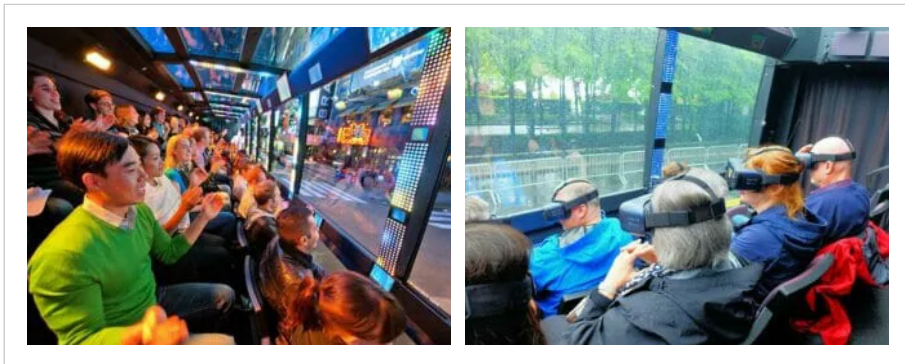
## 4 관광 활성화 방안

### 1) XR 투어버스 운영

#### □ 남한산성 XR 투어버스 도입을 통해 관광상품화 추진

- 남한산성 내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체험이 가능한 투어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도심에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방문객들에게 남한산성의 역사에 대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문화관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특히 남한산성에는 곳곳에 산재한 유산·유적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체험하는 버스투어를 통해 남한산성의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을 것임
- 미국의 '다운타운 익스피리언스(THE Downtown Experience)'는 뉴욕 '더 라이드' 버스투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투어 프로그램 중 하나
  - 극장식 버스투어 '더 라이드(THE RIDE)', 관광형 버스투어 '더 투어(THE TOUR)', 가상현실 버스투어 '다운타운 익스피리언스(THE Downtown Experience)'로 구성
- '다운타운 익스피리언스'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맨해튼의 역사와 기념물들의 과거 모습, 그리고 역사적 순간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
  - 예를들어, 1789년 조지 워싱턴의 취임식까지 시간여행이 가능하도록 경험 제공

[그림 5-5] 뉴욕 더 라이드(THE RIDE) 버스투어



자료 : 더 라이드. "www.experiencetheride.com/" (2022.03.10. 검색).

## 2) 남한산성 패스(가칭) 개발 및 운영

### □ 남한산성 연계 투어패스 개발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남한산성 행궁 등의 남한산성 내 관광지(유료)와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등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주변 관광지, 체험시설,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을 결합한 ‘남한산성 패스(가칭, 이하 생략)’ 개발
  - 투어패스(Tour Pass)는 특정 지역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해 지정된 시간 동안 무료입장 및 이용, 할인, 교통기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정대영 외, 2021)
  - 투어패스는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신규 방문객 유치 및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도입 초기에는 이용시간 내 최대 입장 가능한 관광지 수를 제한하는 Big3, Big4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
  - 이용시간은 패스권 유형에 따라 24시간, 48시간 등으로 구성
  - 관광객이 모바일 기기 하나로 구매·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검표시스템 구축 필요
- 단순히 이용 가능한 관광지 수만 늘리게 된다면 상품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관광객 동선과 여행컨셉에 맞추어 개발해야 함
  - 최근 개별여행객(FIT)은 개별여행의 장점(자유로운 여행계획)과 단체여행의 장점(여행 관련 정보제공)을 둘 다 추구하는 경향을 고려
- 광역투어패스는 보통 1박 이상의 체류시간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 숙박, 음식점 등의 제휴할인 가맹점 확보가 상품 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남한산성 주변 숙박시설(관광호텔, 캠핑장 등)을 제휴할인 가맹점으로 연계하거나 투어패스를 각 업소에 제공해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카페 및 음식점의 경우도 모바일 검표 문제로 할인 제휴가 효과적

### □ 남한산성 패스의 벤치마킹 모델로 ‘금강백제권역투어패스’이 적합

-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sup>25)</sup>’으로 연결된 대전/공주/부여/익산 4개 지자체의 주요 관광지들을 묶어 ‘금강백제권역투어패스’를 판매(2022년 현재 판매종료)

2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의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활성화 사업임.

- 금강백제권역투어패스 포함시설은 다음과 같음
  - 대전(오월드,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엑스포, 성심당), 공주(한국자연사박물관, 이안숲속, 노라쥬), 부여(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백제문화단지, 구드래나루터), 익산(보석박물관, 달빛소리수목원, 실내양궁카페, 액션하우스)
- 문화재를 비롯하여 대상 지역 내 다양한 카테고리의 관광지(박물관, 액티비티, 체험시설 등)들이 포함되어 있어 남한산성 패스와 유사한 조건임

[그림 5-6] 금강백제권역투어패스 사례



자료 : 야놀자 홈페이지. “<https://www.yanolja.com/leisure/64638>” (2022.03.10. 검색).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 중에서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투어패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수원화성 관광특구가 선정되어 스마트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세부사업 중 ‘행궁마을 Pass’가 포함
  - 행궁마을 Pass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판매되던 수원화성 일대 다양한 관광상품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패스로서 약 150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 예정
- 남한산성 패스(가칭)도 행궁마을 Pass와 같이 글로벌 OTA 대상 마케팅을 추진한다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5) 교통 개선방안

### 1) 남문주차장 인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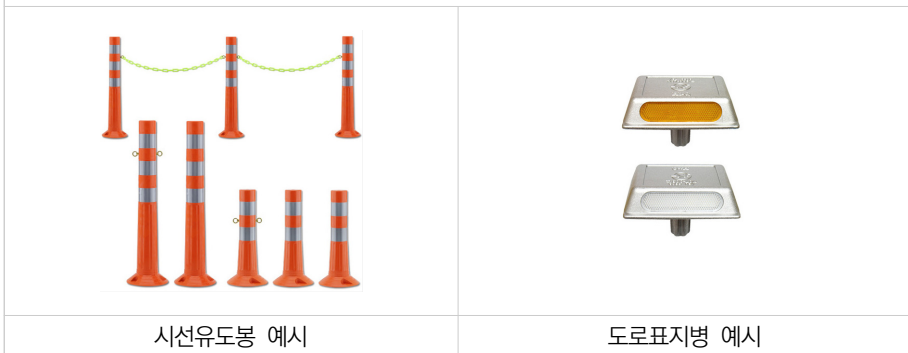
- 남문주차장 진입 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를 제안
- 남한산성 내부 교통체계는 류시균 외(2016)가 제안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대부분이 시행되어 과거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짐
- 그러나 남문주차장 좌회전 진입 대기 차량으로 인한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2) 셔틀버스 운행은 시행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남문주차장 좌회전 진입 대기 차량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좌회전 진입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
- 남문주차장으로의 좌회전 진입을 금지하기 위해 중앙선 절선을 연결(실선으로 변경)하고 일정 구간 시선유도봉을 설치함(좌회전 진입 차량은 산성로터리를 경유해서 우회전으로 진입 가능)
- 남문주차장 진출입부 계획(안) 및 설치시설물은 [그림 5-7]과 같음



[그림 5-7] 남문주차장 진출입부 계획(안) 및 설치시설물



남문주차장 진출입부 계획(안)



자료 : 연구자 작성; 네이버 쇼핑 비전세이프티. "<https://smartstore.naver.com/visionsafety>"; 세이프넘버원. "<https://www.safeno1.com/>" (2022.03.2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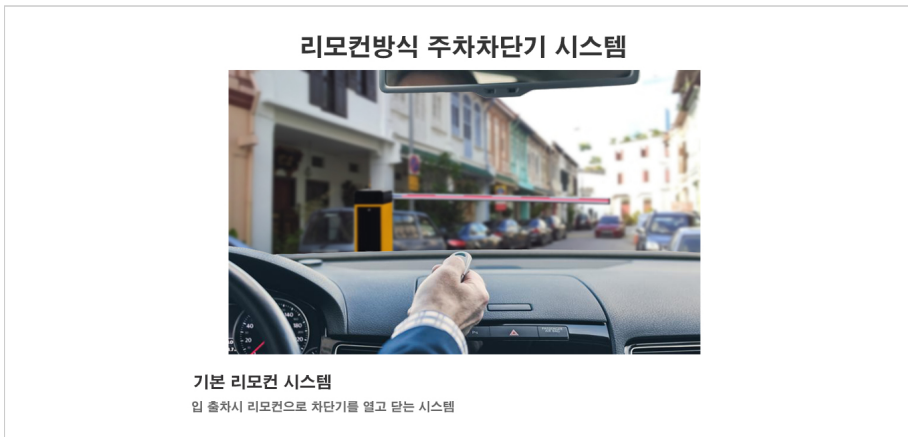
- 또한, 남문주차장 만차 시 차단봉 위치를 지방도 342번에 인접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
  - 남문주차장 만차임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우회전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차단봉을 설치함(차단봉은 요금징수원이 주차안내소에서 원격으로 작동 가능 필요)

[그림 5-8] 남문주차장 만차 차단봉 설치 예시



자료 : 연구자가 현장촬영 후 이미지 작업.

[그림 5-9] 리모컨 방식 주차차단기 시스템 예시



자료 : 네이버쇼핑. "https://smartstore.naver.com/honorskorea" (2022.03.28. 검색).



- 남문주차장 좌회전 진입 금지의 보완 대책으로 회전교차로 추가설치, 주차장 안내 표지 교체를 제안
  - 남문주차장 만차 시 성내 및 성외 다른 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회차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산성 역사기념관 앞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앞 교차로 계획(안)은 [그림 5-10]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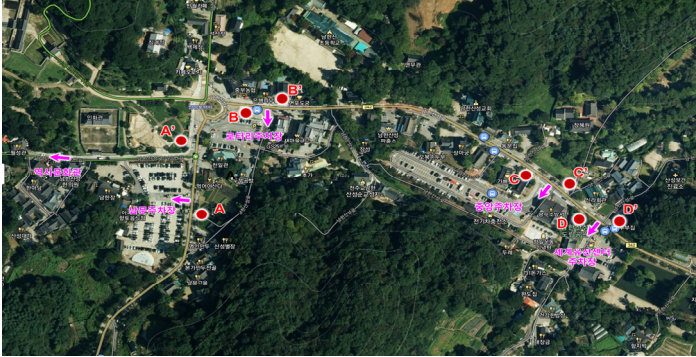
[그림 5-10]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앞 교차로 계획(안)



자료 : 연구자 작성.

- 기존 안내표지 중 시인성이 불량한 주차장 안내표지를 시인성이 양호한 신규 안내표지로 교체
  - 남문주차장~센터주차장 구간
  - 동문주차장~검복리주차장 구간
- 신규 안내표지판 위치 및 도면은 각각 [그림 5-11], [그림 5-1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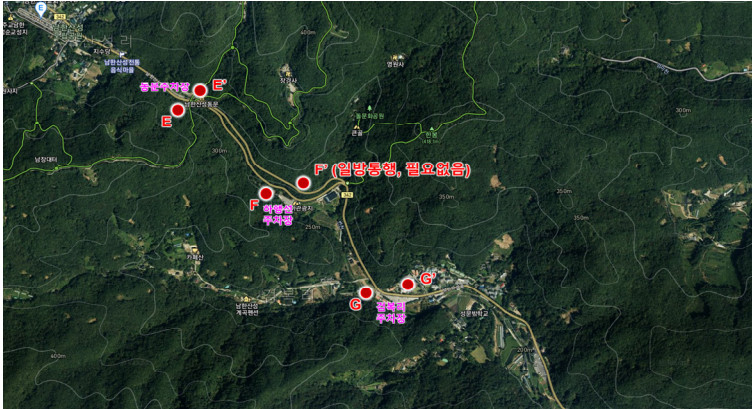
[그림 5-11] 신규 안내표지판 도면(남문주차장~센터주차장 구간)



A	A'
B	B'
C	C'
D	D'

자료 : 연구자 작성.

[그림 5-12] 신규 안내표지판 도면(동문주차장~검복리주차장 구간)



E	E'
F	F' (일방통행, 필요없음)
G	G'

자료 : 연구자 작성.

## 2) 성외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 성외 주차장과 산성리(역사문화관 소재지)를 운행하는 셔틀버스(12인승)를 성수기와 주말에 탄력적으로 운행
  - 성내 주차장이 모두 만차가 되는 주말 및 성수기에 성외 주차장과 남한산성을 왕복하는 ‘수요대응형 시내버스’ 운영을 제안
    - 성외 주차장과 남한산성 성내 간을 연결하는 안전한 보행 시설(보도)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시내버스 역시 시간당 1대 수준에 불과해 적절한 연계교통수단의 제공 없이 성외 주차장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성외 주차장과 남한산성 성내를 왕복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며, 셔틀버스는 수요대응형 시내버스(수요가 있는 시간대와 노선을 운행하는 부정기적 시내버스)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성외 주차장이 모두 행정구역상 광주시에 위치하므로 역시 광주시가 인·면허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기반으로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 경기도형 수요응답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시범사업 선정된 사례가 있음
    - 수요대응형 시내버스 운영사례는 [그림 5-13]과 같음

[그림 5-13] 파주시 수요대응형 시내버스 운영사례

<p><b>경기도형 DRT 시범사업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 편의성, 효율성, 공공성이 확보된 준공영제 대안모델 필요</li> <li>• 경기도형 DRT 특징 :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적용 등</li> <li>• 면허체계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 5년(+4년)</li> <li>• 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 수행능력 및 가격평가(지역 내 버스/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가감점 부여)</li> <li>• 재정지원 : 운송비용(협약원가+연료비)과 운송수입의 차액(예산범위 내)</li> </ul> <p><b>경기도형 DRT 시범사업 추진경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6월 : “경기도형 수요응답버스(DRT) 시범사업” 공모</li> <li>• 2021년 7월 : 운정 3지구 중심 경기도형 DRT 시범사업 최종 선정</li> <li>• 2021년 9월 : 2021년 경기도형 DRT 시범사업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li> <li>• 2021년 10월 : 총 7개사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li> <li>• 2021년 현재 : 12월 목표 운송 개시 준비</li> </ul>	<p><b>경기도형 DRT 시범사업 선정</b></p> <p>어디든 찾아오는 버스 경기도형 수요응답버스(DRT) 도입</p> <p>파주시 DRT</p> <p>운정 신도시, 어디든 찾아오는 버스 시범사업 선정</p>
--	---

자료 : “파주, 12월부터 수요응답버스(DRT) 달린다 - 경기도 최초, 시로 실시간 원하는 노선 만들어 운행-”, 파주뉴스(2021.11.01.).

# 06

##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배경) 남한산성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남한산성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전시 및 수장시설을 갖춘 박물관이 부재하였으나,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추진
  - 그동안 출토된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토지주택박물관 등 발굴기관에서 보관
    -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유물 공개구입 추진
  - 또한,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질의에 대해 박물관 건립을 확약
- (목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은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성과연구 특성화를 통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
  - 경기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건립 중(2023년 개관 예정)
  - 남한산성 유물의 전시·교육·유물 관리의 기능 수행과 축성기법, 축성역사 등 성과연구 특성화 필요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전시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관련 유적·유산, 민속문화 등과 연계한 ‘오픈 에어 뮤지엄’을 지향
- (조직 및 인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내 역사문화관팀(가칭)을 신설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와 남한산성 방문객 규모를 고려한 탄력적 인력운영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축연면적(2,963㎡) 및 관람객 수(추정치 기준, 연간 25~35만명)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박물관 인력 현황을 비교분석
  -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건축연면적 기준 학예직 8.14명, 일반직 6.29명, 관람객 수 기준 학예직 14.57명, 일반직 21.14명으로 산출
  - 다만, 현재 운영관리 주체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인력(17명)을 고려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유사 규모 박물관 수준의 증원(정원 기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초기 인력구성은 총괄(학예직) 1명, 전시·교육·유물관리(학예직) 2명, 행정(일반직) 1명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전문인력 증원 필요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현 직제상 역사문화관장의 별도 채용은 어려운 상황
  - 향후 전시·교육·유물관리 담당 학예사는 각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이 적합
- 역사문화관 내 매표소, 기념품숍 인력은 남한산성 행궁 인력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도슨트는 광주·하남·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
- (콘텐츠 및 관광 활성화) 남한산성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 XR 투어버스, 관광패스 도입 등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남한산성 유물, 문화재, 성인마을에 대한 디지털화(AR/VR 등)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남한산성역사에 대한 실감 경험을 제공
  - 남한산성 민속문화를 활용한 체험과 초·중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벽면 및 남한산성 내 역사적 장소를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도모
  -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인접 시와 연계한 남한산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한산성 (광역)패스를 개발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및 행궁을 포함한 주변 지역 관광지 3~4개 정도를 결합한 패스 개발로 신규 방문객 유치 및 체류시간 증대 유도(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제휴할인)
- (교통개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주변의 교통혼잡 해결 및 방문객 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및 수요응답버스(DRT) 도입
  - 남문주차장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좌회전 진입을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앞 회전교차로 신설
  - 시인성이 불량한 기존 교통안내 표지판의 개선
  - 성곽 외부 주차장과 남한산성면 산성리(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위치)를 운행하는 수요응답버스(DRT)를 운영하여 성내 주차 수요 분산
    - 본 연구의 방문객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차량소지자) 중 50.5%가 성곽 외부 주차장과 역사문화관 구간 셔틀버스 이용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바 있음



## 2 정책제언

###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장 겸임 및 남한산성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인력) 역사문화관 관장 직무를 세계유산활용팀장이 겸임하거나, 역사문화관팀장이 총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개방형 직위 제도' 혹은 '학예연구관 발령'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선임 추진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조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
  - 역사문화관 개관 목적 및 주요사업, 운영사항(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등), 운영위원회 구성, 대관 등 명시

### □ 남한산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사업 추진

- (단체) 남한산성을 주제로 시민참여형 역사·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모
  -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시, 체험, 공연,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 (개인) 남한산성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 남한산성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테마 체험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개발, 먹거리 상품 개발,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등 아이디어 공모

###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학술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네트워크) 남한산성 관련 연구기관과 업무협약 및 학술네트워크를 구축
  - 경기도 문화재 연구원, 경기도 내 관련 연구기관(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남한산성 역사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추진
- (홍보·마케팅)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역사문화관 SNS·유튜브 채널 활용
  - 센터 및 역사문화관 통합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
  - 경기도, 경기관광포털, 경기문화재단, 광주시 등 유튜브 채널에도 역사문화관 홍보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디지털화’ 및 남한산성 통합관광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인 ‘남한산성 DMO<sup>26)</sup>(가칭)’를 육성
  - (단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온라인 전시 및 교육, AR 도슨트 운영 등 박물관 디지털화 사업 추진
  - (중장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관람 및 남한산성 관광 정보, 남한산성 디지털 헤리티지, 남한산성 패스 등 관광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방문객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남한산성 통합관광플랫폼(가칭)’ 구축
  - 이를 위해 국비 지원사업을 통한 관련 예산확보 방안 검토
    - 박물관 디지털화 :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지원 사업’ 등
    -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 (지역관광추진조직) 남한산성 내 사업체, 협의체, 주민조직 등이 참여하여 지역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는 ‘남한산성 DMO(가칭)’를 육성
    - DMO의 중점 기능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및 역사문화관 관련 관광사업 기획 및 계획,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자원 관리, 관광산업 지원, 관광품질 관리임
    -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 공모 추진
    - 다만, 단일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광주시’에 위치한 단체 설립 또는 연계 필요(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협력 검토)
- 남한산성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수요응답버스(DRT) 시범사업 추진
  - 남문주차장 중앙분리대, 주차 차단기 등 설치, 교통 안내표지판 교체, 역사문화관 앞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위한 예산확보 검토
    - 역사문화관 앞 회전교차로 설치 건 추진 시 설계변경 검토 필요
  - 역사문화관-성외주차장 구간 대상 광주시 수요응답버스(DRT) 시범사업 추진
    - 광주시가 남한산성 노선에 대해 ‘경기도형 수요응답버스(DRT) 시범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요청·협의

26) DMO는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의 약자로 지역관광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최근에는 마케팅 조직에서 더 나아가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운영·관리하는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지칭하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음.

## 참고문헌

- 경기도(2020).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제안설명서”.
- 경기도(2017).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 기본계획』.
- 경기도(2018). 『2018년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
- 경기도(2020). 『2021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 경기도(2022). “2022 경기도 업무보고”.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2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일반현황”.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19).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 I』.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2017).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 기본계획』.
- 경기도 내부자료(2021). “경기도 뮤지엄 현황”.
- 경기연구원(2022). “남한산성 방문실태 및 역사문화관(가칭) 건립에 관한 인식조사”.
- 국토교통부(2021). 『2021년도 국토교통 통계연보』.
- 김병국(2011).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학위논문.
- 김원길(2021). “박물관 전시디자인 연출유형 및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 회논문집』. Vol.16. No.4. pp. 395-407.
- 김현경(2017).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연구-포용적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흥규·노수경·손유진·강문영·김수빈·김민정(2020).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 김흥규(2021). 『국공립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반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부자료(2015). “2015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부자료(2018). “2018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부자료(2020). “2020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부자료(2021). “2021년도 탐방객조사 종합결과 보고”.
- 노영우(2006). “박물관 및 미술관 홍보조직 진단 및 발전 방안 제언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 - 우수홍보조직 모델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류시균·이현우·이수진·유재상·손주희·전유나(2016). 『남한산성 도립공원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경기연구원.
- 문화재청(2018). 『세계유산등재신청안내서』.

- 문화체육관광부(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영완·백정현·이정석·박진우(2014).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관리 방안 연구』. 고양시.
- 박재영(2014). “디지털박물관 전시콘텐츠 스토리텔링 연구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전시콘텐츠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33, 149-183.
- 박제광(2018). “남한산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건립 전략”. 『남한산성 연구총서』. 9, 172-203.
- 수원시 내부자료(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 신종진·정지혜(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한국학』, 36(4), 59-96.
- 엄서호(2011). “유산관광 활성화에 대한 주민태도-수원화성 복원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5), 13-36.
- 이수진·전유나(2014). 『남한산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임채진·홍승일(2015).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국립중앙박물관.
- 홍승일 외(2016). 『서울공예박물관 소장품 수집·전시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 Li, Xian-Shu (2018). “Case of Shenyang Imperial Palace Museum”. 『남한산성 연구총서』. 9, 68-77.
-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 (2022.3.25. 검색).
-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https://gbms.gg.go.kr/ggbms.jsp>” (2022.02.23. 검색).
-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www.gbis.go.kr](http://www.gbis.go.kr)” (2022.03.03. 검색).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ggc.ggcf.kr>” (2022.02.11. 검색).
-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m.cultureline.kr/](http://m.cultureline.kr/)” (2022.03.31. 검색).
- 경북투어마스터. “[www.orderect.com/](http://www.orderect.com/)” (2022.03.10. 검색).

계양산성박물관. “[museum.gyeyang.go.kr/](http://museum.gyeyang.go.kr/)” (2022.03.31. 검색).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2022.03.31. 검색).

국립진주박물관. “[www.youtube.com/c/JINJUNATIONALMUSEUM](http://www.youtube.com/c/JINJUNATIONALMUSEUM)”  
(2022.03.31. 검색).

국립해양박물관. “[www.knmm.or.kr/](http://www.knmm.or.kr/)” (2022.03.31. 검색).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go.kr](http://www.mmca.go.kr)” (2022.03.31. 검색).

광주시청. “<https://www.gjcity.go.kr>” (2022.02.11. 검색).

네이버 쇼핑 비전세이프티. “<https://smartstore.naver.com/visionsafety>”  
(2022.03.28. 검색).

네이버 쇼핑 아너스코리아. “<https://smartstore.naver.com/honorskorea>”  
(2022.03.28. 검색).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2022.03.03. 검색).

대한민국역사박물관. “[www.much.go.kr](http://www.much.go.kr)” (2022.03.31. 검색).

더 라이드. “[www.experiencetheride.com/](http://www.experiencetheride.com/)” (2022.03.10. 검색).

백제문화제. “[www.baekje.org/](http://www.baekje.org/)” (2022.03.31. 검색).

백제왕궁박물관. “[www.iksan.go.kr/wg/index.iksan](http://www.iksan.go.kr/wg/index.iksan)” (2022.03.15. 검색).

수원관광. “[www.suwon.go.kr/web/visitsuwon/index.do](http://www.suwon.go.kr/web/visitsuwon/index.do)” (2022.03.31. 검색).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 “[hsmuseum.suwon.go.kr](http://hsmuseum.suwon.go.kr)” (2022.03.15. 검색).

세이프 넘버원. “<https://www.safeno1.com/>” (2022.03.28. 검색).

시흥 오이도 박물관. “[oidomuseum.siheung.go.kr](http://oidomuseum.siheung.go.kr)” (2022.03.31. 검색).

야놀자. “<https://www.yanolja.com/leisure/64638>” (2022.03.10. 검색).

연천 전곡리 유적. “[www.yeoncheon.go.kr/seonsa/index.do](http://www.yeoncheon.go.kr/seonsa/index.do)” (2022.03.31. 검색).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worldheritagejpn.com/](http://worldheritagejpn.com/)” (2022.03.31. 검색).

한성백제박물관. “[baekjemuseum.seoul.go.kr](http://baekjemuseum.seoul.go.kr)” (2022.03.15. 검색).

한양도성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2022.03.15. 검색).

해미읍성 축제. “[www.haemifest.com/](http://www.haemifest.com/)” (2022.03.10. 검색).

행주산성. “[www.goyang.go.kr/haengju/index.do](http://www.goyang.go.kr/haengju/index.do)” (2022.03.31. 검색).

히메지 성. “[www.city.himeji.lg.jp/castle/](http://www.city.himeji.lg.jp/castle/)” (2022.03.31. 검색).

TMS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http://www.road.re.kr/main/main.asp>”  
(2022.03.03. 검색).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whc.unesco.org/” (2022.03.31. 검색).

“문화재청,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발표”, 문화재청(2021.06.16.).

“파주, 12월부터 수요응답버스(DRT) 달린다 - 경기도 최초, 시로 실시간 원하는 노선 만들어  
운행-”, 파주뉴스(2021.11.01.).

---

# Abstract

Namhansanseong was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s of 2014, and has emerged as a tourist attraction garnering 3 million visitors annually. In addition, the Namhansanseong History Center, which will be constructed for the exhibition, education, and management of relics related to Namhansanseong, is scheduled to open in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fficient operating plan for the Namhansanseong History Center and present a plan to develop and revitalize content in connection with Namhansanseong'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based on this. We established organizational design and human resource planning, content development plans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ourism revitalization plans, and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s through visitor surveys, field trips, and review of materials related to the Namhansanseong. The policy challeng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promote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s related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mhansanseong History Center. Second is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projects in order to develop or utiliz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of Namhansanseong. Third is a strategy to establish an academic research network of Namhansanseong History Center and strengthen online marketing strategies for Namhansanseong. Fourth is to promote the Namhansanseong History Center digitalization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a platform of Smart Tourism, and Fostering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DMO) of the Namhansanseong. Lastly, it is to promote a Namhansanseong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ject and an introduction of Demand Response Transit (DRT).

**Keyword** Namhansanseong, Museum, UNESCO World Heritage Site, Operation Plan, Content Development







4. 이번 남한산성 방문 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트레킹/등산                      ② 음식점 방문                      ③ 휴식 또는 데이트 목적  
 ④ 문화유산 감상                      ⑤ 문화예술행사 관람                      ⑥ 기타

5. 남한산성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 ① 아는 사람의 소개                      ② 언론매체                      ③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  
 ④ 포털, 블로그, 카페                      ⑤ SNS                      ⑥ 남한산성 공식 홈페이지  
 ⑦ 홍보책자 및 팸플릿                      ⑧ 기타

6. 귀하께서는 남한산성 역사와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7. 귀하께서는 남한산성이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남한산성 이용 편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의 각 문항에서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 정도를 모두 V 표시해주세요.

남한산성 개선방안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주차장 증설	①	②	③	④	⑤
2) 교통편 확충(무료 셔틀버스 등)	①	②	③	④	⑤
3) 문화관광 시설 조성(전시관 등)	①	②	③	④	⑤
4) 탐방로(남한산성 옛길) 정비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역사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유산 해설사 확대 및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행사 개최(축제 및 이벤트)	①	②	③	④	⑤
8) 홍보·마케팅 강화(SNS, 유튜브 제작 등)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께서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한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한산성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 문화재와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방문 시 '지하철 남한산성입구역(8호선)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귀하의 이용의향은 얼마나 됩니까?

매우 낮다	약간 낮다	보통이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14. (차량이용자만 응답) '남한산성 성곽 외 주차장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성곽 외 주차장에 주차하실 의향이 얼마나 됩니까?

※ 남한산성 행궁 - 성곽 외 주차장 구간 이동소요시간: 차량 약 3~14분, 도보 약 15~109분

매우 낮다	약간 낮다	보통이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10~20세 미만 ② 20~30세 미만 ③ 30~40세 미만 ④ 40~50세 미만 ⑤ 60~70세 미만 ⑥ 70세 이상
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가구형태	① 1인가구 ② 부부 ③ 부모+자녀 ④ 조부모+부모+자녀 ⑤ 기타
월평균 가구소득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400만원 미만 ③ 400만원~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800만원 미만 ⑤ 800만원~1,000만원 미만 ⑥ 1,000만원 이상
현 거주지	① 서울 ② 경기도(광주, 성남, 하남) ③ 경기도(광주, 성남, 하남 외 지역) ④ 인천 ⑤ 서울·인천·경기 이외의 지역